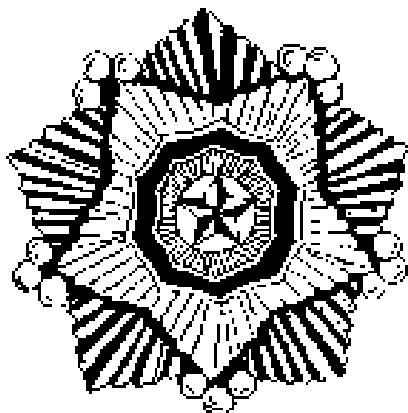


3

주제 97(2008)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7(2008)년 제3호

(루계 제725호)

## 차 례

력사적전환의 해로 빛날 올해문학작품 창작에서 더 큰 성과를 안아오자 .....	3
장군님과 선군조국 .....	5
주체문학의 대강 .....	6
삶의 자욱 조국청사에 새기리 .....	6
아, 3월 5월이여 .....	7
혁명주권의 요람 .....	8
애국애민의 위대한 생애를 보여준 정서적화폭 .....	9
아 명문고개 .....	10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	11
남사봉의 메아리 .....	11
그날의 풍금소리 .....	12
문수봉의 이팔나무 .....	13
려명을 불러 .....	13
신기한 《흔적》 .....	14
내 고향은 순천입니다 .....	14
당의 품속에서 노래와 함께 산 시인(1) .....	15
정다운 뻐꾹새소리 .....	17
밭머리에서 .....	18
무재봉에서 .....	18

조가비순가락.....	19
리수복영웅이여 .....	19
시의 매력은 어디에... ..	20
평양역 시계종소리 .....	21
선군시대의 요구와 작가의 탐구정신 .....	22
약속 .....	26
군복입은 아들자랑 .....	29
가사에서 민요풍을 살리기 위한 몇가지 언어 형상기교 .....	30
나는 군복을 보며 삽니다.....	31
돌아보는 눈 .....	32
《목가적》이라는 말은... ..	42
선군시대 녀인들 .....	43
절을 드리고싶어 .....	43
치마저고리 .....	43
이 저녁엔 그만 울것만 같아요 .....	44
선군시대를 노래한다.....	44
빼뜨라르까와 그의 창작 .....	45
연구사의 조수 .....	46
《헤밍웨이씨, 넥타이를 사주십시오》 .....	56
경구, 격언.....	56
호수가 마을의 배사공.....	57
민속놀이를 반영한 시가들에서의 형상적특성.....	69
박쥐의 달자랑 .....	71
나의 어머니시여 .....	72
사출기, 내마음아 .....	72
《나의 혁명》 .....	73
시인 리용악과 첫 시집 《분수령》 .....	74
등교의 날에 .....	75
왜놈의 쪽발이상 .....	76
해방전 농촌계몽운동과 장편소설 《상록수》 .....	79

## 역사적전환의 해로 빛날 올해문학작품 창작에서 더 큰 성과를 안아오자

지금 우리 작가들은 선군으로 존엄높은 조국땅 위에 룡성번영의 찬란한 새 아침이 밝아오는 격동적인 현실을 체험하면서 《공화국창건 60돐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역사적전환의 해로 빛내이자》는 올해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커다란 긍지와 전투적기백을 가지고 문학작품 창작에 모든 탐구와 열정, 사색을 기울여가고있다.

새해 주체97(2008)년은 우리 조국과 혁명력사에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게 될 장엄한 투쟁의 해, 민족사적인 경사의 해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수령님의 뜻과 위업을 받들어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여야 합니다.》**

올해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창건60돐을 맞이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공화국을 창건하신것은 우리 인민을 자주적이며 힘있는 혁명적인민으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새 기원을 열어놓은 역사적사변이었다.

우리 공화국의 력사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건국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여온 우리 당의 불멸의 혁명실록으로 찬란히 수놓아져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나라의 존엄과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고 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일대 룡성과 번영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시기에 공화국창건 60돐을 기념하게 되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더없는 영광이고 자랑이다.

지금 우리 당은 《공화국창건 60돐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역사적전환의 해로 빛내이자!》는 구호를 제시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이하게 되는 주체101(2012)년에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려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가지고 올해 전투에서부터 총진격의 북소리를 드세차게 울리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나가도록 힘있게 호소하고있다.

오늘 우리의 천만군민은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조국의 룡성번영을 위한 길에 삶의 자욱을 뚜렷이 남기는 투쟁의 기수, 창조의 영웅이 되며 어머니조국에 바치는 자랑찬 로력적성과를 안고 9월의 대축전장으로 뿔뿔이 들어서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오늘의 이 장엄하고 격동적인 현실을 온 심장과 녀트로 체험하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에 투쟁과 위훈의 불씨를 심어주는 혁명적인 문학작품,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선군조선의 제일국력인 정치사상적위력을 더 높이 떨치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창작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

모든 문학작품들에 수령결사옹위정신, 일심단결의 정신이 김일성민족의 영원한 녀트로, 생명으로 끝없이 이어지도록 하는 사상이 형상적으로 힘있게 울려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전당, 전국, 전민이 혁명의 수뇌부 두리에 단결하고 또 단결하며 수뇌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 나가며 위대한 장군님을 마음속으로부터 열렬히 그리며 따르는 순결의 인간, 인생의 시작과 끝이 한결같고 언제나 한모습으로 사는 선군시대의 전형을 훌륭히 창조하여야 한다.

우리는 문학작품창작에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불패성을 형상적으로 확정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그리하여 누구나 우리 인민자신이 선택하고 건설한 우리 식 사회주의가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신념을 지니고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것보다 더 값높은 삶이 없다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더우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사회주의본태를 살려나가기로 하는 데 이바지하는 형상을 창조하여야 한다. 혁명적인 문학작품으로 적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적침투와 심리모략전을 단호히 짓뭇개버리며 우리의 제도, 우리의 사회주의도덕과 문화, 우리의 생활양식을 좀먹는 그 어떤 요소도 배겨내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문학예술은 우리 당 사상사업의 힘있는 무

기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모든 형상수단을 총발동하여 온 나라에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며 특히 문학운동을 힘있게 벌임으로써 전체 인민이 언제나 신심과 락관에 넘쳐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살며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당의 선군혁명로선을 틀어쥐고 우리 공화국의 군사적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도록 하는 주제의 문학작품을 적극 창작하여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며 《일당백》 구호를 더 높이 추켜들고 사상이 투철하고 신념이 강하며 오늘의 영광스러운 시대에 리수복, 김광철과 같은 10대, 20대의 영웅들이 많이 나오도록 하는데 사상정신적량식이 되는 형상을 힘있게 창조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 경제강국 건설의 총공격전을 벌리고있는 우리의 격동적인 선군현실을 반영한 주제의 문학작품을 더욱 활발히 창작하여야 한다.

우리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생명선인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추켜세우는데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는 전형적인 형상, 특히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를 추켜세우는데 힘있게 이바지하는 주제의 작품창작에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한다.

우리는 인민생활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공화국 창건 60돐을 맞는 올해를 인민생활향상에서 실질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해로 되게 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는 본보기형상을 창조하는데 특별한 창작적주목을 돌려야 한다. 여기에서도 우리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는 일군, 농업근로자들의 투쟁을 반영한 작품, 품들여 마련해놓은 축산기지, 양어기지, 과일생산기지들을 잘 운영하여 인민들이 실지 먹을 보게 하는 생활을 반영한 작품을 적극 창작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경공업부문의 생활을 반영한 작품을 활발히 창작함으로써 이 부문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이 인민소비품의 지표를 끊임없이 확대하고 인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도록 적극 고무추동하여야 한다.

우리앞에는 또한 사회주의조국을 선경으로 꾸려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과 생활을 보여주는 작품, 천리마시대의 의료일군들처럼 인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해나가는 보건일군들을 형상한 작품, 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을 높이 받들고 탐구와 사색을 다해가는 과학자, 기술자들

의 형상을 창조한 작품을 비롯하여 교육일군, 경제지도일군, 선군청년전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수한 작품들도 그 어느때보다 활발히 창작해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르고있다.

조국통일은 우리 인민이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것이다.

올해 작가들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는데 이바지하는 조국통일주제의 문학작품도 그 어느때보다 활발히 창작해냄으로써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 참담게 기여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작가들은 자주, 평화, 친선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모습을 비롯하여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 이바지하는 작품창작에도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

참으로 이해에 우리가 수행하여야 할 창작과제는 방대하면서도 책임적인 시대적과업이다.

올해의 창작과제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작가들이 주체적문제사상과 리론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고 문학부문에 이룩한 당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이겠다는 투철한 자각과 신념을 깊이 간직하여야 한다.

우리 문학은 당의 령도를 받는 문학이다. 모든 창작지도일군들은 창작조직지도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1970년대 문학예술혁명을 일으키던 그때의 그 정신, 그 기백, 《만수대정신》으로 일하여야 한다.

현실은 창작지도일군들과 작가들에게 있어서 명작창작의 원천이다. 모든 작가들은 선군현실속에 심신을 묻고 땅냄새, 기름냄새가 폭 배인 생동한 형상을 창조하여야 한다.

당면하여 공화국창건 60돐을 맞으면서 진행하는 전국문학축전을 주체문학발전에서 획기적전환이 마련된 실리있는 문학운동으로 되게 하기 위한데 모든 창작력량을 발동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명작창작으로 공화국창건 60돐을 빛나게 장식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앞에 나선 창작과제가 아무리 방대하고 벽차지만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문제사상이 우리들의 앞길을 찬란히 밝혀주고있는 한 우리가 점령하지 못할 창작의 요새란 없다.

모두다 끝없는 창작적충동과 열정을 품이며 탐구와 사색, 열정을 다 기울여 올해의창작과제를 원만히 수행함으로써 뜻깊은 올해를 전례없는 명작의 대풍을 마련한 비약의 해로 되게 하자.

# 장군님과 선군조국

홍민식

려명이 불란다  
금시 불덩이가 불끈 치솟을듯  
하늘땅을 붉게 물들이며  
이 땅에 선군조국의 려명이 불란다

밤이 가면  
레사로이 밝아오는 려명이라면  
이리도 이 마음 환희로 설레이라  
순풍에 돛을 달듯  
좋은 날 좋은 때 맞이하는 려명이라면  
이리도 이 가슴 뜨거움에 목메이라

붉게 타는 저 려명속에  
우렁이 어려오는  
아 우리 장군님 모습  
저 한가닥 한가닥 빛발에  
눈물겹게 안겨오누나  
그이 헤쳐오신  
위대한 헌신의 그 자욱자욱이

다박솔초소길과  
아득한 철령의 그 굽이굽이  
오성산의 칼벼랑길과  
그 이름도 새라 새로운  
눈보라강행군 《삼복철강행군》...  
그 선군장정 천만리에서  
밝아온것 아니더나  
강성대국의 저 려명이...

그렇게 밝아온 려명  
그렇게 일떠서는 강성대국  
그이와 얼마나 잘 어울리는것이나  
천하제일명장이신 장군님  
천하제일강국인 불패의 나라  
아 장군님과 선군조국

사상과 정치  
군사와 경제  
도덕과 문화...

그 모든것을 장군님 그대로 닮아  
그 기상도 그 존엄도 그 위용도 천하제일인  
사회주의 선군조국

그렇다 우리의 강성대국은  
장군님의 뜻  
장군님의 의지  
장군님의 담력과 배짱!  
그이 심신을 깡그리 불태우신  
장군님사랑의 전부!

비둘기떼 어리광치며 날아에는  
맑고 푸른 하늘아래  
넘쳐흐르는 정보화의 동음소리  
흥치며 설레는 풍년나락의 물결  
아이들의 앵두볼 더 밝게 피어나고  
창가마다 행복의 웃음소리 더 높은...

전설속의 무릉도원  
어찌 먼곳에 있다하랴  
우리 세워가는 사회주의부강조국 여기에  
세기를 두고 바라고바라던  
인류의 념원  
인류의 행복  
인류의 미래가 다 있거니

우리 장군님 받들어  
사랑하는 나의 조국 받들어  
아낌이 있으랴 나의 피와 땀  
높뛰는 내 심장의 박동  
그 밝은 려명의 빛발로 더해지리라

아 하늘에 태양있어  
아침이 밝아오듯  
장군님계시여 밝아올  
보다 휘황찬란한 새 아침  
저 하늘의 태양이 영원하듯  
장군님 계시여 영원히 부강번영할  
아, 김일성민족의 선군조국이어!



#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참다운 충실성을 지닌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그리는데서는 신변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된 충실성을 가장 뚜렷이 구현하고있는 생활단면을 찾아내고 세부화하여 그리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시대의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창조하는데서도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수령, 당, 대중의 3위1체의 원칙에서 감명깊게 그려내야 한다.》

《문학에서는 우리 시대 인간들이 지니고있는 대중적영웅주의의 본질을 생동하고 깊이있게 밝혀내야 하며 우리 문학에 그려지는 영웅의 성격은 사람들모두가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는 전형적인 환경속에서 형성되어야 한다.》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옳바로 창조하기 위하여서는 성격의 전형화문제를 잘 해결하여야 한다.》

《공정인물을 현실에서와 같이 진실하게 보여주려면 생활속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수양하고 단련하여 나가는 그의 성격발전과정을 실감있게 그려내야 한다.》

## 삶의 자욱 조국청사에 새기리

한광춘

전환의 퇴성이 운다  
해돋이 불타는 이 아침  
비약의 폭풍을 안고  
총공격전의 진군길에 오른  
어머니조국의 목소리 천만심장을 두드린다

용기는 백배하다  
신심은 드높다  
우리가 태어났고 자라난 요람  
장장 60년의 그 년대기마다에  
거창한 변혁의 영웅서사시를 아로 새겨온  
사랑하는 나의 조국이어

시련의 고비고비 웃으며 이겨낸 인민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하려  
강성대국의 대문을 향해 큰걸음 내디딘 그대  
애국의 더운 피 용용히 솟음치는  
투쟁의 기수, 창조의 영웅을 부르거니

믿어다오 조국이어  
열어제길 강성대국 대문을 향해 마중가는  
오늘의 돌격전  
그 맨 앞장에 내가 서있으리라

나는 새기리

우리 장군님 헌신으로 헤쳐가시는  
강행군길 천만리에  
내 삶의 천만리를 이으며  
일편단심 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는  
전사의 참된 혁명관을 새기리  
인생관을 새기리

한마음  
조국의 번영을 위한 길에 남긴 자욱은  
세월이 가도 지워지지 않는것  
조국과 더불어 별처럼 빛나는것  
걸음걸음 내짚는 그 자욱마다에서 애국에 사는  
내 심장의 고동소리 들리게 하리라

9월의 대축전장으로 잇닿은 이 길은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생명으로 간직한  
김일성민족의 뉘이 굽이치는 길  
이 길에 바친 땀은 더없이 귀중한 영예가 되고  
이 길에 바친 열정 한생의 크나큰 자량이 되려니

아 이제 조국이 올라설 강성대국의 령마루  
그것은 그리도 벅차고 환희로운  
내 인생의 령마루 행복의 령마루  
장군님 걸음에 내 심장의 숨결을 맞추며  
삶의 뚜렷한 자욱 조국청사에 새기리라

-공동사설에서-

농촌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주인다운 립장에서 자체로 농사를 짓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 아, 3월 5월이어

김춘길

3월 5일 이날은

세월의 년륜속에 해마다 오지만

우리 가슴에 새겨진 이날은

세월이 가져다준

그런 날이 아니여라

예순두해전 이날에

우리 수령님 한자한자 쓰신

토지개혁법령을 선포하실 때

조상대대 소원이던 땅을 받아안으며

은혜로운 태양의 그 품이 고마워

이 나라 농민모두가

감사와 고마움의 눈물 흘렸거니

난생처음 제땅을 가진 농민들

분여지 표말을 부어잡고

울고웃던 그 모습을

3월 5일이어

세월이 흐른다 어찌 잊으랴

그 얼마나 수난 많던 농민의 력사였던가

열네살 어리신 나이에

빼앗긴 조국을 기어이 찾으리라

굳은 맹세 남기시며 압록강을 건느실제

수령님 가슴에 아픈 모습으로 안겨오던

땅없는 이 나라 농민들의 모습이여

그 땅을 찾아주시려

백두의 눈보라 혈전만리를 헤쳐오신

우리 수령님

숙영지의 우등불가에서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한자한자 적어가실 때

그 글밭속에 3월 5일이어

너는 벌써 어려있었다

정녕 농민들에게 땅을 주시려

해방된 조국에서도

그 어느 하루 편히 쉬지못하시고

수수한 농가집 토방에서

농민의 진정을 들어도 주시며

눈덮인 들과 이름없는 밭머리에서

지새우신 그 밤은 얼마였던가

그렇게 주신 땅이여라

그렇게 안아오신 3월 5일이여라

한뼉 땅에 엮매여 살던 농민들을

땅의 영원한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민족의 아버지 김일성장군님

대대로 농사짓던

만경대가문에서 탄생하시여

수령님은 그리도 땅을 사랑하시였던가

농사를 천하지대본으로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우신

수령님의 한평생

80고령에도 쉬임없이

농장길을 걷고 또 걸으시며

사회주의농촌테제의 휘황한 빛발로

인민이 주어진 땅의 력사를 안아오신

우리 수령님

아 태양이 영원하기에

땅은 영원히 그 해빛 자양분 삼으리라

이 땅에 풍만한 오곡백과 펼쳐며

우리의 3월 5일은 영원하리라

인민이 주어진 사회주의는 영원하리라



## 혁명주권의 요람

리일복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식량도 신발도 옷도  
쪼들린 살림마냥 찌그러져가던 오막살이도—  
거기선 모든것이 불타버렸다  
나무도 곡식도 돌아나던 풀포기마저도…

마을 하나를 두고  
골짜 하나를 두고  
피어린 결사전이 벌어졌다  
낮에 이어 밤을 모르고  
원썬들은 이리떼마냥 달려들었다

그러나 거기엔 있었다  
고동치는 심장들이  
김일성장군님을 따라 모여온  
불타는 마음들이 굴함없는 정신이…

달려들던 놈들은 시체로 변했다  
불타버린 집터우엔 새집이 솟았다  
군마에 뜰기우고 짓이겨진 밭에선  
또다시 오곡이 싱싱히 자라났다

타오르는 불길속에 또다시 안아세우는 기둥!  
타오르는 불길속에 또다시 씨뿌리는 발이랑들!  
나무껍질과 풀뿌리로 연명해야 하던  
날과 달은 그 얼마였던가

어린애가 자기에게 차례진 한알의 삶은 감자를  
얹아누운 할아버지에게 쥐여드리던  
가슴치던 그 사연들을 넘어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겨울이 가고 또다시 봄이 왔다

하나 얼음 풀린 내물은 변함없이  
즐겁게 조잘대며 흘러갔고

마을 한복판 인민혁명정부 추녀가에  
붉은기발은 높이 솟아 펄럭이고있었다  
마음과 마음들에 생기를 부어주며  
불타버린 그 땅에로  
사람들의 마음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며…

그 기발을 우러르는  
가슴들엔 피가 뛰고  
두 눈동자들은 새별처럼 빛났거니  
아, 어둠 덮인 압제의 시절에  
30년대의 하늘에 해빛을 뿌려준  
혁명의 근거지여!

침략의 질은 구름이 휘감긴 조국에  
밝혀줄 빛을 안고  
피를 줄 심장을 안고  
인민이 제땅의 주인된 참뜻을 깨우쳐주던  
혁명주권의 요람이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품에 안아 키워온 사회주의 우리 주권이여!  
…

한치의 땅을 두고 피를 흘린  
한채의 집을 열스무번 다시 지으며  
근거지를 지켜 원썬과 결사전을 벌린  
수령님께서 이끄신 투사들의 피의 대가로  
오늘의 나의 조국은 있다!

우리가 마음껏 숨쉬며 사는 이 땅,  
웃으며 걷고 즐기며 일하는 이 땅, 이 맑은  
하늘이  
아는가! 동무여, 그 요람에 안겨  
1930년대에 벌써 영원한 생명을 안고  
시작되었어라

주체64(1975)

# 애국애민의 위대한 생애를 보여준 정서적화폭

## -답시 《논물에 대한 답시》를 두고-

림광호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은 오로지 인민의 행복과 기쁨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애국애민의 사랑의 한평생이다.

어버이수령님의 인민을 위한 헌신의 사랑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형상하는것은 오늘 우리 시인들앞에 나선 중요한 임무의 하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을 형상하는 문학에서는 수령이 지닌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답시 《논물에 대한 답시》 [고남철 작, 《조선문학》 잡지 주체96(2007)년 10호] 도 어버이수령님의 애국애민의 헌신의 한평생을 정서적화폭속에 감명깊게 형상하였다.

인민이 바라다면 자연의 물흐름도 자기의 흐름을 바꾸어야 한다는 어버이수령님의 말씀속에 이 작품의 사상적핵이 있다.

작품은 이러한 의미심장한 종자의 요구로부터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위인적세계를 오늘의 선군시대의 새로운 시대적안목으로 의의깊게 형상하였다.

물은 푸른 대지런가  
물은 금빛이삭이런가  
대동강물이 차고넘치는 태성호기슭  
벌가득 하늘가득 안겨오는 수령님영상  
그날의 논물이야기 가슴에 울려오누나

그것은 서해갑문을 세우기 오래전 어느해 초여름

금방 벼이삭이 쭉쭉 패일 중복무렵  
기양관개로 농사짓던 강서랴 온천벌이라  
드살찬 왕가물에 대동강물이 줄어들어  
논판에 밀려든 잔물에 타는 벼포기 벼이랑

...

이렇게 작품은 첫시작부터 물의 의미를 강조하여주면서 자연흐름식물길을 따라 태성호에 한가득 출렁이는 물에 비친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위인의 세계를 생동한 화폭속에 보여주고있다.

시인의 주장처럼 물은 푸른 대지이며 금빛이삭이다. 왕가물로 대동강물이 줄고 논에는 잔물에

벼포기들이 타드는 한여름 농장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심중에 무겁게 매여달린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슬에 젖은 옷자락도, 신발에 무겁게 매여달리는 논흙도 아닌 물, 곡식이 먹는 논물이다. 인민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중히 여기시였으면 그 누구나 흔히 보아오며 지나치던 논물문제 때문에 이른새벽부터 농장별을 찾으시겠는가.

작품은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흙물은 손을 잡으시고 농사형편도 물으시고/잔물에 노랗게 타든 벼잎새를 만져보시며/벼뿌리도 뽑아보시던 수령님/땅과 무릎맞추는 토배기농사군처럼/논고에 앉으시여 물 한웅큼 두손에 뜨시여/논물을... 논물을 <맛> 보시누나》라고 강한 극성속에서 보여주었다.

여기에 시인이 노리고있는 심각한 문제성이 있다. 논물 《맛》에 깃든 사연은 이처럼 가슴뜨거운 이야기이다.

이 세상 그 어디에 그 어느 령도자가 논물 《맛》까지 보며 농사를 지도한 례가 있는가. 오로지 인민을 위하여 한생을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만이 하실수 있는 용단이다.

이처럼 작품에서는 《이민위천》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언제나 인민들을 더 잘살게 하시기 위하여 굶은일, 마른일 다하여 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을 하나의 력사적사실속에 가슴뜨겁게 되새겨준다.

...

—우리 수령님께서 논물 《맛》을 보시다니?!

물어보자 기름진 땅이여 푸른 대지여

논물 《맛》까지 보며 땅을 가꾼이가 누구 더냐 없었더라

천만인민을 자식으로 거느린 수령님처럼

논물 《맛》을 보며 땅을 가꾼 인민의 아버이는

...

수령님처럼 물과 인연이 깊은분이 어디에 있으랴

해불을 드시고 눈보라 헤쳐가신 삼석의 밤이여

밥 한그릇보다 물 한모금이 귀하던 미루등판이여

물없는 곳엔 황금으로 언제를 쌓아서도 물을

주시고  
큰물로 고생하면 큰물을 막아주시고…  
…

시인은 작품에서 어버이수령님의 애국애민의 한평생을 집약적으로 보여줄수 있는 대상들을 펼쳐함으로써 한평생을 오로지 인민을 위하여 바쳐오신 위대한 헌신의 사랑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시에서 《인민이 마실 물이라면 물에서 물을 골라 먹이시》고, 《산골에 가시면 뚝은 도토리조차 황금으로 만들어주시》는 수령님의 한평생은 위대한 애국애민의 한평생이라고 격조높이 노래했을 때 그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이민위천》사상의 커다란 생활력의 폭넓은 일반화이며 수령님의 위대한 생애의 감동깊은 예술적형상이다. 하기에 시인은 시의 마감에서 《인민의 대지에 심장의 피줄을 잇고 사신》 어버이수령님의 한평생은 《수령님과 꼭 같은 인민의 어버이/우리 장군님품에서 위대한 그 력사는/선군시대의 세월로 인민의 생활로 영원하여라!》라는 주정토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에 의해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우리 인민들의 생활속에 영원하다는 시대의 감정을 펼쳐보여주었다.

시는 우리 인민들속에 잘 알려진 력사적사실속에서 종자를 탐구하고 담시로 새롭게 형상함으로써 작품에서 보여주려는 시인의 의도를 잘 살리고있다.

하지만 시는 계절에 대한 표현이나 세부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부족점도 가지고있다.

《초여름의 중복무렵》이라는 표현은 어딘가 잘 맞지 않는감을 준다.

중복무렵은 여름의 한창이다. 만물이 한껏 자기의 왕성한 힘을 자랑할 때인 중복무렵을 어떻게

초여름이라고 할수 있는가?

이런 부족점은 《농민조차 휴양소 그늘에서 정한 물 마시는 삼복철》이라는 세부에서도 나타나고있다.

물론 농사일은 절기에 따라 바뀔수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한가할 때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벼포기들이 싹싹 패일무렵 이 시기부터 농장에서는 다음해 농사준비에서 관건적문제라고 할수 있는 풀베기전투가 한창이다. 다음해 농사준비를 앞두고 어떻게 휴양소에 가서 휴양하는 농민이 있겠는가? 휴양소의 설정은 시인의 지나친 과장이라고 할수 있다.

작품은 또한 시적일반화를 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이야기가 길어지고 설명이 많은것으로 하여 시의 서정을 보다 더 높은 경지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따라서 서정의 흐름속도가 떨어지고 진부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부족점은 있으나 시는 서정을 타고 정서적으로 흘러가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적모습을 오늘의 새로운 안목으로 재현함으로써 수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시대적감정을 깊이있고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들속에 잘 알려진 이야기인것으로 하여 새로운 《맛》이 느껴지지 못할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담시형식으로 새롭게 형상함으로써 작품은 자기의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시인이 생활에 깊이 침투되어 종자탐구와 소재선택에 많은 품을 들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담시 《논물에 대한 담시》는 논물 《맛》에 담겨진 위대한 수령님의 애국애민의 한평생을 정서적화폭속에 펼쳐보임으로써 독자들속에 남긴 여운은 대단히 깊다.

## 가사

# 아 명문고개

류춘선

지원의 높으신 뜻 가슴에 안으시고  
김형직선생님 넘으신 명문고개  
장군님 그 넘원 굽이굽이 새기시며  
시련의 눈보라 헤치며 넘으셨네  
아 명문고개  
만경대혁명일가 앞서간 길이어

기어이 나라찾을 불타는 맹세안고  
우리의 수령님 넘으신 명문고개  
장군님 천만리 전선길에 이으시며

이 나라 험한 령 모두다 넘으시네  
아 명문고개  
만경대혁명일가 났이 어린 길이어

이 땅우에 강성대국 새아침을 부르시며  
장군님 오늘도 넘으시는 명문고개  
김일성민족의 새 력사를 펼치며  
불멸의 기념비로 높이 솟아 빛나라  
아 명문고개  
만경대넘원이 꽃피난 길이어

##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조선국민회는 전체 조선민족이 일치단결하여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며 참다운 문명국가를 세울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로서 3.1인민봉기를 전후한 시기 조선의 애국자들이 무은 국내외의 조직들가운데서도 가장 규모가 큰 반일지하혁명조직의 하나였다.》

《조선국민회는 반제자주적인 립장이 투철한 혁명조직이었다.

조선국민회의 취지서에는 장차 구미세력이 동양에 부식되고 일본이 그들과 패권을 다투게 될 시기가 닥쳐 올것은 명백하므로 그 기회에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조선독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지들의 결속을 도모하며 그 준비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조선국민회는 〈한일합병〉 후 여러해동안 국내와 해외에서 아버지가 벌려 온 정열적인 조직선전활동의 총화였다.》

## 남사봉의 메아리

서봉제

소후주산  
배후주산  
북방대령의 긴팔아래  
숲을 거느리고 솟은 남사봉

천연원시림은  
청청 푸르려 설레였어도  
망국의 비운이 뒤덮여  
너 얼마나 몸부림쳤더나

다물아대는 왜놈의 채찍소리  
원한서린 피눈물의 도끼질소리  
걸음걸음 자욱마다 다 들으시며  
여기 목재소에 오신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우리의 김형직선생님

사품치는 압록강물을  
셀녘의 려명속에 건느시고  
밀림의 험한 령 절벽바위를 넘고넘어  
해질녘에 닿으신 머나먼 그 길

오시여도  
어둠을 타고 오시였어도  
깃발힌 거레들이 그리웠던 마음  
천백배의 복수를 다짐하시며  
팔도구 관장단의 무장대를 이끄시고  
살벌한 압록강국경을 넘어오셨구나

—동포여

원시림에 묻혀 한탄 말고  
총대들고 일어나 싸우라!  
선생님 심장으로 터친 그 목소리  
쩌렁쩌렁 수림의 깊은 잠 깨웠던가  
지지리도 놀려살던 벌목부들  
얼음뱀 가슴에 눈석을 터쳤던가

검은 구름장 쪽— 가르며  
선생님 올리신 무장대의 그 총성  
왜놈들의 판사에 불을 달았구나  
산갈이 쌓였던 통나무 토장에서  
온 강산에 알리는 봉화대인양  
거세차게 타번지던 그날의 화염

잊지 말어라  
독립만세나 불러서는  
빼앗긴 나라를 찾을수 없음을  
민중이 총칼들고 나서야만  
이 땅에 독립을 가져올수 있음을  
온 삼천리에 총소리로 고한  
남사봉의 메아리

반일성전의 불의 폭풍이여  
오, 세월은 흘러 세기를 번졌어도  
우리의 김형직선생님 새겨주신  
나라의 독립을 위한 총대의 그 진리  
천하명장 우리 장군님 거느리신  
무적강군의 천만총대술에  
선군의 불벼락으로 채워있어라!

## 그날의 풍금소리

박경철

내 고향 피현군에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사적이 많이 깃들어있다.

얼마전 조선국민회결성 91돐을 맞으며 읍에 있는 혁명사적지를 찾았던 나는 한장의 사진앞에서 오래도록 걸음을 멈추었다.

지금은 보기 힘든 발풍금이 찍혀진 사진이었다.

참관자들앞에서 강사는 그 풍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했던 그 세월 당시 이곳에는 민족주의자들이 세운 《신성학교》가 자리잡고있었다. 피현땅의 여러곳에 혁명투쟁의 자욱을 찍어가시던 김형직선생님께서도 이 학교에도 여러차례 찾아오시여 학생들과 학부형들을 반일애국사상으로 교양하고 계몽시키는 사업도 활발히 벌리시였다.

선생님께서 이 학교를 찾아주신 1912년 여름 어느날이었다. 이날 학교에서는 벌려놓았던 학교증축을 끝내고 락성식을 진행하고있었다. 이 락성식에 몸소 참가하시여 학교를 돌아보시던 선생님께서는 강당에 놓여있는 발풍금을 보시자 밝은 미소를 지으시며 그앞으로 다가가시였다. 그러시고는 깊은 생각에 잠겨 창너머 먼곳을 바라보시고나서 풍금앞에 마주앉아 건반을 누르기 시작하시였다.

《항학가》, 《신성학교교가》...

선생님께서 정열적으로 타시는 풍금소리는 교정의 트랙을 넘어 암운이 무겁게 드리운 조국의 하늘가로 멀리 메아리쳤다.

《...그후에도 선생님께서는 이 학교에 오실 때마다 자주 이 풍금앞에서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노래들을 타시였고 자신께서 친히 지으신 노래들을 학생들에게 배워주기도 하시였습니다. 하기에 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에도 이곳 학생들과 학부형들은 선생님께서 지으신 노래들을 즐겨부르며 강도 일제를 쳐부시고 내 나라를 다시 찾아 반일애국사상을 키울수 있었습시다.》...

강사의 이야기는 나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사적지참관을 끝내고 집에 돌아왔으나 나는 밤 깊도록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그날의 풍금소리가 귀전에 쟁쟁히 울려오고 선생님의 노래를 따라부르며 조국해방의 큰뜻을 키워가던 그날의 학생들의 밝은 모습이 눈앞에 삼삼히 어렸었던것이다. 어찌 내 고향에서 뿐이라.

왜놈의 감옥안에서도 인적드문 복변의 심심산골마을과 압록강건너 낯설은 이국땅에서도 《지원》의 큰뜻 품고 선생님께서 가시는 곳마다에서는 언제나 불요불굴의 혁명의 노래, 백절불굴의 투쟁의 노래가 힘차게 울려퍼지곤 했다.

일제에게 짓밟힌 망국노의 설음과 피눈물이 강물처럼 흐르던 수난의 그 세월 선생님께서 남달리 노래를 사랑하신것은 뛰어난 예술적천품때문만이 아니였다. 혁명투쟁과정에서 노래가 노는 역할을 너무도 잘 아시는 선생님이시였기에 몸소 《남산의 푸른 소나무》, 《전진가》와 같은 혁명적이며 애국적인 노래들을 수많은 창작보급하시여 억눌린 우리 인민에게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 그들을 조국해방을 위한 반일항전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실수 있는것이 아닌가.

아울러 노래소리 높은 곳에 혁명의 승리가 있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의 참뜻을 다시금 경탄속에 되새겨보게 됨을 어쩔수 없었다.

《지원》의 혁명사상과 꺾이면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을 백절불굴의 투쟁정신 그리고 투철한 반일애국사상으로 일관된 선생님의 노래는 결코 선생님의 길지 않은 한생과 함께 끝난것이 아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으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선의 노래》, 《반일전가》, 《사항가》와 함께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으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축복의 노래》, 《조국의 품》, 《백두의 행군길 이어 가리라》등과 더불어 대를 이어 이 강산에 울려퍼지며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시대들을 안아왔고 오늘은 위대한 선군시대의 노래로 온 누리를 진감시키고있는것이다.

그렇다! 그날에 타시던 선생님의 풍금소리, 심장으로 부르시던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는 절대로 끝나지 않았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성하고 이 땅우에 부강조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울 신념과 의지를 안고 오늘도 우리 인민은 남너로소 그 누구나 선생님이 지으신 노래를 부른다! 합창한다!

...

이 한몸 싸우다 쓰러지면  
대를 이어 싸워서도 금수강산 삼천리에  
양춘을 찾아 울제 독립 만세를  
조선아 불러 다오

# 문수봉의 이깔나무

신문경

비단우에 수를 놓은듯  
그 이름도 문수봉  
해방후 어느 봄날  
백두산3대장군들 여기에 심으시여  
오늘도 무성한 이깔나무들

백두에서 총을 드셨던 그 손에  
건국의 삽을 드시고  
백두산위인들은 여기에 심으셨구나  
아직은 가지 연연한 어린 나무를  
조국의 푸른 미래를

한삽 또 한삽  
정성으로 떠담아  
이 나무의 뿌리에 덮어주신것  
이 땅에 혼한 흙이었던가  
부어주신것은  
산천에 혼한 물이었던가

귀중한 청춘시절을 바쳐 찾아주신 땅  
피와 바꾸신 물이었다  
오늘을 위해 만리광야에 쓰러진 투사들  
돌아오지 못한 그 전우들의 넋이  
백두산위인들의 손에서

뿌리가 되어 심어진것이리

찾아주신 우리 행복의 귀중함이  
가슴에 찌릿이 스며오고  
안고오신 조국의 그 신성함이  
마음에 기둥으로 우뚝 솟아오른다  
한그루 나무되어 나도 뿌리내린듯  
오래도록 걸음 못 떼는 이 나무 이 푸른 숲

피 흘려 찾아주신 조국  
가꾸기도 결코 험하지 않기에  
험난한 전선길에  
병사들과 함께 나무를 심으신  
우리 장군님 그 뜻이  
저 푸른아지에 비껴오나니

오, 한그루 나무를 심을 때  
하나의 돌을 들어 제방우에 얹을 때  
그 고결한 넋을 우리 마음에 먼저 심기 전엔  
서둘러 애국을 두고 말할수 없음을  
무성한 숲속의 이깔나무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있어라

# 러명을 불러

조영일

추녀낮은 기와집은 여기에 없어도  
학당골에 흐르던 그날의 불빛  
력사의 금문자로 비문에 새겨진  
저 글줄들 마다엔  
력력히 비끼여 어리어있구나

재생의 불씨런듯  
광명의 빛이런듯  
민족의 넋이 강토에 심어지던  
못 잊을 학당골의 그밤

이 가슴엔 뜨겁게 안겨오거니  
독립의 큰뜻 품은 열혈의 투사들  
조선국민회결성의 엄숙한 선언으로  
격정에 목메이던 그 모습들이

압제의 사슬에 나라는 엮매이고  
삼천리강산이 신음하고있을 때  
품으신 원대한 뜻 강령에 담아

민족의 단합된 힘 깨우쳐주시던  
위대한 선각자 김형직선생님

민족자주의 단결된 힘!  
오직 이 힘만이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을수 있고  
문명국가건설도 앞당길수 있음을  
겨레의 심장에 새겨준 선언

오, 1917년 3월  
그날의 학당골에 넘치던  
조선국민회성원들의 감격의 환희  
삼천리에 메아리쳐 갔어라

선생님의 원대한 그 뜻  
애국으로 불타시던 그 념원  
오늘도 전민족대단결의 화불대오속에  
더욱더 빛발쳐 흐르고있거니  
아 조선독립의 러명을 불러오던잇지 못할 력사의  
그날이여!

## 신기한 《흔적》

주체26(1937)년 3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이끄시고 무송원정의 길에 나서시어 되꿀령을 넘으실 때에 있던 일이다.

3월이라고 하면 우리 나라 벌방지대에서는 눈석이 한창이지만 그곳에서는 아직 엄혹한 추위가 계속되었다.

이때를 회고하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하루종일 행군을 하였는데 눈이 어찌나 많이 쌓이고 날씨가 얼마나 추웠던지 령을 다 넘지 못하고 중턱에서 하루밤을 숙영하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교시하시였다.

그해에 엄청나게 많은 눈이 내려 어떤 골짜기에는 눈이 몇길씩 쌓인데도 있었다. 그런데서는 몸으로 눈을 밀어제끼면서 한치한치 앞으로 전진해야만 하였다.

그런데 악착스러운 일제 《토벌》대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흔적을 농칠세라 뒤를 바짝 따르며 떨어질줄 몰랐다.

행군대오가 어느 한곳에 이르렀을 때였다. 어찌나 눈이 깊고 또 바람이 세찬지 대오는 도저히 령마루로 올라갈수가 없었다. 추격해오는 적들과의 간격이 점점 좁아졌다. 정황을 살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눈밑으로 굴을 뚫고나가라는 명령을 내리시였다. 행군대오는 키높이 쌓인 눈속에 굴길을 내면서 전진하였다.

맨뒤에 선 대원들은 대오가 통과한 다음 굴을 허물어뜨리였다. 세찬 눈보라가 순식간에 그 흔적을 말끔히 지워버리였다.

기를 쓰고 뒤따르던 적들은 그만 어리둥절해졌

다. 방금전까지만 해도 앞에 보이던 혁명군대오가 감쪽같이 사라진것이였다. 아무리 살펴보아야 지금까지 따라온 눈우의 발자국자리는 흔적조차 찾을 길이 없었다. 놈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다가 《유격대가 하늘로 올랐는가? 땅으로 잤는가?》라고 하면서 아우성을 쳤다. 얼마간 시간이 흘러서였다.

어안이 병병해있던 놈들의 눈앞에 언뜻언뜻 나타나는것들이 있었다.

《저거다!》

놈들은 열결에 소리치고나서 자세히 훑어보았다. 그런데 그것은 눈보라에 흩날리는 가랑잎들이였다. 아무리 사방 둘러보아야 그것밖에 눈에 뜨이는것이 없었다.

《유격대가 가랑잎을 타고 산꼭대기로 올라갔는가?!》

간특하고 포악하기 이를데 없는 일제놈들도 도무지 종잡을수 없는 신기한 《흔적》앞에서는 등골이 섰혀져 허겁지겁 도망을 치고말았다.

공연히 그곳에서 우물거리다가 령마루에서 유격대가 짓쳐나오는 날에는 영낙없이 황천객이 된다는 생각에 화닥닥 되돌아섰던것이다.

이런 일이 있는 다음부터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가랑잎으로도 군사를 나르신다.》라는 백두산전설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인민은 백두산의 천출명장을 높이 모신 궁지와 조국해방에 대한 신심에 넘치였고 적들은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 가사

## 내 고향은 순천입니다

장학림

송개천에 흐르는 맑은 물소리  
영웅의 시처럼 들려오는 땅  
누구보다 영웅과 제일 가까운  
예가 바로 내 고향 순천입니다

영웅이 남긴 시로 꿈을 키웠고  
영웅의 숨결안고 군복입었네

장군님 기억속에 제일 가까운  
예가 바로 내 고향 순천입니다

영웅의 고향에서 태어난 자랑  
위훈이 없다면 어이 빛나라  
선군시대 영웅되어 그 이름 떨칠  
예가 바로 내 고향 순천입니다



## 당의 품속에서 노래와 함께 산 시인(1)

박춘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는 오직 당을 위한 몸이 되여야 하며 무엇을 하나 창작하여도 당의 뜻을 끝까지 받들고 꽃피우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여야 한다.》**

작가 조령출은 문학예술혁명, 가극혁명의 나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의도를 가슴깊이 새기고 그이의 령도를 충심으로 받들며 주체의 가극예술창조에 재능과 열정을 남김없이 바침으로써 우리 문학예술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작가였다.

해방전과 해방후 수많은 명가사를 창작한 그는 우리 나라 가사문학사에 뚜렷한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 나라 가극예술과 더불어 길이 남아있다.

작가 조령출은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자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무력침공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하는 싸움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적극 불러일으키는데 이바지하는 노래의 가사《조국보위의 노래》를 창작하였다.

인민군장병들은 조국해방전쟁이 개시되자 이 노래를 부르며 조국보위의 성전에 떨쳐나섰고 침략자들을 물리치며 남으로 진격하였다.

그후 가요들인 《압록강 2천리》, 《얼룩소야 어서 가자》 등의 가사를 창작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였다.

조국해방전쟁이 승리로 끝나가고있던 그때에는 가사 《건설의 노래》를 창작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또다시 기쁨을 드리였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는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었다.

조령출은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치하와 고무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장엄한 투쟁이 벌어지고있던 시기에 《모란봉》과 《해당화》를 비롯한 많은 우수한 가사 작품들을 창작하여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과 혁명교양에 크게 공헌하였다.

그는 지난날 많은 민족조전물가극을 창작하였으며 해방전에는 망국의 슬픔을 노래한 가사들이 많이 썼다.

그가 첫 가사를 써서 신문 《동아일보》에 투고하여 1등으로 당선된것이 주체22(1933)년이었다.

아마 가사작가로서의 그의 첫 출발점이 이때였

다고 말할수 있다.

그 작품이 《서울노래》라는 가사였다.

한양성 옛 터전 옛날이 그리워라

무궁화가지마다 꽃잎이 집니다

...

이렇게 시작된 가사는 그나마 일제검열에 의해 3절은 삭제당한 《병신자식》이었다.

망국의 설움속에 있는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개탄하며 20대의 조령출이 부른 망국의 비가마저 일제놈들은 부르지 못하게 하였다.

가사가 노래로 되어 소리판으로 세상에 나오자 모조리 압수당하고 소각되어버렸다.

조령출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혜로운품에 안기지 못했다면 작가로서의 성공을 생각조차 할수 없었던 인간이었다.

그는 주체2(1913)년 11월 충청남도 아산군의 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사기리 보통학교에 다녔으며 6학년 졸업반시기에 맑스주의서적과 문학서적을 읽었다. 이때부터 그의 문학공부가 시작되었다. 9살때 아버지를 잃은 작가는 어머니의 싯빨래와 남의 집 침모노릇으로 버는 돈으로는 생계도 유지하기 어렵게 되어 더는 학교에 다닐수 없게 되었다.

그의 어머니는 생각다못해 불교포교사로 일하는 사람의 양자로 그를 들여보냈다. 그의 부양과 어머니의 보탬으로 보성고등보통학교를 서울에서 졸업하였다.

주체24(1935)년 일본에 건너가 고학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서울에 온 그는 조선연예주식회사에서 가사창작전속작가로 있으면서 시, 희곡, 가극을 전문으로 창작하였다.

주체34(1945)년 해방후에는 남조선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투쟁내용을 담은 장막연극을 창작하여 서울예술극장에서 상연하였다.

주체37(1948)년 8월에 한 연출가와 함께 서울을 떠나 개성을 거쳐 평양으로 와서 아버지수령님의 품에 안겼다.

공화국의 품에 안긴 후 조령출은 아버지수령님의 품속에서 자기의 창작적재능을 마음껏 꽃피우

며 보람찬 생활을 누리였다. 사실 고학으로 중학과 대학을 다니며 문학공부를 하던 해방전 그 세월 그의 신상에는 파란곡절이 많았다. 이국땅 일본에서 고학을 하던 때 그는 굶주림에 시달리다 위독한 병에 걸려 생명이 위급한 지경에 처하게 된 일이 있었다.

그가 든 세방주인인 일본인의사는 개인병원을 차려놓고있었으나 나라 잃고 돈이 없어 신음하는 식민지문학청년에게 약 한첩 주지 않았다.

민족적모멸과 빈궁과 병고의 고통속에서 공부는 해 무엇하며 살아서 무엇하랴 하는 막다른 생각에 이른 그는 《유언서》라는 시를 남기고 죽으려고 한 일까지 있었다. 그래서 아마 그의 청년기에 쓴 가사들이 망국의 비가가 아니면 인생의 고달픔과 비애를 노래한것들이 많은것이라고 생각된다.

작가 조령출이 공화국의 품에 안긴 때부터 그의 운명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다.

작가는 드디어 주체37(1948)년 9월 공화국정부 수립경축 평양시군중대회의 주석단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을 처음으로 뵈옵게 되었다. 이때부터 그의 생애에서 영광의 시기, 행복의 시기가 시작되었다.

작가 조령출은 문화선전성의 창작부문에서 마음껏 창작활동을 하면서 진정한 조국과 민족, 행복의 노래를 불렀고 이를 마련해준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을 노래하였다.

그는 첫 민족가극작품으로 《꽃신》을 창작하여 주체38(1949)년 12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였고 귀중한 치하의 교시를 받았다.

그러던 그가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 가까이 처음으로 만나뵈운것은 주체47(1958)년 11월 어느날이었다.

당시 위대한 수령님께서 중국을 방문하고 계시었는데 조선예술단 단장으로 중국에 가있던 조령출을 중국정부가 차린 연회장엔 친히 불러주시고 만나주시였던것이다. 여기서 그이께서는 작가의 건강에 대하여, 공연활동에 대하여 일일이 물어주시였다. 순간 조령출은 깊은 감동으로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조국에 돌아온 얼마후인 12월 어느날에는 《선화공주》를 보아주시러 모란봉극장에 나오신 어버이수령님을 또다시 만나뵈고 휴게실에서 여러시간동안에 걸쳐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영광을 지니였다.

해방전과 해방후를 거쳐 작품을 창작해왔으나

자기가 쓴 작품이 한 나라의 수령으로부터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게 되니 참으로 영광스럽고 한편 송구하여 몸둘바를 몰라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과 교시를 수십여차 받으며 작가 조령출은 혁명적문학의 본성과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당의 작가, 인민의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창작하고 살아야 하며 수령님께서 작가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가를 뜨겁게 체험하였다.

작가는 영광속에 한생을 살아오며 오직 당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가 바친 당에 대한 충실성을 귀중히 여기시고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고많은 크나큰 사랑을 더하여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학예술혁명을 령도하시던 시기에 작가에게 《피바다》식혁명가극창작의 중요한 임무를 맡겨주시였으며 민족가극 《춘향전》을 창조하던 나날에도 그에게 중임을 맡겨주시고 여러차례 접견해주시고 지도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푸시였다.

그 나날 그는 당의 작가로 자기의 한마음을 불태웠고 그것은 그가 생의 말년에 창작한 가사 《어머니 우리 당이 바란다면》에서 감명깊은 형상으로 나타났다. 노래는 작가가 79살의 고령의 몸으로 지은 노래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80고령이 다 된 그가 쓴 가사를 친히 보아주시고 못내 기뻐하시며 국보와 같은 작품이라고 분에 넘친 평가와 치하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노래 《어머니 우리 당이 바란다면》은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우리 사회의 참모습에 대한 찬가라고 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 노래가사를 조령출동무가 썼는데 잘 썼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조령출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즐겨 부른 수많은 재보적작품들을 많이 쓴 작가였다.

해방전에는 망국의 슬픔을 노래한 가사들과 해방후에는 《조국산천에 해 등실 떠온다》, 《해당화》, 《만경대의 노래》, 《어화 우리 농민들아》, 《양산도》, 《바다의 노래》, 《옹헤야》...

작가 조령출은 한생 가사창작으로부터 시작하여 노래와 함께 산 작가였다.

(다음호에 계속)

## 정다운 뻐꾹새소리

내 나라의 정든 산촌의 고요를 깨치며 때없이 울려퍼지는 뻐꾹새소리.

지난날 멍든 가슴을 구슬프게 헤집던 뻐꾹새소리가 어버이수령님 찾아주신 해방조국에서 풍년 노래로 메아리치더니 더 살기 좋아질 선군조선의 려명이 밝아온 오늘은 더욱 새로운 의미를 안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있다.

نه해전 여름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선 인민군 어느 한 부대를 찾으시여 여러곳을 돌아보실 때의 일이었다.

양묘장에 이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 일대를 수림화, 원림화하는데서 부대가 거둔 성과를 치하하시면서 일군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문득 말씀을 멈추시었다. 어디선가 뻐꾹새소리가 들려왔던것이다.

뻐 꾹—뻐 꾹—뻐뻐 꾹—

청신한 대기를 가르며 울려오는 그 소리를 정겹게 들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누구에게라 없이 뻐꾹새가 운다고, 뻐꾹새소리가 유정하다고 말씀하시며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었다.

만시름을 잊으신듯 뻐꾹새소리에 심취되시는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들의 얼굴에 이름할수 없는 기쁨이 한껏 어리었다. 뻐꾹새소리는 더욱 구성지게 울려왔다.

한동안 그 소리를 들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산림이 울창하니 뻐꾹새를 비롯한 온갖 새들이 다 찾아오고있다고 하시면서 감동깊은 어조로 나는 뻐꾹새소리를 《고난의 행군》이후 여기에 와서 처음 듣는다고 말씀하시었다.

순간 일군들은 간고하였던 나날의 추억이 밀물처럼 안겨들어 가슴이 뭉클해졌다.

얼마나 험난한 길을 헤쳐왔던가.

그것은 미래에 대한 신념이 없이는 한발자국도 걸을수 없는 고난과 시련의 길이었다.

그 나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살게 될 행복한 래일에 대한 확신을 안으시고 푸른 숲의 새력사를 펼치시였으며 우리 군인들이 나무를

심고 가꾸는데서도 온 나라의 앞장에 서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선군령장을 모시여 모진 고난을 이겨내던 조국땅 곳곳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고 푸른 숲이 가없이 펼쳐지게 된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뜨거운 감회에 젖어있는 일군들에게 저 뻐꾹새소리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짓고 강성대국건설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의 일이 다 잘되리라는 좋은 징조라고 볼수 있다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봄날의 뻐꾹새소리를 그해의 풍년징조를 알리는 노래로 여겨오던 우리 인민의 정서를 선군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높이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었다.

언젠가도 그이께서는 어느 한 양묘장을 돌아보시며 이 많은 나무모들이 자라고자라 산마다 푸르게 설레이게 될 때 우리 나라는 또 얼마나 아름다와지겠는가, 그날은 멀지 않았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한그루의나무를 보시고도, 산세의 지저귐소리를 들으시면서도 조국과 인민을 생각하시고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열화와 같은 조국애와 부강번영할 래일에 대한 확신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어버이!

일군들은 커다란 걱정,에 휩싸여 그이를 우러르며 뻐꾹새소리에 귀를 강구었다.

뻐 꾹—뻐 꾹—뻐뻐 꾹—

희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의 끝없는 영광과 행복을 노래하는듯 환희롭게 울려퍼지는 뻐꾹새소리...

그것은 희망찬 래일에 대한 신념을 굳건히 가다듬고있는 일군들의 가슴마다에 더욱 정겹고 뜻깊게 안겨들었다.

한류호

## 밭머리에서

김남호

봄빛은 아지랑이 타고서  
춤추며 내리고  
실실이 피어오르는 해토의 흰김은  
봄같이 재촉하듯 무릎새에 감도는데  
나는 왜 밭머리에 그린듯 서있는가

어려오누나 땅이여  
네 밭머리의 흙 한줌 쥐고  
추억깊던 나의 할아버지의 모습이랑에 씨앗을  
박듯  
이 가슴에 들려주던 그 이야기

대를 이어 물려받은 소작의 멍에 벗어보자고  
제땅 한조각이라도 가져보자고  
그 넓은 땅 피나게 허비고  
억척같이 밭두렁을 타고 넘어도  
소원의 그 씨앗은 반쪽도 물을 못 없었다고

분명 제 손으로 낱알을 심었건만  
불고 씻은듯 매정한 가을이랑  
가난의 검불만 밭목에 칭칭 감겨들고  
제땅없는 설움만 산같이 지고  
피눈물 삼키며 일어섰다면 밭머리

그리도 애타게 그렸고  
꿈에도 사무친 소원이였기에

해방의 첫봄을 맞던 3월의 그날  
제땅의 숨결 온맘으로 듣고싶어  
맨발로 이랑을 밟았더랬지

분여지 밭머리에 자기의 표말 박으며  
나서 처음 주인의 자격으로 이 땅과 통성할 때  
눈굽이 더욱게 쿡 실리던것  
봉건의 질곡을 산산이 불살라  
거마리같은 착취의 멍에 영영 벗겨주신  
김장군님 은덕이 정녕 고마워...

아 내 못 잊으리 할아버지의 그 이야기  
세월은 멀리 흘러왔어도  
전번의 시대에 땅은 천리로 넓어지고  
이랑은 뻗어 하늘끝에 닿았어도  
땅의 주인된 농민의 행복이  
처음으로 시작된 그날, 그 밭머리를!

시작은 변함없고 그 끝은 무한하리  
할아버지의 추억을 분여지의 표말처럼  
새 세기의 밭머리에 굳건히 세워놓고  
이 땅을 가꾸어 갈 내가 있는 한  
선군시대 농민이 있는 한  
이 땅은 영원히 우리 수령님 주신 땅  
장군님뜻으로 나날이 풍요해질  
사회주의강성대국 전야다

## 무재봉에서

리찬호

시를 쓰려고  
붓을 들고 왔다가  
붓을 조용히 거두노라  
써야 할 시는 이미  
여기에 다 새겨져있기에

살점이 타고 뼈가 타면서도  
영웅들이 지켜낸 구호나무들  
불속에서 구호나무를 그려안고  
그들이 쳐다본 저 푸른 하늘  
그들의 넋이 깃든 이 숲속  
우짚는 새소리  
설레이는 바람결...

한생토록 읊으며 노래하고싶었던  
그 모든것을  
활활 타오르는 불길속에서

최후의 웃음으로 새겨놓은 사람들

내 지금껏  
심장을 태우며  
사랑을 노래한다 했건만  
이들처럼 조국땅에  
참된 사랑의 시를 새겼더나

참된 시를 낳는  
그 리치를  
종이우에 쓰지 않은 시로  
준절히 깨우쳐주는 여기 무재봉!

배워주었노라 영웅들은  
후세에도 조국이 사랑할 그런 시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시인, 나의 붓대를 비다듬어주며...

# 조가비순가락

함영주

술바람 시원한 바다가의 이 저녁  
내 손에 든것은  
모래불에 밝히는 빈 조가비건만  
고패치는 생각은 왜 이리도 뜨거운가

해방의 기쁨안고  
화진포를 찾으신 어머니  
못 잊을 그 기슭에 남기신 말씀  
오늘도 전해주는 하얀 조가비여

—산에서 싸울 땐 죽을 끓여놓고도  
순가락이 없어서 들수 없었어요  
그때 이 조개껍질이라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가요

아 피로써 찾은 조국의것이어서  
그처럼 진귀하셨던가  
그 진귀함 비길데 없으시여  
그처럼 놓을줄 모르셨던가

필필 끓는 죽가마를 이고  
탄우속을 누비신 어머니  
순가락마저 그립던 그날을 잊지 못하시여  
백사장의 은모래  
한술 또 한술 떠보시던 조가비순가락이여

동해의 제일명승 찾으신 그날에도  
가슴속에 그 죽가마를 안고사신 어머니의 한생이  
어려와선가  
오늘도 식지 않은 그 죽가마앞에  
물놀이 배놀이해 해지는줄 모르는  
저 아이들과 함께 둘러앉은듯

아 어머니를 그리는 인민의 마음인양  
노을도 붉은 이 저녁  
내 손에 든것은 빈조가비 하나여도  
가슴한가득 받아안은것은  
선군조선의 영원한 길량식  
백두의 댕이여라

# 리수복영웅이여

리휘조

영원히 살아있는 댕이여  
세차게 뛰는 맥박이여  
그대는 열여덟살에 우리결을 떠났지만  
그대 남긴 시는 오늘도  
내 심장에서 살아 뛴다  
그 한자한자 가슴에 불덩이가 되어

《...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이지만  
나의 청춘을 바치는것처럼  
그렇게 고귀한 생명, 아름다운 희망  
위대한 행복이 또 어데 있으랴》

그때로부터 세월은 흘러  
그대 썼던 고지우에  
이제는 꽃들이 만발하고 풀매미 울어도  
그대 남긴 시에서는  
오늘도 포연이 날리고  
적탄알이 비발치나니

그러면 어려와라  
잠결에도 머리맡에 출렁이며 들려오던  
금천강 물소리  
난생처음 책가방메고 학교로 가던 언덕  
김일성장군님 찾아주신 이 모든 행복을 위해

적화구에도 서슴없이 뛰어들 한마음  
시를 쓰던 그대의 모습이

탄우속을 불길속을 누벼온  
심장의 노래여  
내 강행군길 먼길에 지칠 때면  
내 마음에 찾아와  
말없이 나를 떠밀어주었지

그대가 남긴 시는  
이 땅에 바친  
그대의 불같은 댕이 아니라  
그대의 높뛰는 맥박이 아니라  
그 댕 그 맥박으로  
오늘도 이 가슴 흔드는  
오, 리수복영웅이여

그대는 가지 않았다  
이렇게 시가 되어 살아있지 않느냐  
오늘도 피더운 체온으로  
이 땅의 수많은 병사들의 심장에  
시를 써주고있어라  
사람은 이 땅에 자기를 바친만큼  
그만큼 이 땅에 산다고

(유교작)

## 시의 매력은 어디에...

안원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붓대로 받들어 선군문학의 아름다운 화원을 가꾸어가는 우리 시문단에 출현한 특색있는 한편의 서정시가 독자들의 가슴마다에 끝날줄 모르는 감정정서적여운을 남겼다.

그 작품이 바로 주체95(2006)년 7월호 《조선문학》잡지에 발표된 서정시 《돌격대거리》(문용철작)이다.

이 한편의 시를 놓고 우리는 시적발견과 심오한 철학적, 생활적인 시형상의 견지에서 이전의 시들에서는 볼수 없었던 독특성과 재치, 깊이있는 탐구력을 말할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예술작품에서는 언제나 인간들을 진실하게 보여줄수 있는 전형적인 생활을 풍부하고 깊이있게 그려야 한다.》**

시 《돌격대거리》를 읽어보느라면 누구나 작품의 생활정서에 마음이 폭 젖어 흥그러운 기분에 잠기게 된다. 즉 독자들은 저도 모르게 시의 감정세계에 빠져들고마는것이다.

이런 때 그 시를 《성공한 시》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매력있는 시란 바로 이처럼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듯 독자들을 끌어당기는 견인력을 가진 시작품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하다면 시 《돌격대거리》는 어떻게 것처럼 강한 매력을 가지게 되였는가.

이 작품의 시적감화력은 우선 특색있는 시적발견에서 생겨났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시적발견은 시인의 개성적이며 비반복적인 탐구의 산물로서 시대정신이 구현된 심오한 생활진리—철학을 안고있어야 한다.

이 시에는 시인의 남다른 발견이 심어져있다. ...

백두산을 굽이돌며  
이사도 그 몇번  
빨찌산의 천막처럼  
순간이면 일떠서고  
순간이면 자릴 떠는 거리이건만  
곳곳마다 행복을 낳고 기쁨을 낳는  
창조의 거리!

삼수라 골도 깊은 이 산천에  
푸른 호수 출렁이고  
물새들 날아드는 그날이면  
아 우리의 땀이 어린 추억많은 이 거리는  
눈부신 발전소의 새 거리로 남으리라

여기에 이 시의 발견이 있고 생활진리의 깊이 있는것이다.

철학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은 시작품에 생활의 본질을 얼마나 깊이있게 반영했는가, 반영한 그 생활이 얼마나 큰 정서적공감을 독자들에게 줄수 있는것인가 하는데 따라 결정된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삶의 지붕으로 이고 혁명선렬들의 넋을 따라배우며 백두산지구에 청춘언제를 일떠세우는 청년건설자들에겐 결코 아늑한 보금자리가 부족지 않았다.

억척의 신념을 안고 성실한 땀으로 깨끗한 량심을 바쳐온 그들이기에 휴식일의 한때이면 《돌격대거리》에 척 나서서 평남이며 강원이며 채령, 강계 등의 온 나라를 《차표없이 여행하는》 기분으로 즐겁게 거니는것이다.

빨찌산식으로 순간이면 일떠서고 순간이면 자리를 떠는 거리, 온 나라의 축소판이라고 할수 있는 이 거리에 이제 푸른 물 출렁이고 물새들이 날아드는 날이 오면 눈부신 발전소의 새 거리가 일떠서게 되리라!

이러한 시적발견은 감칠맛 있는 생활적형상으로 구현되고있다.

시의 매력은 또한 익살이 다분히 섞인 가벼운 해학이 넘치는 생활적인 형상으로 담보되고있다.

시인은 진실성에 기초하면서도 가벼운 해학과 기지있는 숨씨로 돌격대거리를 이채롭게 노래하였다.

...

이웃은 함북이요  
길 건너는 평북이라  
온 나라 도, 시, 군이  
의종계 들어앉은 돌격대거리

...

그 어이 지나치랴  
옛적부터 미인의 고장이라 소문난  
《강계》의 대문가를  
얼굴곱고 일손고운 강계처녀 맘에 둔 그날부터  
언제나 《처가집》 동네에 들어서는 기분이라네  
...

생활적인 해학으로 시적정서는 흥그럽게 흘러간다.

이 시구절들을 읽으며 독자들은 누구나 느슨한 미소를 짓게 된다.

처가집을 찾는 사위, 그 동네에 들어서면서부터 애인의 사랑 어린 눈동자를 그려보며 장모의 수다스러우면서도 싫지 않은 잔근심과 지청구를 눈앞에 삼삼히 떠올리며 흥그러워지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것은 서정적주인공만이 아니라 시를 읊는 때 독자들이기도 하다.

시인은 단순한 웃음을 위한 해학을 추구한것이 아니라 그속에 깊은 뜻을 담아놓았다. 즉 청년돌격대원들의 생활을 형상함에 있어서 생활의 외피를 그린것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문제를 풀기 위하여 청춘의 땀과 열정을 바치는 청년영웅들의 생활을 정서적으로 파고들어 시대의 주도적인 사상감정을 랑만과 정서에 넘친 해학에 담아 노래한것이다.

돌격대거리의 주인들은 자기들이 일떠세운 언저에 제 이름조차 새기지 않았어도 새로 일떠설 발전소의 새 거리에 새 주인들이 살림을 펴고 발전기의 동음이 끝안을 울릴 때 그들은 거기서 청년건설자들의 위훈과 영웅담을 들으며 옛거리의 주인들을 생각할것이다.

다정하게 처마와 처마를 잇대고 화목하게 살며 일하는 돌격대거리의 주인들과 함께 마음을 함께한 시인의 깊은 생활체험이 없이는 그들의 생활과 감정을 이렇듯 감명깊게 펼쳐보일수 없을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우리 시문단에서 생활의 본질을 정서적으로 형상화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사상을 생경하게 드러내보이거나 진실성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시대정신과 부합되지 않는 지엽적인 생활단면에 매달려 시형상을 왜소화하는 폐단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있는 실정에서 이 시는 참으로 많은것을

시사해준다고 말할수 있다.

시인들은 언제나 생활속에 깊이 들어가 시대의 주도적인 사상감정이 깃든 본질적인것을 찾아낼수 있는 탐구능력을 가져야 하며 찾아낸 그것을 독자들이 《재미나서》 스스로 읽고 읊을수 있도록 구현할수 있는 형상능력을 지녀야 하는것이다.

이 두 측면에서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한다면 창작적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것이다.

물론 시 《돌격대거리》에 부족한 점이 전혀 없다는것은 아니다.

시에서는 운율이 다소 고르롭지 못한 아쉬운감이 느껴지며 또 시의 마감부분을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 맺어준듯 한 부족점도 찾아볼수 있다.

시인이 음악적률조를 시의 정서적내용에 걸맞게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보다 기울이고 마감결구부분을 보다 더 여운있게 맺어주기 위한 탐구에 관심을 두었더라면 독자들의 마음을 보다 정서적으로 후련하게 울려주었을것이다.

그러나 이 시는 달성한 성과가 크고 이채로운것으로 하여 이러한 부족점들이 가리워지고있다.

하여 이 시는 발표된 때로부터 일정한 시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사람들의 가슴속에 계속 공명되어 울리는 여운을 남기고있는것이다.

그렇다.

인상적인 시작품의 생명력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왕성해지는 법이다.

앞으로도 시인이 이미 쌓은 경험을 살려 더 매력있는 작품, 생명력이 강한 시작품을 더 많이 창작해주시기를 바란다.

## 평양역 시계종소리

홍현양

시간마다 때를 알리며  
우리는 시계종소리  
사람마다 걸음 멈추게 하는  
평양역 시계종소리  
그리움의 음향이 실렸구나  
가슴 뭉클 적시는 노래가 실렸구나

머리들어 바라보는 시간은  
사람마다 서로 다르련만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새벽에도 한낮에도 깊은 밤에도  
정시로 마음의 문을 여는 그리움의 세계

아, 평양역이여  
네 시간앞에 느린 걸음 뻔수 없고

한가로이 버들아래 앉아있을수 없구나  
아버이장군님 이 시각도  
어느 전선길 험한 령을 넘고계시기에

간절한 이 마음  
네가 다 알아 시간속에 간직했느냐  
떠나는 사람 역에 들어서서 사람  
맞고 보내는 그 시간속에 그리움이 왔구나

세월속에 분과 초가 흐른다하랴  
인민의 심장속에  
장군님 받드는 고동이 맥박쳐  
이 땅의 시간도 노래로 되었구나  
아, 평양역 시계종소리여!



## 선군시대의 요구와 작가의 탐구정신

### -지난해 하반기도 《조선문학》 잡지에 실린 단편소설들을 두고-

리창유

선군시대는 혁명의 수뇌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흥미심이 온 사회에 차넘치게 할 수령형상 소설들과 선군의 현실에서 제기되는 절실하고도 의의있는 문제들을 반영한 훌륭한 작품들을 보다 많이 써낼것을 요구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의 정신도덕적품모는 일찌기 불수 없었던 새로운 높이에서 발현되고있다.》**

지난해 하반기도에 《조선문학》 잡지에는 선군시대의 요구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높은 미학정서적요구에 맞는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단편소설들이 적지 않게 실려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있다.

수령형상단편소설 《반격》(박운 작, 9호), 《봉산탈출》(변월녀 작, 10호), 만경대혁명일가분들의 혁명투쟁의 일단을 반영한 단편소설 《백산의 종소리》(한정아 작, 7호), 선군시대 우리 근로자들의 벽찬 로력투쟁을 반영한 현실주제의 단편소설 《폭설이 내린 뒤》(리평 작, 10호), 《〈큰 자존심〉에 대한 이야기》(김해성 작, 8호), 《해당화는 바다가에 핀다》(량정수 작, 8호), 《94시간》(안명국 작, 11호), 《우리는 약속했다》(변창률 작, 7호), 고향의 자연생태환경을 적극 보호할데 대한 문제를 취급한 단편소설 《왜가리떼 날아들때》(김영희 작, 9호) 등 작품들은 제 나름의 특성과 론의점들을 안고있지만 사상예술적높이에서 비교적 우수한 계열에 속하는 작품들이다.

이 단편소설들을 통하여 느끼게 되는것은 우리 작가들이 선군시대의 요구를 민감하게 반영할수 있는 작은 형식의 소설창작에 보다 큰 관심을 돌릴 때 우리 소설문학의 화원을 빛나게 장식할수 있는 우수한 작품들을 많이 써낼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것이다. 이 소설들에는 류형과 도식을 없애고 참신한 생활소재와 특색있는 예술적기교로 형상을 무르익힌 작가의 깊은 탐구정신이 반영되어있으며 우리 시대 인간들의 아름다운 성격적특질을 밝고 청신하게 형상하려는 창작기교상의 귀중한 열매가 주렁져있다.

수령형상단편소설 《반격》은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놈들이 떠들던 정형고지 《시범전투》를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

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리혜안의 군사지략과 령활무쌍한 전략전술, 현명한 령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있다.

소설의 특성은 무엇보다먼저 조국해방전쟁시기 력사에 아로새겨진 정형고지전투승리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지략을 보여줄수 있는 생활소재를 취하여 수령님과 여러 측근인물들, 상대인물들과의 관계에서 불과 5시간 반이라는 짧은시간동안에 있는 이야기를 집약적으로 묘사한데 있다. 작품에 등장하고있는 측근인물들, 상대인물들은 적지 않다. 군사지휘관들인 장령 오창묵과 박천, 부대장 류동무, 부관 공정수, 영웅전사 김영진 그리고 겨울철에 개마고원과 백무고원일대까지 답사하여 6만정보이상의 농경지와 방목지를 찾아낸 김일성종합대학 성자민선생을 비롯한 기술일군들, 문화선전상 등 이야기의 시작부터 마감까지 이러저러한 인물들이 등장하여 매 장면과 장면이 화폭적으로 펼쳐져있다. 이러한 장면들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신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조국해방전쟁승리를 확고히 내다보시고 탁월한 군사지략으로 정형고지반격전투를 현명하게 령도하실텐아니라 전후나라의 경제를 일떠세울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며 인민군전사들과 인민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그들의 생활을 극진히 보살피시는 위인의 거룩한 모습을 다면적으로 보여주고있다. 따라서 작품의 중심사건은 정형고지반격전투조직으로 설정되어있지만 이야기는 한품으로만 뻗어가고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상을 여러 측면에서 보여줄수 있게끔 생활장면들이 화폭적으로 다양하게 펼쳐져있다. 바로 여기에 이 작품이 비록 극히 짧은 시간동안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펼쳐보이면서도 단편소설치고는 특이하다고 할만큼 수많은 등장인물들과의 관계속에서 그것도 일관한 사건줄거리가 아니라 이러저러한 장면의 화폭적인 전개와련쇄속에서 특색있는 구성을 조직한 작가의 예술적기교가 있다.

소설의 특성은 또한 묘사의 밀도가 조밀하고한 장면에서 다른 장면으로의 이야기의 변화과정이 빠르며 시공간상 이행이 다양한것이다. 이것은 그만큼 소설의 구성이 립체적으로 짜여있음을 잘 말하여준다.

소설에서는 무심히 스칠수 있는 어느 한 대목이라도 들어낸다면 뒤부분의 이야기가 타당성을 잃을만큼 작품의 총체적인 이야기가 밀접히 내적으로 연관되어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작가가 이미 발표한 수령형상단편소설 《타격》과 《공격》보다는 예술적 흥미가 보장되지 못하고있다.

이 세편의 단편소설들은 일관한 사건줄거리가 없이 화폭적으로 이야기를 펼치는 식의 독특한 구성의 기교에서는 공통적이고 내용에서도 하나의 계열을 이루는 작품들이지만 매 장면에 생동한 생활세부가 《인입》되어있는 《타격》과 《공격》에 비하면 《반격》은 생활세부의 탐구가 부족한 원인으로 하여 예술적수준에서 뒤떨어져있다고 본다.

만경대혁명일가분들을 형상한 단편소설 《백산의 종소리》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였던 김형직선생님께서 서거하신 후 선생님의 뜻을 이어 백산학교를 계속 운영하게 하신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어머님의 고귀한 혁명업적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작품에는 조선독립을 위해 투쟁의 길을 모색하던 열혈청년 김상백과 그의 애인인 리은영이 김형직선생님과 강반석어머님의 영향하에 새삶의 길,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는 과정을 진지하고도 진실한 생활의 흐름을 통하여 잘 펼쳐보이고있다.

은영이가 상백의 연락을 받고 무송의 소남문거리에 도착하였을 때 온 거리는 깊은 슬픔에 잠겨있었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였던 김형직선생님께서 서거하시였기때문이었다.

하지만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어머님께서는 맥에서가 아니라 (선생님을 소남문거리에서 10리 떨어진 양지촌에 모신지 보름이 지난 후였다. ) 백산학교에 나가 은영이가 거처할 방을 꾸리시며 기다리고계시였다.

강반석어머님께서는 일찌기 부모를 잃고 곡절 많은 인생사를 겪어온 은영에게 《성주 아버님이 저 시(《남산의 푸른 소나무》)에 쓴것처럼 뜻을 멀리에 두고 우리 대를 이어 성주대, 손자대를 이어 싸워서라도 나라를 찾구 우리 조선을 남부럽지 않게 세상에 우뚝 세워야》한다시며 백산학교에서 교편을 잡도록 일깨워주실뿐아니라 상복을 입고 3년을 어머님곁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상백이를 아드님과 함께 즉시 화성의숙으로 보내도록 하신다.

작품에는 가장 큰 효도는 나라를 찾는 애국이

라고 하시는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어머님의 고결한 인생관이 생활적으로 뜨겁게 잘 그려져있다.

다만 소설을 높은 수준의 요구에서 고찰해보면 강반석어머님의 형상이 작품의 중간부분에서부터 시작됨으로 하여 앞부분의 이야기가 좀 길어져 상백이와 은영이가 어떻게 삶의 참된 길, 투쟁의 길을 찾게 되었는가 하는데 형상의 뒤편이 지나치게 쏠린것이 부족점이라고 할수 있다.

현실주제의 단편소설 《폭설이 내린 뒤》는 선군시대 로동계급의 형상을 생활적으로 흥미있게, 특색이 있게 창조한 성과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소설의 특성은 우선 선군시대 로동계급의 결사관철의 정신, 전투적기백과 랑만에 넘친 모습을 수십년래의 무서운 강추위와 눈보라, 폭설로부터 눈사태에 파묻힌 도로와 설비들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진실하고도 아름답게 그려낸데 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무산광산련합기업소 운광사업소 기사장 최석이로부터 제1직장장조철호며 제7직장장 박대평, 문화회관 관장 리성옥 기타 이야기의 도중에 약간씩 언급되는 직관원이며 키가 큰탓에 《몽구선수》로 불리우는 제3직장장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물들은 제나름의 성격상 우단점은 있으나 불의에 닥쳐온 자연재해를 극복하는데서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일하는 아름다운 인간들이다.

갑자기 내린 폭설로 하여 길이 막혀 생산을 시작하자면 아무리 짜고들어야 3일은 실히 걸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최석 기사장, 그는 아침일찍 협의회를 열고 일의 선후차를 가려 직장별로 작업을 분담하고 술선 눈치기에 앞장선다.

워낙 성미가 급하고 건망증이 심하지만 정열가인 제1직장장 조철호는 10리 눈길을 헤치며 출근길에 오를 때 구상한 특대형눈가래로 맡겨진 눈치기를 제격 해치우며 이러한 창안품을 사업소전반 눈치기에 도입하도록 한다. 그런가 하면 문화회관 관장 리성옥은 자기스스로 해야 할 일을 자각적으로 말아나서 정치선동을 활발히 벌린다. 령하 18도에는 나팔누르개가 열어서 소리가 날수 없다는것을 령하 3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에도 알콜을 나팔속에 부어넣어 류량한 나팔소리가 울리게 한다. 늘쌍 입에서 술냄새가 풍긴다고 리성옥을 오해하던 최석은 이 지루한 연설가—《음악지상주의》자를 새롭게 인식한다.

또한 늘 태평스레 동작이 굵은 7직장장 박대평은 눈속에 파묻힌 《63호》연유차를 구원하여 아찔한 《할딱고개》를 넘기는 전투에 쓸 고임목을 미리 마련해가지고 와서 차가 내리쏘리기 시작하

자 그것을 바퀴밑에 고이고 자기 한몸을 그옆에 스스로 내댄다.

3일간이 아니라 단 몇시간동안에 폭설의 피해를 가지고 생산을 정상화한 이들, 이들의 심장은 얼마나 불보다 뜨거운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희생정신으로 차고넘치는가. 또 이것으로 하여 이들의 형상은 선군시대 로동계급의 전형으로 얼마나 뜨겁게 안겨오고있는가.

작품의 특성은 또한 구성의 독특한 면모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작품에서는 주인공과 관여하는 주요인물들, 레컨대 제1직장장 조철호며 제7직장장 박대평, 문화회관 관장 리성욱을 축으로 하여 주인공 최석의 시점을 통하여 기본이야기를 하나의 선으로 연결시키고있다. 그러면서도 조철호와 박대평, 리성욱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는 크게 벌리지 않고 최석 기사장과만 연계되어 폭설피해를 가시기 위한 하나의 주선과 연결되어있다.

이러한 구성형식은 몇해전에 발표된 단편소설 《설천봉풍경》(전인광 작)이나 멀리로는 《사나운 겨울》(리병수 작)의 구성과 유사하다. 이러한 구성형식은 단편소설창작에서 널리 일반화되고있는 것은 않으나 작은 용적에 여러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여러 장면에서 생활을 펼쳐 작품의 총체적인 주제사상을 해명할수 있는 유리성을 가지고있다.

단편소설 《폭설이 내린 뒤》가 매개 인물들의 주도적인 성격특질을 개성적으로 아름답게 돈 구어보일수 있게 형상한 중요한 요인으로서 매 인물들의 형상에서 독특하고 생동한 생활세부를 《인입》하여 잘 활용하고있는데 있다.

최석의 박식한 점을 보여주는 운전사청년의 질문에 대답하는 세부, 그가 사용하는 수첩세부, 조철호의 특대형농가래창안세부와 축구경기때 활약하는 세부, 리성욱의 술냄새세부며 지루한 예술강의세부, 박대평이 늦장을 부리며 담배를 피우는 생활세부 등은 참으로 작가가 진지한 현실체험에서 착상한 생동한 세부라고 할수 있다.

선군시대 우리 근로자들의 높은 사상정신세계를 반영한 단편소설들인 《〈큰 자존심〉에 대한 이야기》, 《해당화는 바다가에 핀다》, 《우리는 약속했다》, 《94시간》 등은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것보다 더 값높은 삶은 없다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고결한 인생관을 진실하게 반영하고있다. 그리고 이 작품들에는 류형과 도식, 탁상문학의 흔적을 찾아볼수 없으며 형상기교의 측면에서도 작가의 개성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단편소설 《〈큰 자존심〉에 대한 이야기》는 조선민족의 존엄을 지키는데 대한 문제와 함께 민족

적자존심에 대한 철학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풀어보인 비교적 우수한 작품이다. 작품에서는 3대에 걸치는 한 가정사의 생활경로를 경소마그네사 생산을 위한 최첨단기술을 받아들이는 한 기술자의 생활에 집중시켜 과거와 현재, 현재와 과거생활을 엮어가며 이야기를 펼치면서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술자들이 《큰 자존심》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하는 립장과 자세문제를 깊이있게 해명하고있다.

단편소설 《해당화는 바다가에 핀다》도 전 세대가 못한 간석지건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 세대들이 선진과학기술을 소유해야 한다는 문제를 진지하게 파고들고있다.

욕망 하나로는 자연과의 전투를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없다. 이것은 인재가 모든것을 결정하며 과학과기술을 소유해야 강성대국을 건설할수 있다는 시대의 요구에 대한 민감한 반영으로 된다. 물론 작품은 전반부의 이야기가 좀 지루하게 펼쳐진것으로 하여 속도감을 보장 못한 일련의 부족점은 있으나 의의있고 절실한 문제를 중심에 놓고 진지하게 해명해나간 우점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단편소설 《우리는 약속했다》는 밝은 양상속에서 선군시대 농업근로자들, 새 세대 청년들의 지향과 량만을 이채롭게 펼쳐보이려는 탐구정신으로 하여 작가의 형상적몰이 있는 작품으로 인정된다.

단편소설 《94시간》은 《로동신문》지면을 통하여 널리 알려진 어느 한 탄광 로동계급의 영웅적희생정신을 소설화한 작품이다. 이미 알려진 사실을 소설로 꾸미려면 배가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 법이다. 하지만 작가는 이러한 고충을 이겨내고 봉락사고가 일어나 바깥과 통하지 않는 갱속에서 무려 94시간이나 결사관철의 의지를 가다듬고 계획된 굴진작업을 해내고야만 우리 로동계급의 가슴속에서 끓고있는 혁명적근인정신을 잘 반영하고있다.

지난해 하반기도에 발표된 단편소설들가운데서 향토미가 짙게 풍기는 특색이 있는 작품으로서는 단편소설 《왜가리떼 날아들 때》이다.

작품에서는 자기 고향의 생태환경을 원상그대로 훌륭히 보존하기 위해 애쓰는 《왜가리령감》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시대 인간들이 지닌 참다운 향토애, 조국애, 애국주의정신을 보여주고있다. 전쟁으로 하여 무참히 파괴된 자연생태환경, 지어 조상대대로 내려오면서 동자동마을에서 노닐던 왜가리떼마저 사라진 가슴아픈 정경을 두고 다시금 왜가리떼가 날아와 깃을 펼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한생을 남모르게 애쓴 이름없는 한 로인의 숨

은 노력을 향토미가 짙게 이채로운 언어형상으로 잘 그려내고있다.

작품에서 제기한 기본문제는 생태환경보호를 잘할데 대한 의의있고 절박한 사회정치적문제이다. 이것은 오늘 우리 당이 요구하는 절실한 문제이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던 유훈관철의 초미의 문제이다. 때문에 이러한 의의있고 절실한 사회정치적문제를 관철하기 위해 자기 고향을 떠나지 않고 일생을 이 문제를 실현하기 위해 남모르게 애쓴 주인공—《왜가리령감》의 형상은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다만 작품에서 《왜가리떼 날아들 때》를 기다리며 애쓰는 주인공의 생활이 동리사람들에게까지 뜨겁게 인식되지 않고 관리위원장마저 저어하는 까다로운 사람으로 느껴지게 회화하여 형성된 것은 작가의 훌륭한 창작의도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점의 원인에 대하여 일정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원인은 한마디로 말하여 왜가리떼에 지나치게 이야기를 집착시키고 그것을 애타게 그리는 주인공의 생활을 피력스럽게 묘사한데 있으며 작가가 생태환경보호사업을 중시하던 나머지 주인공의 아들이 전쟁시기에 마지막결전장으로 나가면서 《... 내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 해도 아버지, 이 아들은 내 고향의 왜가리를 위하여, 송도원의 푸른 소나무 한그루를 위하여 마지막피 한방울까지 다 바쳐 싸웠다는것을 믿어주십시오.》라고 쓴 편지구절들은 형상의도와는 달리 작가의 주관이 생경하게 로출된데 있다. 또 《왜가리령감》이 마을청년들이 이전에 왜가리떼가 깃을 뒀던 소나무밑에서 노래련습을 한다고 나무라는 장면묘사 역시 진실치 못하다. 노래소리에 왜가리떼가 돌아오려다가 못 온다고 야단치는 이 장면은 어찌 보면 지나치게 주인공의 정신세계를 회화하여 그린것이라고 할수 있다. 제 고향을 뜨지 않고 한생을 고향의 생태환경보호를 위해 성실히 살아온 주인공의 성격을 회화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수 있게 보다 아름답고 진실하게 그렸더라면 이 소설에서 보여준 작가의 특색있는 생활탐구의 노력은 훨씬 훌륭한 결실을 가져왔을것이다.

지난해 하반기년도에 발표된 이상의 우수한 단편소설들을 살펴보면 현직작가들과 신인작가들, 녀성작가들의 진출이 눈에 띄이게 나타나고있다. 그대신 이전부터 이채로운 단편소설들을 적지 않게 내놓은 중견작가들은 거의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최근년간 우리 중견작가들속에서 장중편소설창작에만 몰두하던 나머지 단편소설창작을 출시하거나 도외시하는 경향에서 오는 부족점이라고 할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년도에는 단편소설창작에서 큰 성과가 있는 반면에 아직도 일련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정치사상적대가 잘 서있지 못하든가 형상이 저조한 현상들이 없어지지 않고있다.

이미 년간 주체적문제사상연구모임에서 지적되었지만 단편소설 《회답할 때가 되었다》(김철민 작, 7호)는작가의 창작적재능이 일정하게 엮어있는 작품이지만 우리가 강력한 군사적억제력을 가진 지금에 와서야 미제의 대조선강경압살정책에 대응하여 제 할소리를 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사상적대를 세움으로써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이 일심단결된 우리 나라의 정치사상적위력을 그릇되게 리해할수 있는 부족점을 발로시키고있다.

단편소설 《어느 한 정양소에서》(박춘학 작, 8호) 역시 우리 사회에서 적극 내세우고 돌보아야 할 영예군인의 생활을 왜소화한 작품으로서 그 형상적의미가 잘 안겨오지 않는 작품이다.

소설은 오해선으로 이야기를 시작부터 끝까지 끌고나갔다는 의미에서도 논의해보아야 할것이지만 그보다도 하필이면 온 나라 사람들에게 떠받들리며 살아야 할 《공화국영웅이며 영예군인》인 주인공의 형상을 우리 사회의 현실에 맞지 않게 왜소화하고 그릇되게 그렸다는데 큰 부족점이 있다고 할수 있다.

단편소설 《사랑의 향기》(김자경 작, 12호), 《고향의 흙》(리기창 작, 12호)은 제기한 사회적문제성 그자체는 선군시대에 다 의의있는것들이지만 형상이 저조한 작품들이다.

특히 《사랑의 향기》는 비진실한 장면과 억지스러운 이야기꾸밈새며 공감이 가지 않는 생활세부들로 하여 논의할 점들이 적지 않다. 이것은 작가의 탐구와 사색이 너무나 깊지 못하다는것을 웅변적으로 잘 말하여준다.

단편소설 《고향의 흙》은 생활소재를 형상으로 무르익혀 소설화하지 못함으로 하여 마치 한 일가의 지난날 고행담을 《소개》한듯 한 느낌을 주고있다.

선군시대는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할수 있는 주체의 사상론을 보검으로 틀어쥐고 우리 인민의 운명이고 미래인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 굳건히 지키는데 이바지할 우수한 문학작품을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더 많이 써낼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공화국창건 60돐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력사적전환의 해로 빛내이는데 적극 기여할 보다 훌륭한 단편소설들을 더 많이 창작해내야 할것이다.



## 심남

밖에서는 눈보라가 세차게 불어치고있었다. 이해의 마지막추위인지 몹시도 사나운 날씨였다.

그러나 그것이 다음날 방송원고를 검토하는데는 지장으로 되지 않았다.

《저… 책임기자동지!》

나는 그 소리에 방송원고에서 시선을 돌려 문가에로 옮겼다. 우리 주재기자실에 갓 배치되어 온 기자 리성일이 방으로 들어서고있었다.

《방금 연락이 왔는데 백상리유선방송선이 눈보라에 끊어졌답니다.》

《백상리방송선이?!…》

나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오후 1시를 가까이 하고있었다.

군방송을 내보낼 시간까지는 2시간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백상리에 가는 방송선이 끊어지다니…

참으로 일은 공교롭게 되었다.

오늘 내보낼 군방송은 지금 한창 앞그루작물로 봄보리씨뿌리기를 진행하고있는 백상협동농장에 대한 집중방송이었다.

그런데 부디 고르고플라 오늘 딱 끊어지다니…

《거 참, 야단이구만.》

《저… 어떻게 할가요?》

《방송선이 끊어졌으니… 무슨 다른 방도가 없을까?》

《다른방도요? … 이거 이러다간 백상리에서는 오늘 방송을 못 듣게 되지 않을까요?》

그가 걱정스런 어조로 눈을 둥그렇게 뜨며 하는 말이였다.

나는 한동안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갑자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의 길쭉한 얼굴에 어린 표정은 너무도 진지했다. 그저 한마디 걱정해보는 식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것이 너무도 명백했다.

《물론 백상리에서 못 듣는다고 하여 우리 군방송이 자기 사명을 못한다고 말할사람은 없소. 또 우리 군에 백상리만 한 리가 열세개씩이나 되는것만큼 백상리에 대한 방송이 꼭 백상리 한개 리만을 위한것이라고는 말할수 없소. 하지만 내 생각엔 아직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아있으니

어떻게 해서라도 꼭 제시간에 그들이 듣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 오늘 오후 3시엔 꼭 내보낸다고 약속했는데…》

나는 그의 심정이 이해되었다.

나는 그를 중학시절부터 알고있었다. 우리는 같은 중학교를 다녔는데 그는 나보다 한해 상급생이었다. 그런데 그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군사복무를 한 관계로 곧장 대학으로 갔던 나보다 사회생활에서는 후배가 되었다.

사람들은 흔히 군사복무를 하면 사람이 몰라보게 달라진다고들 하지만 그는 중학시절이나 군사복무를 하고 대학까지 졸업하고온 지금이나 달라진것이 별로 있는것 같지 않았다. 중학시절에도 조용하고 내성적인 학생이라는 평을 들었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말할 때마다 《저…》 하는 말을 앞세우곤 하는것도 여전하였다. 백상리에 대한 기사는 리성일이 품들여 쓴 것이였는데 가뜰이나 마음이 온순해서 누구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못하는 그가 얼마나 안타깝겠는가.

《그런데 날씨가 지금까지 온화하더니 참… 공교롭게도 플라플라 오늘부터… 혹시 농장에서든 눈보라때문에 오늘은 씨뿌리기를 하지 못할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날씨가 온화했던 관계로 보리종자가 어느 정도라도 싹이 텄기때문에 아마 미루지는 못할겁니다. 그리고 이 눈보라는 어쩌다 뜻밖에 몰아치는것이기때문에 내 생각엔 아마 래일부터라도 날씨상태가 보리종자싹트기온도에 적합하게 조성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소?! 그렇다면 오늘 무조건 방송을 내보내야 하겠구만. 그럼 내 군체신소에 알아보겠으니 성일동무도 무슨 방도가 없겠는지 좀 생각해보오.》

《알았습니다.》

성일은 군인들처럼 몸을 곧게 펴며 대답했다.

《참…》

나는 문득 그가 아침에 오늘 오후에 시간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던 말이 생각났다. 《오늘 오후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하지 않았소?》

그의 얼굴에 언뜻 당황한 빛이 어렸다. 그 표정은 인츰 사라지고 무슨 생각에 잠긴듯 창문쪽

만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러다가 문득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출입문을 열고 방을 나서는데였다.

별수가 없다는걸 깨달은 모양인가?...

그가 방에서 나가자 나는 송수화기를 들고 군체신소를 찾았다.

한참 이방저방 찾아서야 군체신소 소장을 만난 나는 그에게 사연을 설명했다. 알겠노라고 대답하는 소장에게 나는 오후 3시까지 무조건 살려야 한다고 안타깝게 말했다. 소장은 확답은 못하겠지만 좌우간 최대한 빨리 살려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나는 민겠으니 3시전엔 꼭 선로를 살려달라고 거듭거듭 당부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런 후에 다시 원고를 보기 시작했으나 웬일인지 글줄이 안겨들지 않았다. 확답을 못하던 군체신소 소장의 목소리가 창밖에서 불어대는 눈보라소리와 함께 귀전에 매달려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한 30분쯤 지났을 때였다. 어디나 갔겠는지 문이 열리며 리성일이 들어왔다. 그는 급히 나를 찾았다. 나를 부르는 그의 음성은 기쁨에 젖어있었다.

《책임기자동지, 됐습니다. 됐단 말입니다.》

《?!...》

무엇이 됐다는것인가?

그의 모습도 방금전의 《저...》 하고 머뭇거리던 것과 영 판판이었다.

나는 그의 손에 들려져있는 네모지고 간편한 휴대용록음기를 놀라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되다니?! 뭐가 됐단 말이지?》

《이걸 보십시오.》

그는 휴대용록음기를 조심스레 내 책상우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녹음기의 단추를 꼭 눌렀다.

《청취자여러분! 여기는 백상협동농장 농산 제2작업반 봄보리씨뿌리기전투장입니다. 지금 여기서...》

쟁쟁하면서 격조높은 방송원의 목소리가 사무실안에 서려있던 고요를 깨뜨리며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었다. 귀에 익을대로 익은 방송원의 음성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

드넓게 펼쳐진 들, 앞서거니 뒤서거니하면서 부지런히 일손을 다그치고있는 농장원들의 모습이 금시눈앞에 보이는듯 했다. 내가 마치도 씨뿌리기 전투현장에 있는듯 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창밖의 눈보라소리도 멀리로 사라진듯 했다.

성일은 휴대용록음기에 백상협동농장 현지 보도방송내용을 녹음한것이였다.

그가 녹음기를 끄자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거요?》

《백상리에 나가겠습니다.》

《백상리에?!...》

밖에서는 눈보라가 여전히 창문을 사납게 두들겨대고있었다.

《예, 농장방송차로 이 녹음을 내보내면 될게 아닙니까?》

그제야 나는 그의 생각을 알아차렸다. 아주 기발한 착상이였다.

《거 좋은 생각이요. 농장에선 반가와할거요. 오늘 듣는것보다는 좀 못하겠지만...》

《예?!》

그의 눈이 등그래지며 나를 쳐다보았다.

《오늘 듣는것보다 못하단지요? 전 오늘 그정도 정시 자기 방송시간에 듣게 하자는겁니다.》

《뭐요?!》

나는 아연해졌다. 얼핏 창문을 내다보았다. 눈발이 사선으로 내리꽂히며 창문을 두드려대고있었다. 아까보다 더 세차진것 같았다.

《그럼 동문 지금 당장 백상리에 나가겠다는거요?》

《예, 그렇습니다.》

성일은 두발까지 모으며 허리를 꼿꼿이 폈다. 나에게는 그것이 상관앞에 선 병사의 자세로 안겨왔다.

나는 그를 놀라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성일동무, 동무도 가봐서 알겠지만 예서 백상리까지 몇리요? 30리요, 30리... 높은 고개도 넘어야 하고... 게다가 저렇게 눈보라까지 몰아치는데... 물론 확답은 못했지만 군체신소 소장이 최대한 빨리 선로를 살리겠다고 했으니 한번 믿어보지요. 만약 제시간에 선로를 살리지 못하면 내가 백상리당에 래일이라도 다시 재방송을 조직하겠다고 전화를 걸겠소.》

《책임기자동지! 사실 백상리에서 취재를 마치고 떠나올 때 전 그들에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약속?!...》

《오늘 3시에 틀림없이 내보낸다고 말입니다.》

그는 빈약속을 한게 아니였다. 만약 눈보라만 아니였다면 그대로 실현되었을 약속이였다.

《그래서 내가 백상리에 전화를 해주겠다고 하지 않소. 사정을 알면 그들도 이해를 할거란 말이요.》

리성일은 가볍게 머리를 저었다.

《아닙니다. 어떻게 전화 한통으로 그들과 한 약속을 대신할수 있겠습니까?》

나는 말문이 막혀버렸다.

《...》

그는 나를 한동안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다.

《그럼 갔다오겠습니다.》

그는 재빠른 동작으로 돌아서나갔다. 내가 말릴사이도 없었다.

잠시후에 창문으로 내다보니 그는 벌써 자전거에 오르고있었다.

나는 그를 만류하려고 사무실에서 뛰쳐나갔다. 그러나 내가 현관으로 나갔을 때 그의 모습은 이미 눈보라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하는수없이 방으로 도로 들어와 의자에 앉아 원고를 펼쳐들었으나 그의 모습이 눈앞에 자꾸 얼른거려 도무지 정신을 집중할수가 없었다.

지금쯤 어디에 갔을가? 양평리다리목에… 그곳에선 한창 다리공사를 한하는데 자전거를 끌고 어떻게 건느겠는지… 도중에 자전거가 고장이라도 나면…

누군가 갑자기 출입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는 상념에서 깨어났다.

흥심없이 문을 열어주던 나는 그만 눈이 둥그래지었다.

문밖에 한 처녀가 서있었는데 차림새가 말이 아니었다.

젖은 머리칼, 두볼에 흘러내린 물방울들, 세차게 들먹이는 가슴…

처녀는 나를 보자 웃음을 지으며 가볍게 머리를 숙이었다. 다시 얼굴을 들었을 때 처녀의 눈길은 나한테로가 아니라 내 등뒤너머 정확히는 사무실안에 가있었다. 처녀의 눈길은 초조감에 잠겨있었다.

나는 처녀의 행동을 의아스레 지켜보며 물었다.

《누굴 만나러 왔소?》

《저 성일기자동지를…》

《우리 성일동무를… 그런데 어떻게 한다… 지금 없는데…》

《예?!…》

처녀의 두어깨가 대뜸 축 처지는듯 하더니 성급히 물었다.

《어디 갔습니까?》

《급한 일이 있어서 백상리에 갔소.》

《예, 백상리예요? 그런데 언제 떠났습니까?》

《글쎄… 잠전에 갔소.》

《가면서 무슨 말이 없었습니까?》

《없었는데… 그런데 동문 우리 성일동무하고 어떻게 되는 사이요?》

《제가 동생입니다.》

《아, 금천소학교 교원을 한다던… 언젠가 오빠가 말하던게 생각나오.》

그리고보니 얼굴이 길쭉한게 오빠와 모색이 비슷했다.

《야, 이걸 어쩌나?…》

처녀의 얼굴이 금시 울상이 되었다.

《왜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는 모양이구만.》

《사실 오늘 오후에 오빠가 우리 학생들과의 상봉모임에 출연하기로 약속이 되어있었는데… 기다리다못해 왔습니다.》

《뭐요?!…》

나는 갑자기 땀해졌다. 한순간이 지나서야 며칠전에 자기가 쓴 실화 《영웅의 낯은 오늘도 살아있다》를 가지고 학생들과의 상봉모임에 출연해달라는 청탁이 왔다고 혼자소리처럼 말하던 일이 생각났다. 군사복무의 나날 실지 체험한 사실을 가지고 쓴 글이어서인지 학생들뿐 아니라 군내 여러 단위들에서 좋은 반향이 제기되었던 기사였다.

런이여 오후에 시간을 좀 받았으면 하던 성일

의 말이 다시 떠오르고 그를 기다리고있을 학생들의 얼굴이 눈앞에 떠오르며 초조해지는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그와 동시에 그에 대한 노여움도 살아올랐다.

에익, 소심한 사람같으니… 내가 그렇게도 메마르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으로 보였던 말인가. … 그러나 그때 그의 심정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할만 하기도 했다.

그는 오후에 있게 될 학생들과의 상봉모임을 분명히 기억하고있었을것이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 그러나 그도 타산이 있었을것이다. 백상리까지는 왕복 60리길이니 자전거로 2시간은 실히 걸린다. 그러니 백상리에 갔다가 곧 돌아설 생각이었을것이다. 그래서 나한테도 말을 하지 않았을것이고… 아니, 이렇게 어물거릴새가 없다. … 어떻게든 빨리 대책을 세워야 했다. 아이들과 한 약속도 어떻게 하나 지켜야 하지 않는가. 그한테 기별을 하여 빨리 돌아서게 해야 하였다. 나는 전화기에 급히 손을 뻗었다.

이때 공교롭게도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다른 기관에서 온 전화라하면 좀 기다렸다가 다시하라고 해야지. …

이런 생각으로 송수화기를 들었는데 수화구에서 어딘가 귀에 익은 음성이 울렸다.

《아, 책임기자선생이시군요.》

《예, 그런데 뉘신지…》

《제 백상리 리당비서입니다.》

그제야 생각났다. 중기에 늘 서글서글한 웃음을 짓고다니는… 취재를 갔다가 몇번 만난적이 있었다.

그의 인상을 그러보며 빙글썩 웃었다.

《비서동무, 미처 알아보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원 별소리를… 그런데 책임기자선생, 글쎄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법이라니요?!…》

《리성일이라는 기자동무 말입니다. …》

그 어떤 예감이 머리를 쳤다.

《그럼 우리 기자동무가 벌써 그곳에 도착했단 말입니까?》

《아, 도착하다뿐이겠습니까. 록음테프를 넘겨주고 벌써 돌아갔습니다. 눈보라도 사나운데 하루밤 쉬고가라고 그만큼 말렸는데… 정말 너무합니다. 우리 농장원들이 날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돌아섰다니 일은 제대로 된셈입니다. 그럼 방송은 제시간에 내보냈겠군요?》

《방송이야 물론 제시간에 내보냈지요. 가만 좀 들어보십시오.》

수화구에서 의자를 뒤로 밀어놓는 소리가 났다. 이어 방송원의 쟁쟁한 음성이 울려왔다. 백상협동농장 농산2작업반의 봄보리씨뿌리기전투에 대한 현지보도였다. 나는 전화기의 확성기단추를 눌러놓고 바깥에서 안의 동정을 살펴보고 있는 처녀에게 들어오라고 하였다.



처녀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문턱을 넘어섰다.  
리당비서가 찾았다.  
《책임기자선생, 들립니까?》  
《예, 들립니다.》

《송수화기를 내 방 창문턱에 올려놓았습니다.  
방송차는 지금 관리위원회 마당에 있구요. 이제  
온 농장을 한바퀴 돌 예정입니다.》

우리 농장원들이 얼마나 좋아들 하는지 모르  
했습니다. 이러다간 우리 농장이 봄보리씨뿌리  
기를 제일 먼저 끝낼것 같습니다. 하하…》

나는 마음이 초조해졌다. 그러나 그의 흥겨워  
진 기분을 깨고싶지는 않았다. 아니, 나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다고 나는 생각했다. …

나는 방송이 끝나자 즉시 송수화기를 들고 성  
일이 급하게 돌아서지 않으면 안될 사정에 대하  
여 리당비서에게 말해주었다.

《사실 오늘 오후에 성일동무가 학생들과의 상봉  
모임에 출연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금천소학교  
선생인 성일동무의 누이동생이 제 방에 와있습니  
다. 아마 기다리다못해 온것 같습니다.》

갑자기 짹짹 웃는 웃음소리가 수화구를 통해  
울려왔다.

《하하… 참 일두… 그러니 그 기자선생이 우  
리 농장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눈보라속  
을 뚫고왔다가 아이들과 한 약속도 어기지 않으  
려고 눈보라도 마다하지 않고 돌아섰군요. 정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가만, 그 녀동생을 좀 바  
꿔주지 않겠습니까?》

《예, 바꿔드리겠습니다.》

처녀는 내가 넘겨주는 송수화기를 두손으로  
받아들었다.

《여보세요, 저…》

리당비서가 제격 그의 말을 받았다.

《아, 기자선생의 녀동생이요?》

《예, 제가 동생…》

《이거 정말 미안하오. 사실은 래일 읍에 비료  
실으러 들어가는 트랙토르편에 보내려고 했었는

데… 어디말을 들어야 말이지요.

눈보라속을 뚫고 자전거를 탄채로 부랴부랴  
돌아가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글썽 그런 일이  
있을줄은… 정말 동무오빠 우리에게 몇백톤의  
비료나 몇천자루의 농쟁기보다 더 큰것을 주었  
소. 동무의 오빠는 웅당 우리 농장의 귀빈으로  
환대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어찌겠소. 아이들  
과 한 약속도 어겨서는 안되는것만큼… 마음을  
놓고 기다려보오.》

《고맙습니다. … 비서동지!》

송수화기를 나에게 넘겨주는 처녀의 눈가에  
눈물방울이 가랑가랑 맺혔다.

내가 송수화기를 넘겨받자 《기자선생, 난 정  
말 당의 목소리를 전하는 기자선생들이 다르긴  
다르다는걸 다시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거 정말  
미안하기 그지없는데 나와 우리 농장원들이 보  
내는 인사를 꼭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리  
당비서의 목소리가 수화구를 통해 나의 가슴속  
에 뜨겁게 흘러들었다.

《고맙습니다. 내 꼭 전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히 계십시오.》

송수화기를 놓은 나는 눈길을 돌려 처녀를 바  
라보았다.

《전 가보겠습니다.》

《예, 이제 인차 도착할겁니다. 마음놓고… 기  
다려주십시오.》

나로서는 그에게 마음놓고 기다리라는 말을  
뿔뿔하게 하지 못하는 나자신이 못내 민망스럽  
게 생각되었다. 저도 모르게 얼굴이 달아올랐다.  
머리속여 인사를 하고 방을 나서는 처녀의 뒤모  
습을 이윽도록 바라보던 나는 천천히 창가로 다  
가갔다.

아,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가!

창밖에서는 아직도 눈보라가 기승을 부리고있  
었다. 하지만 나의 눈에 비껴든 창가에는 언제  
나 군대식으로 가슴을 곧게 펴며 대답하군 하던  
리성일의 미더운 모습이 우렷이 어려있었다.

## 가사

### 군복입은 아들자랑

장소현

내 아들 군복입고 초소로 떠날 때  
기쁨도 컸지만 걱정도 많았다고  
고이 자라 키만 컸지 아직은 철부지라  
총대병사 구실할가 근심도 많았다고

내 딸이 초소로 복무의 길 나설 때  
자랑도 컸지만 걱정도 많았다고

애지중지 키워선지아직은 응석받이  
총대병사 구실할가 근심도 많았다고

꿈같은 희소식 한낱한시 날아왔소  
내 아들 훈장됐소 내 딸이 군관됐소  
너무 좋아 너무 기뻐 동네방네 자랑하오  
선군령장술하에선 약한 병사 따로 없소

## 가사에서 민요풍을 살리기 위한 몇가지 언어 형상기교

고광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요를 발전시킨 새로운 민요풍의 노래를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민족문화유산에서 진보적이며 인민적인것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창작실천에 구현하는 과정에 민족적선물의 특성이 뚜렷하고 민족적정서가 풍부한 민요풍의 노래들이 많이 창작되였다. 민요풍의 노래는 작가, 작곡가가 따로 없이 오랜 역사적시기를 거쳐 인민대중속에 널리 불리워오면서 다듬어지고 완성된 노래인 민요의 우아하고 부드러운 정서와 간결하고 자연스러운 선물진행, 박자와 조식, 장단 등의 독특한 표현수단들을 시대적요구와 현대적미감에 맞게 계승발전시킨것으로서 음악의 민족성을 뚜렷이 표현하고있다.

이러한 민요풍의 노래를 많이 창작하는것은 음악예술전반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며 음악예술의 주체성, 민족성을 고수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더우기 현시기 기만적인 《세계화》의 간판밑에 감행되는 미제의 자본주의사상문화침략책동과 민족문화말살책동을 짓부시고 군인들과 근로자들에게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심어주어 조국과 민족의 자주적존엄을 한층 강화해나가도록 하는데서 민요풍의 노래는 위력한 사상정신적무기로 된다.

인민의 사랑을 받는 민요풍의 노래를 많이 창작하려면 고유한 민족적선물과 장단을 시대적요구와 미감에 맞게 살려쓸뿐아니라 가사에서 전통적인 언어표현수단과 수법들을 시대적특성에 맞게 살린 향토적이며 민족적인 색채가 짙은 독특하고 세련된 언어형상으로 민요고유의 특색을 잘 돋구는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가사에서 민요풍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언어형상이 어떤 방향에서 탐구되고 진행되어야 하는가를 여러 민요풍의 노래가사들에서의 몇가지 언어형상기교에 대한 분석을 놓고 보기로 하자.

민요풍의 노래가사의 언어형상기교에서 주목할 만한것은 무엇보다도 고유어휘들을 시대적미감에 맞게 다양하고 폭넓게 리용함으로써 민요가사로서의 특색을 살리고있는것이다. 최근 몇해여간에 창작된 민요풍의 노래가사들에서는 민족고유의 민속어휘들과 입말체어휘를 조화롭게 배합시켜 리용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민족적미감을 시대적요구에 맞게 잘 반영하고있다.

민속어휘는 예로부터 우리 인민이 즐겨온 민속놀이나 민족음식을 비롯하여 조상전래의 미풍양속과 전통적인 생활풍습을 반영하였거나 그러한 대상들을 나타내는 어휘부류로서 거기에는 민족적향취가 꼭 배여있다. 이러한 민속어휘를 구수하고 통속적인 입말체어휘와 조화롭게 결합시켜 리용하면 가사전반에 풍부한 민족적정서가 차넘치게 된다. 바로 이런데로부터 민요풍의 노래가사들에서는 다양한 민속어휘들을 입말체어휘와 입말체토, 입말체문장과 결합시킴으로써 민족적인 감정정서가 흘러넘치면서도 흥취나는 언어형상을 창조하였다.

○마주잡고 빙빙 돌며 공격기회 노리누나  
서로 발로 툭툭 치며 맥을 짚어보는구나  
이 사람 배지기를 힘껏 프라구  
여보게 안걸이로 뺏다치라구  
쟁매 칭칭 징복소리 어허허 어허허  
닐리리 하 좋다 씨름은 씨름은 좋아  
...

레문에서는 씨름과 관련된 민속어휘들인 《배지기》, 《안걸이》와 《빙빙 돌다》, 《툭툭 치다》, 《힘껏 프다》, 《뺏다치다》, 《이 사람》, 《여보게》 등의 입말체어휘들 그리고 입말체토 《누나》, 《구나》, 《라구》 등을 조화롭게 결합시킨 입말체문장들으로써 씨름장면을 생동하게 펼쳐 보일뿐아니라 가사전반에 풍부한 민족적정서가 차넘치게 하고있다. 여기에 조흥구《어허허》와 《닐리리》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민요가사다운 흥취를 한껏 돋우고있다. 《토장의 노래》, 《모란봉의 금소방울소리》 등의 노래들도 《메주》, 《토장》, 《대항소상 씨름경기》, 《열두발대상모춤》과 같은 민속어휘들을 여러가지 입말체어휘들과 결합시켜 리용함으로써 언어표현의 향토적색채와 민족적정서를 두드러지게 하고있다.

민요풍의 노래가사들에서의 독특한 언어형상기교는 비유법활용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비유법은 하나의 사물현상을 놓고도 보다 더 아름답고 뚜렷하게, 생활과 가깝게 표현하기 좋아하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미감을 반영한것으로서 전통적인 민족시가에서 형상성을 높이는 중요한 언어표현수법의 하나로널리 쓰여왔다. 비유법의 풍부한 표현력은 비유대상에 의해 담보되며 선택된 비유대상에는 해당 민족의 사상감정과 정서, 미감이 그대로 깃든다. 민요풍의 노래가사들에서는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민화나 전설의

내용을 반영했거나 향토적특색이 있고 문화적표식이 두드러진 대상, 현상들을 비유대상으로 선택리용함으로써 가사의 언어형상을 이채롭게 하고 있다.

○하늘나라 견우직녀 기쁨속에 만난 다리  
우리들도 이 땅우에 어서 빨리 세웁시다  
통일오작교 통일오작교 어기영차 힘을 합쳐  
어서 빨리 세웁시다

레문의 가사 《통일오작교》에서는 특이한 민속어휘나 입말체어휘, 조흥구 등 언어표현의 민족적정서와 흥취를 돋구는 표현수단들을 별로 찾아볼 수 없다. 단지 은하수에 의해 서로 갈라져 눈물만 흘리는 견우와 직녀를 위해 까치들이 놓아주었다는 민화속의 《오작교》를 비유대상으로 한 은유법을 1편뿐아니라 가사전반에서 실현시키고있다. 가요에서는 이렇게 사랑과 회합을 중히 여기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미감이 깃들고 문화적표식이 두드러진 비유대상을 리용한 비유 하나만을 가지고도 민족의 통일년원을 밝은 양상속에 민족적정서가 넘치게 노래하고있다. 가요 《장군님과 함께 라면》에서 《그 손길 잡고가면 하늘의 별도 따고》라고 표현한것도, 《조선치마저고리 좋을시구》에서 《쳐녀들이 입고나서면 하늘나라 선녀갈구요》라는 직유법을 리용한것도 우리 인민의 민족문화적표식이 집중적으로 반영된 비유대상을 선택리용함으로써 통속적이며 민족적색채가 짙은 언어형상을 창조하여 민요가사다운 품격을 일정한 높이에서 보장한것으로 된다.

조흥구의 다양한 리용 또한 가사의 민요풍을 살리는데 특색있게 이바지하는 언어형상기교의 하나이다. 조흥구는 예로부터 민족시가의 흥취를 돋우고 운율을 조성하는 보조적수단의 하나로서 지방별 특색에 따라 《아리랑(스리랑)》, 《닐리리》, 《얼씨구 좋다》등과 같이 력사문화적으로 다양한 변종을 이루면서 발전하고 리용되어왔다.

민요풍의 노래가사들에서 조흥구는 단순히 운

율을 조성해주는 음성학적단위로뿐아니라 풍만한 민족적정서를 살리고 일정한 상징적의미를 가지는 단위처럼 쓰이고있다.

무릉도원 꽃피가니 흥이로다 아리랑  
제힘으로 세워가니 멋이로다 아리랑  
장군님의 손길따라 주체강국 내려친다  
아리아리 아리랑 스리스리 스리랑  
강성부흥아리랑

...

예로부터 우리 인민은 소박한 생활감정을 《아리랑》곡조에 담아 노래하기를 즐겼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수난과 설움의 상징이던 《눈물의 아리랑》이 오늘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아래 《행복의 아리랑》으로 되었으며 《아리랑》노래에서 생겨난 조흥구 《아리랑》은 우리 민족을 특징짓는 상징적의미, 민족고유의 미감과 관련된 감정정서적의미를 가지고 쓰이고있다. 우의 레문에서 조흥구 《아리랑》은 단순히 8?7조(4?4?4?3)의 운율을 조성해줄뿐아니라 설움에 울던 우리 민족이 온 세상에 선군으로 자랑높은 위대한 《아리랑민족》으로 되었다는 상징적의미를 가지고 쓰이면서 언어표현의 민족성을 두드러지게 살리고있다. 조흥구를 리용한 다양한 운율조성과 풍부한 민족적정서의 발현은 오늘날 민요풍의 노래가사들에서 널리 리용되는 언어형상기교의 하나이다.

이밖에도 반복법(세번반복법)과 대구법을 비롯하여 조선민족시가에서 전통적인 표현수법들을 새로운 시대적특성에 맞게 탐구리용하는것은 가사에서 민요풍을 잘 살려 다양한 사상감정을 민족적정서가 흘러넘치게 노래하기 위한 예술형상적기초로 된다.

우리 작가들은 다양한 언어형상기교를 널리 탐구하고 창작실천에 적극 구현함으로써 민요풍의 노래와 생활적이며 정서적인 노래를 많이 지을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높은 창작성과로 받들어나가야 할것이다.

## 가사

# 나는 군복을 보며 삽니다

## 림철

조국에 피끓는 심장을 바친  
그날에 입었던 땀배인 군복  
우리 집 벽에다 걸어놓고서  
보람찬 병사생활 추억합니다

조국에 병사로 복무한 시절  
병사의 군공메달 빛나는 군복  
수호자의 자랑 안고 바라봅니다

이 군복과 말하며 나는삽니다

장군님 우리 집에 찾아오시여  
선군시대 풍경이라 하시던 군복  
우리 집의 제일 큰 가보입니다  
마음속의 거울로 보며 삽니다

아 군복은 영원한 나의 자랑입니다



김삼열

1

오늘도 제시간에 퇴근한 나는 서재에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비록 서로 떨어져있어도 언제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있는 나의 로동생활선배이며 서천화학공장 공무직장 제관반장이었던 최계수로 력영웅에게 쓰는 편지였다.

물론 편지의 내용은 그가 관심하는 나의 사업과 관련된것이였다. 내가 담당하고있는 L지구의 공업대학을 졸업한 젊은 기술자들이 첨단기술에 해당하는 발명을 하여 제네바에서 금, 은상들과 특허권을 받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는 소식들중의 하나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갑자기 나의 손에서 만년필이 빠져나갔다. 고개를 드니 직장에서 갓 퇴근한 안해가 서있었다.

《당신은 참... 누가 오셨나 보세요.》

《아니?!》

뜻밖에도 최계수아버지가 전실에서 어색하게 웃고있었다. 나는 그에게 마주 나가며 반겼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허허, 큰 간부네 집에 댁님 들어설수가 있어야지.》

아버지는 나를 마주보며 대답했다.

《정말 용케 시간을 내셨습니다. 집에서랑은 다 잘있습니까?》

나는 아버지가 넘겨주는 이상스러운 보자기를 전실구석에 놓으며 안부를 물었다.

《덕분에 별일없네.》

방에 들어선 그는 창문부터 열어제꼈다.

시원한 바람이 확 밀려들어왔다.

받아야 할 본인이 나타나는 바람에 쓰던 편지를 얼른 책상빠람에 넣은 나는 추연한 눈빛으로 거리를 바라보고있는 아버지의 곁에 다가섰다.

거리는 붉은 석양빛에 잠겨들고있었다.

《언제 올라오셨습니까?》

《음... 좀전에 도착했네. 오면서 보니 거리가 많이 달라졌더군. 올 때마다 새로와지는구만.》

나는 그를 새삼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이미 로동년한이 지났지만 아직도 현장에 자주 나가 젊은이들을 도와주기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고문반장》이라고 부른다.

부엌에서 칼도마소리가 도간도간 기분 좋게 들려왔다. 안해가 손님대접에 어지간히 마음쓰는 모양이였다. 하긴 우리 부부의 인연을 맺어준 사람이 바로 그였다.

《어서들 내려오세요.》

이윽고 안해가 가볍게 웃으며 우리들을 음식상 앞으로 불렀다. 밥상에서는 남비탕이 김을 피워올리고있었다. 아버지는 안해가 부어주는 맥주를 단숨에 마셨다. 함께 맥주잔을 비워버린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참, 그때가 그림군요. 반장동진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지요. 〈이 손에서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질 때보다 더 큰 재미는 없네.〉라고 말입니다.》

이 말에 아버지가 갑자기 방을 둘러보았다.

《가만, 내 보자기가 어디 있나?》

보자기를 찾는 그의 눈빛은 류달랐다. 내가 전실에서 보자기를 들고 들어오자 그는 성수난듯 풀어헤쳤다. 가스콘로였다.

《원 우리 집에 콘로가 없을라구요?》

《속단말구 잘 보게. 내가 만든걸세.》

나는 얼른 가스콘로를 받아들었다. 기가 찼다.

철관을 말아 구부린것이나 튼없이 맞물린 이음짚들은 공장제품인 우리 집 콘로와 별반 차이없었다. 동작시켜보니 파란 불꽃이 단번에 확 일어났다.

《어떤가?》

《반장동진 손재간은 정말 누구도 못 따를겁니다. 생필제품으로 내놓자는거지요?》

나는 감탄하며 콘로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그저 심심풀이삼아 만들어본거네.》

《심심풀이삼아 말입니까?》

나에게는 아버지의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아버지입에서 부지중 한숨소리가 새어나왔다.

《음, 진섭동무한테야 무엇을 숨기겠나. ... 우리 공장 K제품생산직장이 몇었네. K제품의 판로를 잃게 됐단 말일세.》

《K제품이요, 왜 말입니까?》

나는 긴장해서 물었다.

《외국에서 가격수정을 요구해왔네. 그 가격으로 는 원가도 뽑기 힘드네. 그래서 알아본즉 다른데

서 새 기술에 의한 제품연구에 성공했다는게 아니겠나. 원가는 우리 공장의 3분의 1정도밖에 안 든다더군.》

그는 마치 자기 잘못이기라도 한듯 내 눈길을 피했다.

이미 맥주맛을 잃어버린 나는 담배를 피워물었다.

담배연기속에 쉬임없이 뒹뒹거리던 거대한 반응로들의 교반기소리며 분쇄기의 회전소리가 귀전에 들리는듯 했고 크고작은 산처리탱크들과 그 물처럼 뻗어간 공업관들이 눈에 얼른거렸다. 또한 생산능력확장을 위해 건설한 5단가열로의 실체가 내 마음속을 무겁게 눌렀다. 줄지에 무용지물이 될수있는 귀중한 나라의 재산이었다.

아바이는 그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가슴이 아픈 모양인지 편속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우린 결국 저녁식사도 못하고말았다.

아바이가 슬며시 일어나 창가로 다가섰다. 얼마나 속이 타면 저러랴. ... 나는 그의 마음을 잘 알고있었다.

공장의 건설과 함께 시작된 그의 노동생활은 공장의 발전과 함께 이어져왔다. 공장의 수많은 생산설비들의 제작에는 높은 기능을 소유한 그의 성실한 노력이 숨배여있지 않은것이 없었다. 특히 7제품생산공정을 꾸릴 때 발휘된 그의 헌신적인 노력과 뛰어난 제관기술은 모든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냈었다. 그로하여 그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로력영웅칭호까지 수여받았던것이다.

창가에서 아바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섭동무, 어떻게 생각하나?

내각이나 성에서 7제품생산공정을 폐기하자고 할테지.》

폐기는 불가피하겠지만 피로와하는 그를 보며 나는 자신도 알수 없는 애매한 말을 하고말았다.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는 않을겁니다.》

《전혀 실리가 없는데두?》

나는 또 어정쩡한 대답을 했다.

《이제 곧 대책이 세워지겠지요.》

《대책은 우리가 새 기술을 개발하는건데...》

《그럼 시급히 개발계획을 세워야지요. 성하랑 끝끝한 기술진이...》

그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흔들었다.

《현재는 가망이 없네. 더구나 성하는 내 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애의 두뇌로는... 안되네.》

《?!》

아바이는 창가에서 몸을 돌려 내게 다가와 마주 앉았다.

《진섭동무, 한번 힘써주게. 자네에겐 필요한 인재를 찾아낼수 있는 직업과 능력이 있지 않나. 물론 구체적인 기술적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공장에 한번 내려와 보고 필요한 인재들을 보내주면 고맙겠네.》

어둠속에서 번쩍하는 그의 눈빛이 느껴졌다. 코마루가 시큰했다. 이것때문에 나를 믿고 걸음한것

이었다. 이렇게까지 믿고 찾아온 어제날의 반장을 보니 정말 내가 그 타개책을 찾을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희망과 함께 나의 첫 노동생활이 시작되였던 서천화학공장을 위해 무엇인가 꼭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온몸을 사로잡는듯 했다.

《반장동지, 잘 알겠습니다. 힘써보겠습니다.》

《고맙네, 내 그럴줄 알았다니까. ...》

그는 나의 두손을 꼭 잡고 힘차게 흔들었다.

방문이 열렸다. 잠든줄 알았던 안해가 저녁상을 다시 챙겨가지고 들어섰다. 안해도 옷방일이 무척 근심됐던 모양이었다.

《반장동지, 어서 드세요.》

《참, 우리가 저녁전이지.》

아바이는 혼연히 대꾸했다. 우리는 다시 밝아올 공장의 래일을 그려보며 저녁상에 마주앉았다.

내가 찾을수도 있다는 타개책은 다른것이 아니었다. 나의 직업은 내각에서 대학졸업생들의 배치를 담당하던 부서의 부원이었다. 그런 사정으로 나는 내가 담당하느 1지구 여러 대학들의 학부와 학과종류, 교원들과 졸업생들의 실력이나 전공과목지어 그들의 성격까지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있었던것이다. 그 졸업생들중에서 필요한 인재를 찾아내어 공장에 보내주는것이 그 타개책으로 될것이었다.

며칠후 나는 1지구대학졸업생들의 담화차로 서천에 내려가게 되었다. 이 기회에 나는 서천화학공장에 둘러볼 결심이었다.

## 2

이틀동안 1지구대학졸업생들과의 담화를 끝낸 나는 최아바이와의 약속대로 시간을 내어 서천화학공장으로 갔다.

공장정문에 도착하니 딱딱해보이던 접수원처녀가 내 증명서를 보고는 생긋 웃었다.

《동지가 오시면 지배인실로 안내하라고 했습니다.》

《고맙소, 혼자서도 갈수 있소.》

나는 가볍게 만류하고 공장구내에 들어섰다.

공장구내길에는 백양나무, 수삼나무, 감나무 등의 차례로 가로수들이 준비하게 늘어져있었다. 이름모를 갖가지 새들이 가로수가지들에서 지저귀고있었다. 어느때 같으면 더없이 상쾌했을 길이었다. 이 공장에서 일하던 그때 나는 설참이나 점심식사를 한 다음 이 그늘아래서 못새들의 지저귐소리를 들으며 로동의 희열을 느꼈고 래일에 대한희망으로 가슴을 들먹이곤 했었다.

그러나 것처럼 정답던 못새들의 그 지저귐소리도 지금에 와서는 별스레 쓸쓸한 감정으로 들려왔다.

내가 지배인실에 들어서니 긴 책상위에 도면을 펼쳐놓고 둘러앉아있던 여러 사람들의 눈길이 일시에 나에게 쏠렸다.

《아니, 이게 누군가… 〈고문반장〉 아바이가 온다온다 하더니 정말 왔구만.》

지배인이 댄먼저 자리에서 일어서며 반겼다. 그는 청춘시절 내가 이 공장에서 로동생활의 첫걸음을 뗄 때 함께 일하던 막역지우였다. 지배인과 해후를 하고난 나는 그의 소개로 얼마전에 새로 임명되어왔다는 공장당비서며 최계수아바이, ㄱ제품을 생산하는 직장을 책임진 직장장과 책임기사와 차례로 인사를 나누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절 모르시겠습니까?》

맨나중에 인사를 나눈 젊은 책임기사가 유난히 눈빛을 빗내이며 내게 하는 말이였다.

《누구더라?!…》

내가 의아해하자 최계수아바이가 귀뜸해주었다.

《거 있지 않나. 우리 성하랑 배치되던 해 함께 배치된 컴퓨터전문가 말일세.》

나는 그제야 내가 몇년전에 졸업담화를 하고 배치했던 컴퓨터전문가를 기억해냈다.

《아, 생각나오. 컴퓨터를 귀신처럼 다룬다던 동무로구만.》

체소하고 약해보이는 그가 몇년동안에 직장책임기사로까지 성장했다니 역시 잘못보지 않았었구나 하는 믿음에 가슴이 그들먹해졌다.

그들은 지금 모여앉아 ㄱ제품생산공정을 되살리기 위한 방도를 토론했고있던중이였다.

《진섭동무도 알고 왔겠지만 지금 우리 공장의 자랑이라고 할수 있는 ㄱ제품의 판로가 막혀버렸소. 우리가 지금까지 의거하고있던 화학적방법에 의한 생산체제로써는 도저히 되살릴 가망이 없소. 그동안 우리 당비서동무랑 저 책임기사동무랑 많은 노력을 기울여 방도를 찾아봤는데 결론은 미생물에 의한 ㄱ제품생산체제로 넘어가지 않고서는 안된다는거요.》

이렇게 허두를 땀던 지배인은 어지간히 흥분했던탓인지 잠시 말을 끊고 주먹으로 가슴을 두드렸다.

책임기사가 빠른 말씨로 지배인의 말을 이어나갔다.

《그래서 우리 지배인동지가 필요한 인재들을 공장에 데려오기 위해서 화학공업성을 비롯해서 여러 전문연구단위들에 알아보았는데 아직 이렇다할 소식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들을 받아가지고 새로 연구를 시작하다싶이해서는 언제 빛을 보겠는지 막연하고…》

《가만 내 좀 설명하지요.》

지배인이 한손으로 가슴을 문지르며 책임기사를 제지시켰다.

《그런데 우리 책임기사동무의 말을 들어보니 몇해전에 ㄴ공업대학을 졸업한 동무들중에 김철명이라는 졸업생이 있었는데 그가 대학때부터 미생물에 의한 ㄱ제품생산방법을 연구해왔는데 대단한 수재라는거요. 그 동무만 우리 공장에 데려

오면 미생물에 의한 ㄱ제품생산은 문제가 없다고 장담하는데… 글쎄 그 동무가 지금 어디에 가있는지 통 알수가 있어야지.》

김철명! 지배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눈앞이 뽕양게 흐려짐을 느꼈다.

한동안이 지나서야 나는 지배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건 내가 알아봐줄수 있습니다. 내 이제 평양에 올라가 졸업생들의 배치문건을 들춰보면 그가 가있는 곳을 알수 있을겁니다.》

《그렇소, 그럼 좀 수고를 해주오. 진섭동무도 우리 서천화학공장 출신이니 그렇게 무관심할수야 없을테지. 하하…》

지배인과 당비서, 최계수아바이 등 모든 사람들의 기대에 찬 시선이 나에게 향해졌다.

《그럼 오래간만에 공장에 왔던김에 ㄱ제품생산공정을 한번 돌아봐도 일없겠습니까?》

내가 좌중에 대고 이렇게 묻자 지배인이 제격 책임기사를 향해 말했다.

《책임기사동무가 좀 안내를 해주오.》

그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눈 나는 책임기사와 함께 ㄱ제품의 생산현장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조용한 현장에는 설비들을 점검하는사람들만 한둘 보일뿐이였다. 나는 원료직장으로부터 제품포장공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공정들을 다 차례로 돌아보았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세계시장에서 지위가 확고한 ㄱ제품을 생산하던 직장의 설비들은 폐기하기에는 너무도 아까운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쓰렸다.

더구나 나를 놀라게 한것은 최근년간 현대화가 전면적으로 추진되어 모든 공정이 손색없이 갖추어진것이였다.

얼마나 아까운 나라의 재산인가!

나는 가슴속에서 불시에 치미는 그 어떤 충격을 느끼며 그에게 웨치듯 말했다.

《책임기사동무, 우린 ㄱ제품의 생산을 절대 포기할수 없소.》

《웁습니다. 그래서 온 공장이 떨쳐나섰습니다.》

억양이 센 책임기사의 말에서는 신심이 느껴졌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있던 화학적방법에 의한 ㄱ제품의 생산기술은 최량화의 극한점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고문반장〉 아바이도 말했겠지만 우린 지금까지 하고있던 화학적방법이 아니라 미생물기술에 의거해야 합니다.》

책임기사는 나에게 그것을 확신시키려는듯 재빨리 설명하기 시작했다. 미생물은 유기물질을 가차없이 부식시키기도 하지만 전혀 새로운것도 만든다. 김치나 된장은 물론 술이나 맥주, 맛내기 지어는 고급약품과 금속까지도 얻을수 있다, 지금 ㄱ제품의 새로운 방법을 연구한 나라는 내륙국가이다, 그들은 필경 미생물에 의거했을것이다, 우리도 그 기술을 개발하면 그들을 얼마든지 앞설

수 있다. 공장의 설비들은 산과 알카리, 고열고압 조건에서도 안정하며 무균상태도 얼마든지 보장한다. 약간의 설비만 개조하면 그 나라가 공업화를 하기 전에 제품을 다시 내놓을수 있다. ...

듣고보니 원리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는데 정오를 알리는 고동소리가 웅글게 들려왔다.

《구내식당으로 가십시오.》

《미안하오. 약속한데가 있어서...》

약속한데란 최계수아바이네 집이었다. 아까 구내를 돌아보기 전에 그가 점심때 자기 집에 오라고 슬그머니 귀띔했었다.

책임기사와 헤어진 나는 곧장 정문을 나섰다.

### 3

최계수아바이네 집으로 향하는 나의 마음속 생각은 저도 모르게 깊어졌다.

아바이는 나의 로동생활의 첫 반장이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도에서 제일 큰 이 공장에 배치된 나의 마음은 등 떠있었다.

들끓는 생산현장, 그속에서의 위훈... 얼마나 벅찬것일까.

은 나라가 다 아는 영웅도 될수 있다. ...

이런 량만은 로동안전교양을 마치고 최계수가 반장으로 일하는 작업반에 배치되면서 마음속에 더욱 나래쳤다. 나는 최계수반장처럼 살리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로동생활의 첫자욱은 뜻대로 떼여지지 않았다. 경험도 없고 기능도 부족했던 나는 왕왕 웃음거리가 되곤 했다. 제일 무거운 합마도 손닿치 다루듯 하는 기능공들에게 뒤질세라 나도 합마를 높이 쳐들면 무거운 중량감에 팔이 후들거렸고 몸까지 비칠거리곤 했다.

그때마다 합마가 왕창같이 빗맞은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이럴 때면 함께 일하던 기능공들은 웃음보를 터쳤다. 말밥에도 자주 올랐다.

특히 반장의 잔소리가 자존심을 자극했다.

쩍하면 《이녀석, 일을 찬찬히 배워라.》 아니면 《키쨌이나 있는 녀석이 싱겁게 뛰여다니지만 말고 눈치있게 처신해.》 등등... 내가 뭐 미성년인가 아니면 좀 모자라게 보이는가. 그래 분을 삭이려고 한참이나 휴계실에 홀로 앉아있곤 했다.

그러던 어느날 나는 직장장으로부터 난로를 만들 파업을 받았다.

어느 건설장 청년돌격대에 보내줄거라고 했다. 본때를 보일 때가 온것 같았다. 아무렴 난로쯤 만들지 못하랴.

나는 여가시간을 리용하여 자투리철판 몇개를 주어모아 서툰 용접솜씨로 난로를 만들기 시작했다. 함께 배치되어 한날한시에 로동생활을 시작한 기증기운전공처녀가 나의 일손을 거들어주었다.

그 처녀는 내가 반장의 꾸중을 듣거나 작업반

의 웃음거리로 될 때마다 제 일처럼 안타까와하곤 했다.

최계수반장이며 작업반의 나이많은 기능공들이 이것저것 조언도 주고 용접도 해주겠다는 등으로 호의를 표시했지만 나의 귀에는 그것이 모두 나를 헛내기로 치부하려는것으로 여겨져 모두 거절해버렸다.

몇시간 종이 땀깨나 흘려서야 난로를 완성할수 있었다. 완성된 난로를 바라보는 나의 얼굴에는 기쁨의 웃음이 피어올랐다. 비록 보잘것없는 난로였지만 어쨌든 제힘으로 만들었다는 만족감이 나를 기쁘게 한것이였다. 나는 나의 뒤에 서서 제 일처럼 기뻐하는 기증기운전공처녀의 얼굴을 돌아보면서 저도 모르게 어깨를 으쓱거렸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불과 한주일도 못되어 실어보냈던 난로가 되돌아왔던것이였다.

난로를 도로 차에 싣고온 청년돌격대일군의 투덜거리는 소리가 나의 가슴을 비수처럼 파고들었다.

《무슨 일을 그렇게 하는지... 난로에 불을 지펴 열을 가하니 글썽 사흘도 못 가서 온통... 자, 이걸 좀 보십시오. 아 반장동지, 체관일에선 도적으로 손꼽힌다는 반장동지네 작업반에서 만든게 웬 흠습니까?》

균열이 간 용접부위를 손으로 가리키며 최계수반장을 몰아대는 바람에 나의 마음은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싶은 심정이였다.

《미안합니다. 내가 반장노릇을 쓰게 못해서... 하루이틀내로 제격 다시 손질해서 보내줄테니 격정말고 가보십시오. 이번엔 아주 억척으로 만들어 보낼테니... 우릴 한번만 더 믿어주십시오.》

최계수반장이 사정하달일이 그 일군을 설복하였다.

그날 저녁 작업반총화모임에서 나는 호된 비판을 받았다.

무슨 일을 그렇게 하는가, 무책임하기 그지없다느니, 로동계급의 자격이 없으며 작업반과 직장, 나아가서 온 공장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비판까지 받았다. 너무했다. 나는 내가 여기에 잘못 떨어진 씨앗이며 공장에서 나의 위훈의 꿈은 산산이 깨여졌다고 생각했다.

여기 아니라도 보람찬 일터는 얼마든지 있지 않는가. 공장사로청조직을 찾아간 나는 그때 한창 벌어지고있던 북부철길건설장으로의 탄원을 제기했다. 내 말을 신중해서 들어주던 공장사로청일군은 토의해보자고 하였다. 그런데 소식이 없어 알아보니 반장이 반대한다는것이였다. 코코에 내 앞을 막는것 같았다. 터벌터벌 맥없이 휴계실에 들어서니 마침이라는듯 반장이 기다리고있었다.

《자 싱겁둥이, 오늘은 나와 함께 일해보세.》

《뭘 하잔 말입니까?》

《따라오기나 해.》



현장 한쪽구석에 놓여있는 되돌아온 난로앞으로 나를 데리고간 반장은 《이제부터 나와 함께 이 난로를 수리해보자구. 사람이란 일을 배울 때 처음부터 바로 배워야 하는것은 물론이고 일단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먼 후날에도 책임질줄 아는 그런 기질이 있어야 해. 이를테면 자기가 한 일을 돌아볼줄 아는 그런 마음속 눈을 가져야 한다 그말이지.》라고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반장의 그 말은 웬일인지 아버지의 조언처럼 다정하게 가슴속에 스며들었다.

불쑥 마음속에 얹힌 응어리를 터쳐놓고싶은 생각이 들었다.

《북부철길건설장단원을 왜 막았습니까?》

《허허, 이 싱겁둥이 봐라. 의견있다는거지? 좋아. 그 일은 좀 있다 한번 말해보자구.》

이렇게 나의 질문을 밀막은 반장은 아무말없이 일손만을 놀렸다. 나도 그가 시키는대로 함마질도 하고 용접도 하며 부지런히 일했다.

잠간새 면모를 일신한 난로가 나의 시야에 비껴들었다.

저녁종화도임때였다. 나는 처음으로 칭찬을 받았다. 반장은 새로 만든 난로를 가리키며 《오늘 진섭동무가 일을 잘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반성하고착실히 일을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라고 했다.

나는 어리둥절해졌다. 반장의 과분한 칭찬도 칭찬이려니와 작업반성원들 모두가 힘껏 박수를 보내는 바람에 더욱 어리둥절해졌다. 어리둥절한 내 눈에 대견해하는 반원들의 모습이 비껴들었다.

반장의 어깨너머에서 나와 눈길이 마주친 기증기운전공처너도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만 얼굴이 달아올라 총화가 끝나기 바쁘게 얼른 문밖을 나섰다. 똥똥 뜨는듯 한 나의 발걸음은 어느새 공장정문을 벗어나 함속으로 향해졌다.

《진섭동무!》

《?》

돌아보니 기증기운전공처너가 자박자박 달려왔다.

《호— 그새 멀리도 왔네. 반장아저씨가 남으려요.》

그는 할딱숨을 쉬며 눈을 할기였다.

(아차, 반장이 만나자고 했었지.)

황급히 발길을 돌리는데 벌써 반장의 얼굴이 정문에 나타났다. 나를 띄여본 반장은 《오라구.》하고는 앞장서 걸었다. 나는 따라갔다. 우리는 어느 다층살림집 2층에 올라갔다.

어느 한 집 출입문앞에 몇어선 반장이 문을 두드리며 《여보, 작업반 막내가 왔소.》라고 소리쳤다.

나는 그때에야 비로소 내가 반장네 집에 왔음을 깨달았다. 또한 집에서는 내가 비록 말이지만 작업반의 큰 가정에서는 막내라는것이 새삼스러

운 의미로 가슴에 새겨짐을 느꼈다.

아주머니가 신발을 끌며 달려나왔다.

《어서 들어오라구. 아, 끝끝한 총각이구만. 당신이 칭찬할만 해요.》

아주머니는 대견해하며 나를 방안으로 이끌었다.

방에 들어가보니 소박한 살림이 우리 집과 별반 차이없어 제 집에 들어선 착각이 들 정도였다.

얼마 안있어 밥상이 들어왔다. 순두부국에 시뻘건 양념도 곁들인 푸짐한 상이었다.

나는 땀을 뻘뻘 흘리며 밥그릇을 잠간사이에 비웠다. 그땐 왜 내우도 없었던지...

함속으로 돌아가는 나를 반장은 멀리까지 바라주었다. 역앞에 이르렀을 때였다.

《여기 좀 앉았다 가라구.》

반장은 역사 가까이에 있는 버드나무아래 의자를 가리켰다. 나는 반장의 옆에 앉았다.

《진섭이, 위훈이 빛나는 생을 살겠다는건 옳아. 허나 그 어떤 일도 제대로 할줄 모르고 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질줄도 모르면서 위훈만 부르짖는다면... 그건 자기 량심을 속이는것이라고 나는 생각해. 북부철길건설장으로 가겠다는 문제도 같다고 보네. 명심하라구. 조국은 량심과 의리로 만들어야 한다는걸 말이네.》

그때 반장이 한 말이었다.

《알았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나는 그 일이 있는 후부터 최계수반장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으며 또 이따금 그에게 이끌려 집으로 가 인상깊은 순두부국을 먹곤 했다. 그 나날은 나에게 있어서 값높은 정신을 키우는 과정이었다. 그로부터 얼마후 나는 아버지의 추천으로 북부철길건설장으로 나가게 되었다. 건설장에서 나는 아버지가 하던 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였는가를 실지체험으로 깨닫게 되었다.

그후 건설장에서 돌아온 내가 공장사로청위원장으로 일하다가 인민경제대학으로 떠날 때까지도 아버지는 변함없이 나를 이끌어주고 도와주었다.

《사로청위원장과 헤어지자니 나두 섭섭해. 그렇다구 더 큰일을 할수 있는 사람을 끼구있거나 외면하면 나라앞에 죄되는 일이지.》

대학으로 떠날 때 아버지가 한 말이었다. ...

나는 급히 걸음을 다그쳤다.

## 4

읍거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있는 최계수아버이네 집에 도착하니 아버이는 보이지 않고 아주머니가 나를 맞이했다. 방안의 가구들은 이전보다 좀 달라졌지만 여전히 소박했다.

책상우에 룬곽만 그린 도면들이 몇장 눈에 띄

여 뒤적거리보는데 아주머니가 다반에 사과를 담아 들고 들어왔다.

《시원하게 들라구.》

《이진 성하가 그랬습니까?》

나는 도면을 가리키며 물었다.

《웰걸, 평감이 그랬다오. 가스콘로형타도면들이라던지...》

《반장동진 여전하시군요.》

《평감은 그 재미에 산다오. 한번 보겠소?》

아주머니는 갑갑해하던중에 말동무라도 생겨 반가운 모양인지 활기를 띠며 책장문을 열었다.

그속에서 사진첩을 꺼냈다. 놀랍게도 거기에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생산설비들과 제관품들을 찍은 사진이 들어있었다. 펍 낮익은 생산설비들과 제관품들의 모습이였다.

《평감재산이라오. 자식들에게 물려준다는거지.》

그제야 알만했다. 사진첩에 오른 한장한장의 사진들에는 공장의 건설로부터 해마다, 주기마다 진행되는 설비의 보수와 대보수들에서 그가 바친 노력 그리고 누구도 따르기 힘든 재간과 기능이 숨배여있었다.

《이만하면 유산이 될만 합니다.》

《웰걸, 여기 나머지 빈장들을 저런 사진들로 다 채우기 전에는 안 넘겨준다는거라우.》

이때 아버지가 공장에서 돌아오는 인기척이 나자 아주머니는 《참 내 정신 봐라.》하며 얼른 부엌으로 내려갔다. 방에 들어선 아버지는 내가 들고있는 사진첩을 보고 멧적어했다. 《로친이 별걸 다 꺼내놔군.》

《별거라니요. 한참이나 감상했습니다.》

《배운 재간이 그거니 이젠 습관이 됐네. 참, 생산공정을 돌아보니 어땠가?》

아버지는 바투 다가앉으며 물었다.

《예, 정말 현대화가 대단한 수준이더군요.》

그의 입가에 웃음이 빙곳 피여올랐다.

《책임기사가 주동이 되어 해제끼거라네.》

《그 새과랑게 젊은 사람이 말입니까?》

《보기도문 수젤세. 여럿이 애써도 못해내는 일도 글썄 그 혼자서 풀어내더라니까... 여보게 진섬이, 그런 사람을 보내줘 고맙네.》

책임기사를 칭찬하던 아버지는 갑자기 이야기에 나를 떠올렸다.

《무슨 말씀을... 나야 단지 그의 성적과 지망을 보고 배치했을뿐인데요.》

《그게 얼마나 큰 도움으로 되는지 아나?》 나는 이 찬사가 불안했다. 나는 아버지의 얼굴색을 살피며 물었다.

《반장동지, 대책은 미생물기술에 의거하는것이라지요.》

《책임기사가 컴퓨터모의시험에서 찾았다네. 여보게 진섬이 이 사람, 사실은 일전에 내가 집에 찾아갔던것은 성하와 함께 졸업한 철명이때문이었네. 그때 말할가 하다가 이제 공장에 와서 실지

로 본 다음에 말하자고 생각하고 그만두었었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다. 철명이란 성하와 함께 대학을 졸업한 청년과학자였다.

《철명이 말입니까? 그가 성공할수 있었다면야...》

《이보게, 난 그 연구사업이 어떤것인지 다는 모르네. 하지만 책임기사의 말을 들어보니 우리 공장조건이라면 그 사람도 빛을 내었으리라고 생각되네.》

《확신합니까?》

《그렇네!》

아버지는 철명을 모른다. 그런데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믿을가. 성하말을 듣고? 그런것 같진 않았다. 나는 철명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도수높은 안경을 낀 어리무던해보이던 그의 모습이 안겨왔다. ...5년전 내가 졸업생담화차로 성하네 대학에 내려갔을 때 그곳 졸업생들중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두명의 서천화학공장 지망자가 있었다. 그러나 한명밖에 필요없었다. 그 한명의 필요성이란 생산의 무균화와 오염도측정때문이었다. 한명은 최계수아버지의 아들 성하였고 다른 한명이 바로 철명이였다. 나는 성하를 그곳에 배치해야 할 충분한 타당성과 설득력을 가지고있었다.

서천은 성하의 고향도시인데다가 영웅아버지의 대를 이어 공장을 지켜갈 그의 결의도 좋았다.

성하를 만나본 뒤 나는 철명에도 만났다. 도수높은 두툼한 안경을 낀 그에게서 나는 퍼그나 사색적이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에게서도 나는 그가 서천화학공장에 가야 할 스쳐버릴수 없는 리유가 있음을 느낄수 있었다. 최우등생인데다가 미생물에 의한 7제품생산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남다른 꿈도 가지고있었다.

그러나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수많은 기술인재들을 요구하고있는 형편에서 초과배치는 할수 없었다.

나는 철명에게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철명동무, 털어놓고 말하지요. 지금 서천화학공장에서의 미생물전문의의 필요성이란 생산제품의 무균화와 오염도측정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사람 이상 필요없다는거요. 그리고 내가 잘 모르긴하겠지만 동무가 말하는 미생물에 의한 7제품생산방법이 화학적방법을 압도해내겠는가 하는거요. 아직은 누구도 해보지 못한 미개척의 기술이 아니요. 그래서 성하동무를 거기에 보내려고 하는데... 동무도 알테지만 그는 고향도 서천이고 늙은 부모도 거기에 있소. 본인의 결의도 좋고...》

갑자기 철명의 표정이 굳어졌다. 굳어진 그의 얼굴을 보기가 어지간히 딱했다. 하긴 자기의 지망에 인생의 리상이 있을진대 어찌 괴롭지 않으랴. 그래서 나는 철명에게 이렇게 말했다.

《철명동무, 동무의 요구가 정 그렇다면 내 한번 다시 토론해보겠소.》

《서천화학공장이 아니면 전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남긴 철명은 단호한 자세로 방문을 나섰다.

그런데 저녁녘에 내가 일을 보는 사무실로 웬 낮모를 처녀가 찾아왔다. 수집어하는 그의 모습은 아름다웠다. 백합처럼 희고 가름한 얼굴이며 정기를 뿜고있는 두눈에 지성이 그윽히 담겨져있는듯했다.

《선생님, 저는 대학도서관에 있습니다.》

《어떻게 왔소?》

처녀는 숙일사 했던 자세를 곧게 하며 입을 열었다.

《저, 철명동무를 본인의 지망대로 배치할수 없습니까? 그는... 수재입니다. 그런 동무는 응당...》

《가만, 동문 그 동무와 어떻게 되는 사이요?》

처녀의 귀밀이 붉게 댔다. 그러나 처녀는 침착했고 나를 납득시키려는 자세도 진지했다.

《선생님, 저는 그 동무를 잘 압니다. 그 동무를 꼭 필요한 부문에 보내야 한다고 봅니다.》

《음— 알겠소. 래일 철명동무를 기다리겠으니 꼭 나한테보내오.》

다음날 나는 그를 기다렸으나 철명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대학에 알아보니 새벽차로 떠났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이유를 알고싶어 대학도서관으로 찾아갔다.

나를 찾아왔던 그 사서원처녀는 몹시 당황해하며 몸둘바를 몰라했다.

《저, 저는 철명동무를 설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해보았다. 배치에 대한 의견만일까? 그러나 처녀의 실망감과 고민의 흔적을 보며 혹시 다른 원인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도 생겼다. 당장 눈물이 쏟아질것만 같은 그윽한 그의 두눈이 그렇게 말해주는것만 같았다.

《철명동문 동무의 진정도 받지 않은 모양이구만.》

내 어조에는 저도 모르게 처녀에 대한 동정과 철명에 대한 타매의 감정이 비꼰다. 반쯤 감겼던 처녀의 두눈에서 맑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선생님, 철명동무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

나는 마음속으로 감동이 됨을 어찌할수 없었다.

사랑이 결렬되고도 상대를 옹호한다, 이 얼마나 깨끗한것인가, 이런 처녀와 헤어지다니...

나의 안해도 내가 북부철길건설장에 탄원했을 때나 인민경제대학에 다닐 때에도 변함없는 처녀의 순정으로 나를 기다려주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후 나는 그(제관반시절의 기증기운전공처녀)를 그 어떤 주저도없이 안해로 맞지 않았는가. 나에게서는 진정한 사랑이 없는 철명이야 참인간으로 생각되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 과연 사회와 집단을 위해 자기를 다 바쳐갈수 있을까. 어디서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 먼저 참인간이 되라는 말도있다.

결국 철명은 내 기억속에서 점점 삭막해져갔다.

그랬던 그 철명이 문제가 다시 떠오르게 될줄이야 어떻게 알았으랴.

## 5

나는 아바이와 함께 저녁거리를 걸었다. 평양으로 가기 위해 역으로 가는 길이었다. 한낮의 더위가 자취를 감춘 길거리에는 은행나무가로수가 잎새를 흐느적거리며 설레이고있었다. 아바이는 내가 떠날 때마다 이렇게 바래주곤 했었다. 북부철길건설장, 인민경제대학... 그사이 읍거리는 많이도 변했다. 이제 서쪽에 얼마간 남은 단층들을 헐어버리고 새로 건설되고있는 저 다층주택지구만 완공되면 서천읍은 또다시 몰라보게 달라지게 된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던 나는 문득 이렇게 물었다.

《반장동지는 정말 철명일 믿습니까?》

《정말 믿는가구?!... 여보게, 우리 저기 좀 앉았다 갑세.》

아바이는 생각깊은 표정으로 언제인가 그와 내가 앉았던 역사가까지의 버드나무아래의자를 가리켰다. 체면저 버드나무아래 의자에 가앉은 아바이가 나에게 말했다.

《진섭동무, 나를 선택로 여긴다면 한가지 묻겠네. 솔직히 말해주길 바라는데 만약 성하가 내 아들이 아니었다면 철명이 배치가 그의 지망대로 됐을지 모르지 않겠나? 진섭인 나를 생각했지. 그래서 그것으로 그 어떤 신세잡음을 하려구 생각했던거구...》

캉! 커다란 함마가 나의 정수리를 면바로 내리쳤다. 제관반시절에 쓸모없는 철판들을 필요하게 두드려대던 그 함마였다. 바람이 일었다. 썩—하고 불어온 때아닌 세찬 바람은 버드나무로 덮쳐들었다. 나무가지들이 와스스 떨렸다. 머리를 들수 없어 고개를 숙이니 내가 앉은 의자가 눈에 안겨들었다. 낮이 익었다.

아바이네 집에서 순두부국을 대접받고 나올 때 처음으로 함께 앉았던 의자였다. 북부철길건설장과 인민경제대학으로 밀어주고 바래주며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나를 달래주고 힘을 주던 잊지 못할 버드나무와 의자였다. 오늘 아침 기차에서 내려 공장으로 가면서도 내가 왜 이 버드나무와 의자를 보지 못했을까? 생각할수록 이상했다. 그때를 잊지 않고 때없이 즐겁게 추억하던 이 버드나무와 의자가 어느사이에 내게서 떠나갔던 것이었다.

아바이는 격해서 계속했다.

《내가 대접을 받아야 할 리유란 뭔가? 이전에

일을 좀 했다고? 아닐세. 우린 수재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애국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켜야 하네. 오늘 시점에서 볼 때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데 더 절실히 필요한것은 내 손재간이 아니라 그들의 머리네.》

그의 목소리는 절절했다. 나는 그의 목소리에 조국과 혁명앞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쳤고 지금도 바쳐가고있는 이 나라의 수많은 애국자들과 인민들의 념원이 담겨져있다고 생각했다. ...

이튿날 평양으로 올라가 부서에 출근한 나는 국당비서를 만났다. 나는 서천화학공장에서 있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보고하고나서 그 모든 결과의 원인이 바로 내가 무책임하게 사업한데 있다고 심각한 자책반성을 하였다.

나의 얘기를 듣고난 당비서의 너부죽한 얼굴에 사람좋은 미소가 떠올랐다.

《진섭동무, 동무의 얘기를 듣고보니 나도 내 사업에서 빈틈이 없었는가를 돌이켜보게 되오. 우리 모든 일군들이 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책임질 줄 알고 먼 후날에 가서도 돌이켜볼줄아는 그런 마음속 눈을 가지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오. 중요한 교훈을 찾는 계기로 생각하고 이제라도 빨리 서천화학공장을 도울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소?》

나는 마음속 자책으로 숙여졌던 머리를 들었다.

《그래서 부서에 오자마자 곧 그 철명동무의 배치문건을 찾아보았는데 그 동무는 현재 자기 고향인 고천군 화학공장에 가있습니다. 제가 직접 거기에 가서 철명동무를 만나볼 생각입니다.》

당비서는 자기도 동감이라는듯 내결으로 다가왔으며 말했다.

《그게 좋겠소. 그럼 나도 동무를 돕는겸 화학공업성과 련계를 취해서 그 동무의 배치수속이 시급히 진행될수 있도록 준비사업을 하겠소. 그리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볼 때 미생물에 의한 7제품 생산기술을 전문한 동무가 그 철명동무 한사람뿐이 아닐테니 여러 전문연구기관들과 대학들을 료해해서 인재들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소.》

《고맙습니다.》

당비서의 방을 나서는 나는 그동안 흐려있던 마음이 어느 정도 밝아지는감을 느꼈다.

그다음날 나는 서천화학공장 지배인과 련계를 가진 후 고천군으로 떠났다.

## 6

렬차는 이따금 기적소리를 울리며 고속으로 달리고있었다. 차바퀴소리만이 간단없이 울려왔다. 긴 련행길에서의 단조로운 차바퀴소리는 승객들에게 있어서 자장가소리와 같다. 그러나 오늘 밤만은 잠들수 없는 나였다.

최계수아바이의 말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또렷

이 뇌리에 새겨지였기때문이었다.

나는 내가 담화를 하고 료해하고 배치장에 수표했던 졸업생들이 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둘 때마다 얼마나 공지에 차있었는가.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가 날아오를 때도 그랬고 나라의 수많은 연구소들과 공장들에서 최첨단제품들이 나올 때도 그랬다. 그리고 국제국내의 과학기술축전들에서 금, 은상들과 특허권을 소유한 과학자들속에 면식있는 졸업생들을 볼 때마다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최계수아바이에게 꼭꼭 전하군 했었다.

그러던 내가...

《내가 대접을 받아야 할 리유란 뭐가?》

내가 그에게 한 대접의 리유란 공장과 집단을 위해 자기를 성실하게 바친 내가 잘 아는 한 영웅과 그의 자식에 대한 의리였고 나를 가르치고 이끌어준 선배에 대한 보답이 아니었던가?...

그는 자기 한사람의 대접을 바라고 살지는 않았던것이다. 그런데 나는 조국과 인민앞에 충실하라고 내세워준 직능으로 《신세갚음》을 했으니... 이것이 그의 가슴을 얼마나 허벼놓았으면... 아바이는 자기의 그 깨끗한 량심의 채찍으로 오늘도 나를 사정없이 후려치고있었다.

곡선이 없는 레투우로 렬차는 이밤도 질풍같이 달리고있었다. ...

먼 동이 트고있었다. 렬차바퀴소리만 고르롭게 들리던 차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승객들이 잠에서 깨어난것이다. 나는 창밖을 살폈다.

렬차는 아슬한 산발사이를 달리고있었다.

《손님, 신색이 좋지 않구만. 어디 편치 않소?》

내앞에 마주앉은 밤색옷을 입은 나이지숙해보이는 사람이 묻는 말이였다. 어제 밤 평양에서 올랐다는 그 손님은 목적지가 나와 같은 고천군이여서 인차 친숙해진 사람이였다. 나는 그의 물음에 자신의 속을 비쳐보이는것만 같아 멧적어졌다.

《예, 잠이 오지 않아서...》

이렇게 시작된 대화에서 그는 내가 고천화학공장에서 일하고있는 철명이라는 사람을 만나려 간다는것을 알자 호기심을 감추지 않았다. 알고보니 그도 고천화학공장에서 일하고있는 사람이였다. 철명기사와도 아는 사이라고 덧붙여 소개했다.

《철명기사 말이우, 친척이시우?》

여러 승객들의 눈길이 일시 우리에게 향해졌다.

《아닙니다. 그저 일이 좀 있어서...》

그 사람은 대중할수 없는지 고개를 기웃했다.

《어쩐디? 철명기사는 지금 없겠는데...》

《아바이, 철명기사동진 언제 오십니까?》

우리쪽을 바라보던 승객들중에 한 젊은이가 물었다.

《오늘 저녁이나 래일 아침에는 올거네. 그래 젊은 친구 철명기사를 좀 아나?》

《알다뿐이겠습니까? 고천화학공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변시키는데서 큰 몫을 했다는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우러 가지 않습니까!》

밤색옷 입은 사람의 눈가에 만족한 웃음이 비쳤다.

《그가 우리 군 화학공장에 온지 불과 몇해 안되는데 견학까지 온다니...》

《공장당비서아바이가 적극 밀어줬답니다.》

옆에서 듣고있던 다른 사람이 아는데 했다.

그러자 밤색옷 입은 사람이 손을 내저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원, 그가 뭘했겠소. 제 고장에 인재가 없다면 야 어렵도없지.》

그바람에 한껏 호기심에 끌려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버렸다. 혀를 차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잠깐이었다. 젊은이가 안타까운지 혼자소리로 말했다.

《떠나올 때 우리 공장 지배인동지는 신신당부했습니다. 철명기사동지가 소환된다는 소문도 있는데 빨리 가서 잘 배워오라고 말입니다.》

《예, 이곳 도에서도 그렇고 여러곳에서 점찍고 있답니다.》

《우에서 쓰자는거군.》

누군가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하자 공장당비서 이야기를 했던승객이 어성을 높였다.

《그렇겐 안될겁니다. 당비서가 놔주겠소?》

이 말에 승객들의 파돌림을 받았던 밤색옷 입은 사람이 다시 끼여들었다.

《이보시오, 철명기사가 더 큰일을 할수 있다면 조령에서 내보야 하오. 그렇지들 았소?》

누구도 대꾸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들의 대화는 나를 무척 긴장시켰다. 철명을 설득시키는 일도 힘들것이지만 도에서까지 관심한다니 사태가 심각했다. ...

렬차는 드디어 고천역에서 멈춰섰다. 승객들이 활기를 띠며내리기 시작했다. 나도 천천히 그들의 뒤를 따라내렸다.

《아이참, 비서동지!》

승객들의 놀란 눈길은 차에서 내렸는지 오르려 고 달려오는지 모를 날씬한 처녀에게로 쏠렸다.

처녀는 밤색옷을 입은 사람앞에 다가섰다.

《지금 오는 길이다. 손님맛을 준비 다 땀냐?》

그러고보니 손님들을 안내하는 처녀인 모양이었다.

《예, 참관조직은 빈틈없이 해놓았습니다.》

《아니, 식사준비 말이다.》

《예, 경리과에서 참나무버섯에 시원한 맥주까지 합숙식당에 다 보내줬습니다.》

《그럼 땀다. 어서 손님들을 안내해라.》

《예.》

안내말은 처녀가 앞에서 달려갔다.

《비서동지, 몰라봐서 안됐습니다.》

기차에 함께 타고온 사람들중 누군가가 일행을 대표해서 말했다.

《원 별말을 다 하누만. 그런데 마음쓰지 마시오.》

호방한 그의 말소리에 견학은 사람들의 긴장했던 마음은 한결 누그러졌다. 그들은 존경어린 눈길로 앞서가는 당비서를 바라보았다.

역함을 나서니 하천을 막아 건설한 저수지너머로 아담하게 펼쳐진 공장이 안겨왔다.

나는 곧 소형발전소를 지나는 당비서의 뒤를 쫓았다. ... 내가 당비서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는 의아한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 어째서 참관하지 았소?》

《비서동지의 의견을 듣자고 왔습니다.》

나는 신분증을 그에게 보였다.

《평양에서 오셨구만. 여기 았으십시오.》

나는 당비서와 마주앉아 서천화학공장이 처한 사태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사실을 말하자니 여간 뼈근하지 았았다.

이야기는 끝났으나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신중한 문제군요. 어쨌든 본인이 없으니 그다음에 토론합시다. 우선 철명동무의 안해를 만나보십시오. 실험실에서 일합니다.》

당비서는 친절하게 창밖으로 마주보이는 건물을 가리켰다. 나는 깨끗하고 아담해보이는 실험실로 향했다. 내가 그 건물쪽에 거의 다가갈무렵 문이 열리며 위생복을 입은 한 녀인이 밖으로 나왔다. 그 녀인은 나를 향해 곧장 다가왔다. 당비서가 전화로 먼저 알린 모양이었다.

《안녕하세요?...》

《?!》

우리의 두눈길이 공중에서 부딪쳤다. 몇해전에 만났던 대학도서관의 그 사서처녀였다.

녀인도 낮이 익은지 고개를 가웃거리며 호기심을 감추지 았았다.

《5년전에 우린 대학에서 만났었지요.》

《아이 선생님, 그간 안녕하셨습니다까?》

녀인의 입에서 가벼운 탄성이 울렸다.

녀인은 얼른 실험실에서 의자들을 내왔다.

《방에 종군들이 있어서... 량해해주십시오.》

우리는 대추나무그늘에 았았다. 그 녀인과 마주 았고보니 우선 그들의 사랑에 호기심이 갔다.

《아주머니, 갈라졌던 견우와 직녀가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됐소?!》

녀인은 얼굴을 살짝 붉히며 웃었다. 그 웃음속에서 처녀때의 수줍은 모습보다 지난날을 진중하게 추억하는 사색이 느껴졌다.

《철명동무가 고향으로 떠난지 1년이 갓 지났을 때랍니다. 퇴근하려는데 뜻밖에도 당비서동지가 불쑥 저를 찾아오신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를 만난 비서동지는 한참이나 말씀해주셨어요. 철명동문 지금 어려운 고비를 이겨내고있다, 그의 곁에 동무가 꼭 있어야 한다고말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와서 직접 보았습니다. 와보니 여기서는 새로운 일들이 진행되고있었습니다. 저

는 아글라글 애쓰며 자신을 바쳐가고있는 그 동무를 보며 자신을 질책했습니다. … 진정한 사랑이란 조국에 바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의 말이 펍 의아하게 생각됐다.

《동무들의 곡절이야 철명동무때문이 아니었소?》

너인은 또 살짝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부끄러운일이지만 제가 그때 철명동무의 배치문제로 선생님을 찾아간 목적에는 저의 리기적인 생각도 깔려있었습니다. 수재라고 인정받는 그 동무는 마땅히 자기의 지망대로 배치돼야 한다는것과 함께 산간벽지에서 무엇을 바랄수 있겠는가고 말입니다. 털어놓고 말한다면 그를 따라 산골로 오기가 싫었던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이 생각이 철명동무를 격분하게 할줄은 차마 몰랐습니다.

《동문 무엇때문에 내 배치문제를 흥정했소?》

《예? 동무의 목적은 7제품의 생산종균을 발견하자는것이 아니였어요? 7제품을 값이 비싼 원료 자원에서가 아니라 풀이나 톱밥같은 식물부산물 자원에서 뽑아내겠다고말이에요.》

나는 그 동무를 설복해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럴수록 철명동문 피롭게 숨을 튼것이였습니다.

《난 일단 결정된 문제는 흥정해서는 안된다고 배웠소. 더구나 내 착상은 아직 리론에 불과한만큼… 난 고향에 가서도 꼭 종균을 찾아내교야말겠소.》

《그 산골에서요? 동문 일생을 거기서 살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말은 제 속마음을 비쳐보인것이였습니다. 철명동문 이상한 눈길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동무의 진심을 고백해줘 고맙소.》

그이가 이 말을 남기고 격해서 떠날 때 저는 막지 못했습니다. … 헤어진 후에야 나는 언제인가 현실체험으로 전국각지를 견학하고 돌아와 하던 그이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현실은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것 같았소. 과학자들은 과학을 위한 과학이 아니라 인민들이 실지로 덕을 볼수 있는 과학을 해야 한다고말ियो. 난 꼭 그렇게 살겠소.》

철명동문 그래서 서천화학공장에 갈 결심도 했던거랍니다. 그러니 저의 짧은 생각과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아니, 난 오늘 참 좋은 이야기를 들었소.》

《아이 참, 선생님두…》

수집어하는 너인의 얼굴은 타는듯 붉게 물들여졌다. 흥조가 어린 그 모습은 생활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뜨거운 열정으로 해서인지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자아냈다. 인간을 알자면 한생을 살아도 모자란다는 말이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인것 같았다.

《참 그런데 선생님, 어떻게 이 먼데까지 오셨습니까?》

아름다운 추억에서 현실로 돌아온 너인이 먼저 물어서야 나도 꿈속에서 깨어났다.

《사실은 서천화학공장에 철명동무가 꼭 필요해서 왔소. 그 7제품을 미생물기술로…》

《예?!》

너인은 숨을 혹 들이켰다. 커진 두눈과 함께 두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선생님, 그인 여기서도 7제품생산종균을 찾을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종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설비도 불비한데다가 그 종균이 일부 균들과 엇비슷해서 가려내기 힘들기때문입니다.》

《그건 걱정마오. 서천화학공장의 최신설비로는 얼마든지 찾아낼수 있을거요.》

나는 역시 수재의 두뇌는 쉬는 법이 없구나 하는 마음속 생각을 하며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너인의 눈가에 눈물방울이 맺혔다. …

잠시후 나는 당비서를 다시 찾아갔다.

내가 방에 들어서니 글을 쓰던 당비서가 고개를 들었다.

《그래 만나보았습니까?》

《예.》 이때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예, 철명동무요?! 뭐요?! 가만 좀 기다리오.》

당비서는 전화를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그리고 실험실에 대고 철명의 안해를 소리쳐 찾았다. 잠시후 철명의 안해가 달려왔다. 영문을 몰라하는 너인에게 당비서는 손으로 전화를 가리켰다.

《대학에 가있는 철명기사한테서 전화가 왔소!》

그러며 전화기의 확성기단추를 눌렀다. 철명의 목소리가 방을 가득 채우며 울렸다. 내 심장이 쿵쿵거리기 시작했다.

《비서동지, 7종균을 찾았습니다. 글쎄 이 한인 석동무가 끝내 해냈습니다. 정말입니다.》

옆에서 어떤 젊은이의 목소리도 들렸다.

《기사동지, 무슨 말을 합니까? 저… 비서동지, 사실 철명기사동지가 대학에 남겨놓은 논문이 없었더라면 찾아내지 못했을겁니다. 마지막실험때에는 옆에서 적극 방조해주었습니다.》

《?!》

너인의 눈동자는 환희로 빛나기 시작했다. 당비서의 말이 흥분으로 떨렸다.

《이 사람들아, 수고했네. … 수고했어. 그러니 이제 빛을 봤단말이지!》

《예,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일이 끝나면 지체말구 빨리 돌아오라구.》

《비서동지!》

전화기에서와 너인에게서 동시에 이 말이 울렸다. 철명이의 안해는 위생복자락으로 눈굽을 짖으며 달려나갔다. 나는 달려가는 너인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당비서앞으로 다가섰다.

《비서동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철명동

무가 돌아오면 서천화학공장이 기다린다고 말입니다.》

불시에 고개를 돌린 당비서의 서리오른 눈길에 내 얼굴에 날아와 박혔다.

《동무는 그럼 그냥 돌아가겠단 말이지?》

《그럼?!》

내 목소리는 입속으로 삼켜졌다. 격해진 말소리가 다시금 들려왔다.

《동문 철명 기사를 꼭 만나야 합니다. 동무는 한 인간의 운명에 대한 자기의 무책임성으로 해서 이 땅을 더 부강하게 하려는 그의 이상이 무시된 책임을...》

안타까움에 떨리는 당비서의 말이 또다시 울리는 전화종소리때문에 중단됐다.

《예... 제가 당비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제 방에 있습니다. 예... 전화를 바꾸겠습니다.》

당비서는 급히 나에게 송수화기를 넘겨주었다.

나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당비서를 쳐다보며 송수화기를 받아들였다.

《예... 아, 비서동지입니까? 제 진섭입니다. 예... 방금 대학에 가있는 철명동무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미생물에 의한 7제품생산종균을 실험실 단계에서 찾아냈답니다. 예... 저도 기쁩니다. 예... 그 동무가 끝내 해냈습니다. 예... 예... 이름이 뭐니까? 한인석... 가만 비서동지, 철명동무가 성공할수 있는게 바로 그 인석동무와 공동연구를 했기때문입니다. 예... 역시 물은 제값으로 흐른셈입니다. 하하... 예... 철명동무를 만나보고는 인차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수화기를 놓은 나는 당비서에게 우리 국 당비서가 7제품전문가 한사람을 찾아내었는데 그

가 바로 좁전에 철명기사한테서 전화왔을 때 함께 연구를 했다고 하던 그 한인석이라는 젊은 연구사라는것을 기쁨에 넘쳐 설명해주었다.

《그래요! 그러니 일은 제대로 된셈이군요. 하하...》

나는 당비서와 함께 오래간만에 큰소리로 웃어 보았다.

오늘은 철명이 돌아오는 날이다. 나는 새벽녘 물안개 피어나는 저수지를 돌아 고천역으로 갔다.

그동안 나는 철명을 기다리며 공장을 돌아보았다. 미생물의 덕을 톡톡히 보는 버섯종균장이며 맥주생산장, 사료를 끓이지 않는 돼지목장 등에서 나는 유능하고 실력있는 인재인 철명의 모습을 톡톡히 보았다.

어머니조국이 낳은 인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망각했던 자신의 지난날 행적이 뺨칠하게 돌이켜졌다. 나의 머리속에는 내가 철명에게 응당 사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것은 그 한 사람뿐만이 아닌, 그가 바쳐가고있으며 빛내려고 하는 위대한 우리 조국과 최계수아바이, 고천화학 공장당비서 그리고 평범하고 성실한 이 나라 사람들의 깨끗한 애국의 마음에 비는 사죄였다.

저 멀리 산굽이에 렬차가 나타났다. 갓 떠오르는 아침해살에 푸른빛을 눈부시게 반사하며 렬차가 봉— 하고 기적소리를 길게 울리면서 역을 향해 달려오고있었다. 철명의 안해와 당비서가 마중나온 사람들과 함께 역함을 빠져나가는것이 보였다.

아침해가 점점 더 높이 떠오르며 누리를 밝히고있었다.

## 유래

### 《목가적》이라는 말은...

《목가적》이라는 말은 안온하고 한가로운것을 나타내는 말로서 언어생활에서 《목가적인 정서를 자아내다》, 《목가적인 감정을 반영하고있다》라는 식으로 쓰이고있다.

《목가적》이란 말은 《목가》즉 《목동의 노래》라는 말에 어원을 두고있다.

목동들은 넓은 들판에 짐승무리들을 물고나가 풀판에 놓아 먹이면서 하루해를 보내다가 저녁녘에야 집으로 돌아온다.

짐승들이 풀을 뜯어먹는 벌판에는 인적도 없고 소음도 없다. 이따금씩 불어오는 바람에 풀대들이

하느적거리며 춤을 추고 풀벌레들의 울음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며 어느 골짜기에선가 흘러내리는 물소리가 가락맞게 들려온다.

목동들은 짐승들이 풀을 뜯어먹는 동안 아름다운 자연에 심취되어 자연풍경을 미화하는 노래를 부르며 한가로이 하루해를 보낸다.

안온하고 한가로운것을 《목가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유래되었다.

조정남

## 선군시대 녀인들

도명희

### 절을 드리고싶어

허리굽혀 깊은 절  
정히 드리면  
이 심정 다하리까  
선군시대여

선군이란 말에 제일 목메이는게  
아마도 우리 어머니들이리다  
선군시대가 제일 고마운이들도  
다름아닌 우리 어머니들이리다

자식들에게 평생 사랑을 쏟아도  
줄지않고 그냥 넘쳐나는게 우리 어머니들일진대  
남편에게 한생 정을 퍼주어도  
마르지 않고 그냥 출렁이는게 우리 안해들일진대  
일터에서 돌아온 늦은 저녁에도  
집안팎을 쓸고닦는 재미로 사는 우리 주부들일진대  
바로 그 생활을 지켜주었습니다

얼마나 엄혹한 시기였습니까  
삶이나 죽음이나

날마다 관가름이 따르던 그때  
우리 장군님 헤쳐가신  
힘겨웁고 험난한 그 길이 다  
우리들을 위한 헌신의 길이였습니다

애지중지 자식들 곧바르게 키워  
초소로 떠나보내는 마음  
남편들이 선 초소 가리지 않고  
천리만리라도 따라가  
땀배인 군복에 바치는 그 진정  
이 땅 어딜 가나 선경을 펼치고싶어  
마을을 꾸리고 새벽길 쓸어가는 그 정성이  
선군시대에 드리는 절이옵니다

치마끈 열백번 동여매면서  
선군을 위하여 끝까지 가리라  
우리 장군님을 위하여  
온 가정을 선군의 길에 몇몇이 세우리다  
그 한생이 우리의 절이옵니다

### 치마저고리

어찌나 이쁜지  
치마저고리입은 딸애의 모습에  
나도 훌쩍 반하겠구나  
화려한 꽃구름이 내려앉은듯  
방안이 다 환해지누나

이 어머니도 입자  
초록색 그 저고리에  
자주빛 꼬리치마를 다오  
오늘은 3.8절 우리들의 날인데  
온 세상이 보란듯이 화려하게 입자

그렇다  
이 나라 어머니들아 딸들아  
치마저고리를 펼쳐입자  
우리의 마을에 거리에  
자주색 파란색 꽃바다를 펼치자  
사랑과 정에 불타는 우리네 마음  
선군조선 여성들의 세계를 펼치자

포연에 치마자락 그슬리던 전화의 날에도  
옷설이 시련의 눈비에 젖던 때에도  
제 모습 잃지 않은  
이 나라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펼치자

장군님 입으신 야전복자락을  
마음속에 꼭 붙잡고  
고난속에서도 눈물을 모른 우리  
피로움속에서도 락심을 모른 우리  
역세계 생활을 꾸려나가며  
더더욱 강해지고 고상해진  
우리는 조선여성들

웃고름을 날리며 나아가자  
선군이 지켜준 여성들의 명절이다  
보아라  
치마저고리물결에  
온 거리가 환해졌구나  
선군이 피운 꽃무지개가 비졌구나



## 이 저녁엔 그만 울것만 같아요

그때처럼 한번 웃어보라구요  
그 웃음이 참으로 고왔다구요  
당신도 참 새삼스레...  
처녀적도 아닌 웃음이  
뭘 그리 고왔겠나요

말이 났으니  
그땐 정말 맘먹고 웃었어요  
직장에서 땀흘리고 돌아온 당신에게  
안해로서 힘을 드릴게 웃음밖에 더 있었나요

허리띠를 그 몇번 조여매면서  
남보다 몇급절 기대앞에서 일하느라  
당신 그때 참말 힘들었지요  
그런데 난 《고난의 행군》 그때  
죽 한공기 당신앞에 놓으려니  
송구하고 죄스런 맘 웃음으로 감췄는데  
그게 무슨 큰 힘이 되었다고 그러세요

누가 그랬던가요  
품 안드는 웃음이야 어이 못 웃으라고  
하지만 헐치는 앓았어요  
어려운 날 웃는다는것이  
그땐 정말로  
웃기 위해 품들여야 했어요

때론 애써 피로움을 참으며 웃었어요  
어느땐 애써 눈물을 감추며 웃었어요  
안해가 웃어야 집안이 밝아지고

고난의 길 가는데 힘이 되겠기에

남정네들도 웃기 힘든 웃음을  
시련을 이기면서 웃었지요  
믿는데가 없이는 못 웃을 웃음을  
그 어려운 날 웃으며 강해졌어요

가는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고  
북방의 구내길에 울리신  
장군님의 호탕하신 그 웃음소리에  
밝은 래일이 마음속에 안겨와  
감격의 눈물 흘치면서  
웃었어요 선군을 믿고  
웃었어요 장군님을 믿고

보세요  
고난을 이겨낸 그 웃음이  
오늘을 확신한 그 웃음이  
우리 집 창가에  
거리의 집집에  
행복의 러명으로 비끼게 아닌가요

당신은 날더러  
그때처럼 꼭게 웃어보라지만  
선군이 가져다준  
오늘의 행복이 가슴에 젖어  
그날에 감추었던 눈물이 솟구쳐  
웃으려다 그만  
이 저녁엔 그만 울것만 같아요

## 선군시대를 노래한다

노래를 부른다  
분단장 곱게 한 어머니들이  
3.8절 공연무대우에서  
마음을 합쳐  
격정을 터친다

불구를 타래치던 전화의 그날  
쌍태머리간호장이었던  
머리 흰 로병할머니도 있다  
전후복구건설의 재더미를 밟고 넘어  
천리마시대를 줄달음쳐온 반백의 어머니도  
돌격대시절 위훈 펼친  
그날의 단발머리 처녀건설자도 있다

살아온 년대는 서로 달라도

한시대  
선군시대를 살면서  
체험으로 간직한 신념을  
진정의 선물에 담았다

정녕 오늘의 선군시대처럼  
그렇게 준엄하면서도 벅찬 나날들이  
지나온 력사 어느 갈피에 있었던가  
《고난의 행군》에 이은 강행군  
준마를 타고 구보로  
총대로 조국을 지키며  
선군으로 사회주의를 사수하여  
이 나라 사람들은  
총폭란 《병사》가 되었다  
누구나 《전투원》이 되었다

작식대원이 되었다

이 땅 그 어느 집 문을 열고 들어가도 다 있다  
아들딸들의 입대증 벽에 걸고 사는 심정들이  
제대배낭과 군복을 옷장속에 간직한 마음들이  
초소에서 위훈 세운 소식 기다리는 애모뿐 정이

오, 선군시대  
나라를 지켜주고  
사회주의를 지켜주고  
우리 어머니들의 세계를 지켜준 시대  
위대한 장군님 걸으시는 전선길에  
걸음걸음 따르는 열렬한 마음

불타는 그 마음이 받드는 시대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강성대국 려명을 불러온 시대  
위대한 이 시대를 노래한다

합창을 한다  
년대와 년대를 넘어오며  
아이들을 키우는 평범한 어머니들이  
가정과 일터를 꽃피워가는 수수한 녀인들이  
배심도 든든히 머리 높이 들고  
걱정을 터친다  
장군님 높이 모신 고마운 선군시대를 노래한다

## 자료

# 베뜨라르까와 그의 창작

시인 프란체스코 베뜨라르까(1304—1374년)는 이탈리아문예부흥운동의 선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조반니 보카치오와 함께 이탈리아인문주의문학의 발생발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작가이다.

베뜨라르까는 이탈리아의 중부도시 아레조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공증인으로서 피렌체시 정부의 서기로 있다가 당파싸움에서 《백색》파가 《흑색》파에 패한 후인 1302년에 단떼와 함께 추방당한 사람이었다. 베뜨라르까는 8살때에 부모들을 따라당시 법왕청이 자리잡고있던 남부프랑스의 아비뇽으로 이주하였으며 이 시기부터 고대로 마문학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후 그는 아버지의 강요로 1316년부터 몽펠리에대학과 볼로냐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하였다. 그러나 문학에 뜻을 두고있던 베뜨라르까는 부모가 사망한 1326년에 법률공부를 그만두고 아비뇽으로 돌아와 승직에 종사하면서 적극적인 창작활동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베뜨라르까의 작품들은 크게 라틴어작품들과 이탈리아어로 된 작품들로 나누어볼수 있다.

그는 라틴어를 이탈리아의 진정한 표준어로 보고 라틴어에 의한 창작을 주장하면서 많은 라틴어작품들을 창작하였다. 그 대표적인것이 미완성 서사시 《아프리카》(1338—1342년), 베르길리우스를 모방한 12편의 목가, 운문으로 된 《서한집》, 고대로마시기 명인들의 사적을 서술한 《위인전》 등이다. 특히 고대로마의 역사에서 주제를 취한 《아프리카》는 그 애국주의적성격으로 하여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며 시인은 로마원로원으로부터 고대로마식으로 월계관을 수여받았다.

베뜨라르까는 많은 라틴어작품을 창작하였지만 그의 이름을 후세에까지 유명하게 해준것은 이탈리아어로 된 서정시집 《간조니에레》이다.

모두 366편의 시작품들이 들어있는 《간조니에레》에는 중세문학과 다른 문예부흥기 인문주의문학의 새로운 특징들이 비교적 잘 반영되어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문주의작가들은 중세의 그리스도교문학과는 달리 《래세》가 아니라 지상의 현실생활에 관심을 돌렸으며 그것을 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하는데로 나갔다고 지적하시였다.

《간조니에레》에 들어있는 시작품들이 가지는 중요한 의의는 라우라라는 한 녀성의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인물형상을 창조하고 그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노래한것이다.

베뜨라르까이전시기의 문학에서 녀성의 형상은 언제나 추상적이며 신비주의적이며 초자연적인 색채속에 그 어떤 상징적인 존재로 나타났다. 이탈리아뿐아니라 중세유럽에서 널리 창작된 기사서정시들에서의 이상적인 녀성들 특히 단떼의 《신곡》에서 신적인 상징으로 그려진 베아트리체의 형상이 그 실례로 된다.

《간조니에레》에 들어있는 시작품들은 명확하면서 또 아름다운 언어표현과 문체, 세련된 시적운율과 기교 등 우수한 예술적특성들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성과들로 하여 베뜨라르까는 《유럽서정시의 아버지》라고 불리웠다.

베뜨라르까의 창작은 작가의 세계관적모순으로부터 아직 봉건적이며 그리스도교적인 문학의 잔재를 완전히 가시지 못하였으며 형식면에 치우치고 라틴어만을 중시하는 등 일련의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문예부흥기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는 현실적인간의 형상을 창조한것으로 하여 그후 이탈리아인문주의 문학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였다.

위목



김혜영

1

도소재지를 떠난 열차가 시내를 벗어나고있었다.

달칫달칫... 가락맞게 울리는 차륜소리, 요람처럼 몸을 흔들어주는 고르로운 진동... 서서히 흘러가는 교외의 산과 강, 익은 이삭들이 고개를 숙인 드넓은 전야...

좌석들마다에서는 어느덧 화기에애한 담소들이 시작되었다. 서로 통성하고 음식을 권하며 즐거운 웃음들을 나누기도 한다.

유독 창문쪽끝에 앉은 한 처녀만이 그린듯 한 자세를 허물지 않고있다.

군살이 없는 매출한 얼굴에 단정히 빗어넘긴 짧은 조발머리며 호리호리한 몸에 꼭 맞게 지어 입은 아무 치레없는 미색양복차림...

어느모로 보나 한창나이 처녀들의 범속한 아름다움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그 어떤 지성적인 매력과 함께 자존심이 강한 처녀들에게서 볼수 있는 은근한 도고함이 느껴진다.

까딱 움직이지 않고 창밖의 한점만을 직시하는 처녀의 모습은 어찌보면 숨결이 없는 조각상과도 같았다. 어떤 사색의 심연속에 넋을 맡긴것인가, 아니면 깊은 명상의 세계에 심혼을 잠근것일까?

그는 이곳에 있는 농업과학원 분원 버연구실 연구사 림선애였다.

지금 그의 넋을 사로잡고있는것은 심오한 사색도 아름다운 명상도 아니였다.

실로 뜻밖의 충격이 그로 하여금 예견치 않았던 이 출장길에 오르게 했다.

...며칠전 그날은 림선애의 30평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였다.

지난 7년간 온갖 심혈을 깡그리 바쳐 진행해온 육종시험이 드디어 성공한것이다.

적은 비료조건에서 알곡수출을 높일수 있는 새 품종의 논벼종자 《스—5호》가 생래지역검정과 국가품종비교시험을 거쳐 정식 국가품종으로 등록

되었다.

《스—5호》는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제재》로 하여 조성된 난관을 주동적으로 타개하고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보다 원만히 해결할수 있게 하는 시기적절한 품종으로서 농업과학계는 물론 생산현지들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스승들과 동무들, 친척들로부터 축하의 편지들이 날아왔고 경의와 선망에 찬 못시선들이 꽃다발과 함께 날아들었다. 그의 앞에는 국가수훈과 함께 학위증서와 오래동안 미루어온 결혼이 기다리고있었다.

어머니는 흥에 겨워 결혼식준비를 서둘렀다. 딸이 성공하기전엔 시집을 갈수 없는 몸이어서 애타게 이날을 기다려온 어머니였던것이다.

《참, 영수 그 사람 말이 꼭 맞았어. 네가 성공을 하니 이렇게 신랑감들이 줄을 서는걸 괜히 걱정했겠지?》

인민반회의에 갔던 어머니가 사진 두장을 들고 흠족해서 들어오며 하는 말이였다.

《이 사람은 제대군인출신에 의대 최우등졸업생으로 도병원에 금시 배치됐는데 발전이 빠를거라고 하더구나. 인물도 미끈하지... 어찌냐?》

그것은 물음이라기보다 확실한 바람이고 기대였다.

사진을 건승 보고난 선애는 머리를 흔들었다.

《그럼 이 사람은? 풍채좋은데다 전망성있는 화가란다.》 선애는 이번에도 마지못해 얼핏 보고는 《어쩐지... 마음이 끌리지 않아요.》 하고 눈길을 돌려버렸다.

어머니는 락심천만해하더니 선애의 손을 꼭 잡고 은근한 어조로 물었다.

《혹시 너... 영수 그 사람을 기다리는게 아니냐?》

선애는 대답을 못하고 입술을 꼭 깨물었다. 가슴이 활랑거리기 시작했다.

그렇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간직된 한 청년을 기다리고있었다.

《어디 솔직히 말해보렴. 너 그 사람과 무슨 약

속이라도 했겠니?》

선애는 당황하여 얼굴을 붉히었다. 약속한 일은 없었다. 하지만 기다려졌다.

(성공의 날 축하해주러 오겠다고 한 그 말은 약속이 아니란 말인가?)

선애는 이런 생각으로 자신의 심정을 변호해보았다.

김영수는 선애가 시련의 극한점을 이겨내고 오늘로 주말을 넘겨줄 수 있게 해준 은인이었다. 그는 어머니만 못지 않게 선애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왔고 진심으로 기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만일 기다리는 이 감정을 사랑이라 이름할 수 있다면 선애는 사랑하는 그 사람과의 결합을 절대로 단념하지 않을 것이다.

《난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찾아드는 그런 사람은 싫어요. 진실한 사랑을 찾고 싶어요.》

그는 어머니가 대상자를 소개할 때마다 이런 말로 일축해버리곤 하였다.

그리고 열심히 기다렸다.

1년 전에 농업대학 경영학부를 졸업한 김영수는 도농촌경리위원회에 배치되어 송천군담당 부원으로 현지에 나가있다. 성공이 확정되자 제일 먼저 소식을 편지로 알렸으니 그에 대한 축하의 회답이 꼭 올 것이었다.

그러나 하루, 이틀이 지나도록 기다리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선애는 가슴이 타서 솟덩어리가 되는 듯싶었다. 저녁이면 때없이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성공한 그날엔 하늘도 땅도 공기도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듯싶었다. 허나 지금은...

설사 이번의 성공이 선애에게 그 어떤 값높은 명예나 많은 재부를 안겨주었다 해도 사랑을 잃고서는 자기가 별로 기쁘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구에 그것이 전혀 호상성이 없는 주관이었음을 깨닫게 되자 선애는 울고싶도록 자신이 한스러웠다. 어째서 나는 그를 기다리는가? 사랑의 언약도, 일생의 약속도 한적 없는 그를... 어째서 꼭 그의 축하를 받고 싶어하는가?

모르겠다. 언어로써나 논리로써는 도저히 설명할 길 없다. 그저 그림고 만나고 싶다. 나의 성공의 기쁨을 다름아닌 그와 나눌 수만 있다면 나는 그 행복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라.

그런데... 약속하게도 오지 않는다.

선애는 침묵의 고통을 더 이겨낼 수 없어 끝내 송수화기를 들었다.

송천군경영위원회를 찾으니 어느 한 산골농장에 나가있다고 한다.

선애의 애라는 심정을 알아서인지 인차 영수를 찾아 편결시켜주었다.

그런데 수화기에서는 고대했던 축하말대신 뜻밖의 말이 흘러나왔다.

《선애동무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 여기로 오는 인편에 보내왔더군요.》

나는 누구보다도 동무의 성공을 바랐던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열렬히 뜨겁게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나의 망심이 그 충동의 분출을 허락하지 않는군요.》

선애의 심장은 일순 얼어붙었다. 그리고는 다시 놀란 말처럼 불규칙적으로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건 무슨 말씀인가요? 자세히 좀 말씀해주세요.》

《전화상으로는 다 말하기 힘듭니다. 어쨌든 동무의 〈스-5호〉는 여기 통산리땅에서 실패작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선애는 맥없이 송수화기를 떨구었다. 몇순간 공허상태에 빠져있다가 비척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침대에 쓰러져 오열을 터뜨렸다.

그것은... 행복의 바다에 던져진 파문이였다.

아니, 뜻밖에 안겨진 너무나 모진 타격이였다.

7년... 사람의 길지 않은 한생에서 결코 짧다고 할 수 없는 처녀시절 7년을 고스란히 바쳐 쌓아온 탑이 뒤흔들리고있었다.

선애는 눈앞에서 거대한 탑이 통채로 와르르 무너져내리는 환각이 떠올라 몸서리를 쳤다.

그러나 다음순간 무엇인가 뇌리를 때리는 강한 반발력에 뒹기듯 벌떡 일어났다.

(아니, 그럴 수 없어! 종자란 무엇이나 우단점이 있기 마련이고 적기와 적지를 가지고 있는 법이야. 이 세상에 만능의 종자가 어디 있단 말인가. 이견 분명 종자자체의 결합이 아니라 재배상의 기술지표문제야. )

원래 이런 경우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가지고 과학자와 생산자간에 《재판》이 필요한 법인데 선애는 자기의 정당성을 의심하고싶지 않았다. 왜냐면 육종에서의 성공은 확률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지 어느 개별적인 단위에서 변이를 일으켰다고 해서 종자의 보편적 가치가 상실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선애는 통산리에서 예상밖의 락후한 성적을 낸 자기 《아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그곳으로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일 재배기술상문제라면 한해동안에 수습할 수 있겠지만 토양자체가 품종에 맞지 않는다면 손뭉 필요가 없다. 어쨌든 전자나 후자나 과학자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을 것이다.

이 점이 선애에게 다소 위안을 주었다.

## 2

열차는 여전히 쾌속으로 달린다.

떠들썩한 웃음소리에 선애는 피곳 고개를 돌리었다. 건너편 앞좌석에서 《아— 아— 처녀동무—》하는 급한 비명소리같은것이 날아왔다. 금시 머리에 무엇이 떨어지는가싶어 경황없이 선반우를 올려다보는데 또다시 와하 폭소가 터진다.

어리둥절해졌던 선애는 다음순간에야 영문을 깨달았다. 소리를 지른 그 청년의 무릎우에 화관이 놓인것을 보았던것이다. 그러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화가의 모델이 되어준셈이다.

미술이란 원래 무한한 섬세성과 진지성을 요구하는것인데 어떻게 저 우람차고 둥글둥글하게 생긴 사람이 미술가가 될수 있었을가?

그를 보는 첫순간에 떠오른 생각이였다.

청년은 매우 아쉬운 표정을 짓고 사정하디싶이했다.

《아—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잠깐이면 됩니다. 사례는 톡톡히 하겠습니다.》

옆에 앉은 반백의 사나이가 눈을 찡긐하며 지원포를 쏘아준다.

《체네가 하도 깊은 사색에 잠겨있으니까 저 젊은이가 〈사색〉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리구있다네. 이제 국가미술전람회에서 입선되면 미술박물관 한복판에 크게 나붙게 될거라나? 하하...》

그러자 앞좌석에 나란히 앉은 부부인듯 한 40대의 남녀들도 부채질로 합세했다.

《글쎄 저 총각이 장군님께서 현지도하신 곳을 찾아다니며 그림을 그린다는데 기량을 높이느라구 이렇게 기차칸에서까지 습작을 하구있다지않아요.》

선애는 자신이 딱한 처지에 빠졌음을 알고 내심 당황하였다. 응할수도 없고 거절할수도 없고... 이때 뒤쪽 어디선가 건드러진 기타소리가 울려왔다.

순간 선애는 본능적이다싶이 흠칫 놀라며 뒤를 돌아보기까지 했다. 혹시 영수동지가?...

그 미련이 얼마나 어리석은것인가를 허구프게 깨달으며 그는 맥없이 주저앉았다.

기타소리... 바로 저 기타소리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던가?

하여 그는 스스로가 화가청년의 기량훈련대상이 되어 잊을수 없는 추억의 세계에 이끌려갔다.

...드넓은 재령벌 한가운데 재령강을 옆에 끼고 명석리소재지가 자리잡고있었다.

고전미와 현대미가 조화롭게 결합되어있는 《口》자형의 특이한 단층건물.

문득 저녁의 고요를 깨치며 울리기 시작하는 은근하고 구성진 기타소리, 점점 속력을 높이는 경쾌한 무도곡...

어느 한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듣다가 숨으로 귀를 틀어막는 선애.

책상우에 《시간은 간다!》라는 글이 프랑카드

처럼 탁상등에 기대여있다.

기타소리는 여전히 흥나게 울려온다.

선애는 창호지를 하얗게 바른 칸살문을 열어헤치고 복도로 나갔다.

유리창너머로 안뜰의 원형못가 버드나무밑 의자에 앉아 기타를 치는 한 청년의 모습이 보인다. 불그레한 외등빛에 물든 후리후리한 체격이며 서글서글하면서도 날이 선 이목구비가 펑 리지적인 느낌을 주었다.

선애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다.

《실례지만... 좀 조용해줄수 없겠어요?》

《예?...》

청년은 뜻밖인듯 당황해하는것 같더니 인차 수습하고 일어나 반색을 지었다.

《아, 미안합니다. 우리 합숙에 조용한것을 좋아하는 동거자가 계시는줄 모르고 그만...》

그렇다는 의미에서 통성이나 합시다. 난 여기론문실습나온 김영수라 하는데 동무는요?》

청년은 흰 이가 반쯤 드러나도록 싱글거리며 다가왔다.

예견치 못했던 역습에 이번에는 선애가 그만 당황했다. 이렇게 떡심좋은 반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그는 아직 배우지 못했던것이다.

《저에 대해선 알 필요 없어요.》

《그렇다면 알지 맙시다. 어쨌든 동무가 조용한것을 좋아한다면 나는 유쾌한것을 좋아하지요. 이런걸 바로 생활의 화음이라고 하는것입니다. 높은음, 낮은 음이 조화롭게 결합되어야만 아름다운 음색이 나오듯이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전 말씨름할 시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용서하세요. 그럼...》

선애는 고개를 약간 숙여보이고 돌아섰다.

《예, 편히 주무십시오.》

작듯이 던지는 인사말이 오히려 이런 경우에 있을수 있는 비난의 목소리보다 더 자극적으로 박혀들었다.

호실로 돌아온 그는 책상에 다가앉아 시험일지에 펜을 박았다. 이상하게도 정신이 집중되지 않았다. 기타소리도 더는 들려오지 않고 고요한 정숙만이 깃들었으나 무엇인가 이룰할수 없는것이 마음의 안정을 휘저어놓는것이였다. 무엇때문일까? 무안당하고 모욕을 느꼈을새 손님에 대한 죄스러움, 자신의 무례했던 언행에 대한 자책감...

사실 도덕은 호상성을 가지는것인데 자기 소개를 한사코 피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요구만을 주장하였으니...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선애는 그만 수치심에 얼굴을 싸쥐었다.

내가 분명 신경과민증에 걸렸어. 적막한 농촌합숙에 활기와 정서를 더해주는 아름다운 기타의 선율마저 감수할 여유가 없으니... 저 김영수란

사람이 나라는 너자를 어떻게 볼가? 아니, 이진립선애 개인의 인격문제가 아니라 녀성과학자의 명예문제야. 하지만 연구사업의 침체에서 오는 좌절감과 쓰라린 고충을 어떻게 저 사람에게 리해시킨단 말인가?...

생활이란 역시 상반되는 극들의 조화로운 결합과 부단한 교차로 이루어지는것인지?

이튿날 새벽 시험포전을 돌아보려 합숙을 나서던 선애는 앞마당을 쓸고있는 김영수를 보자 멈춰 서버렸다. 또 한번 강타를 맞는 심정이였다. 현지시험을 나온 이 3년간 리합숙의 유일한 고정인원으로 생활하면서도 늘 시간부족에 쫓기우다보니 새벽에 비자루를 들어보지 못했던것이다.

선애는 쫓기듯 황황히 그 자리를 피해버렸다. 얼마후 아침식사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가는데 못가의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있던 김영수가 반기며 일어났다.

《기다렸습니다. 함께 식사하고싶어서요.》

선애는 가늘게 한숨을 짓고 대꾸했다.

《공연한 원심이군요. 전 언제나 혼자가 좋은걸요.》

《저를 일개 남성으로 경계하는것 같은데 난 그거야말로 공연한 원심이라고 말하고싶습니다. 저는 그저 과학탐구의 전초선에 선 연구사동무를 존경하는 평범한 학생에 불과하지요.》

《?!...》

영수는 흰 이가 반쯤 드러나게 싱글거리며 말을 이었다.

《전 뒤늦게야 연구사동무가 5년전부터 제가 존경해온 대학선배라는걸 알아보았습니다. 몇해째 새 품종 시험때문에 나와있다는것도...》

《그래요?》

선애는 놀라운 시선으로 그를 일별하고는 말없이 걸음을 옮겼다. 나의 대학후배가 분명하다면 왜 전혀 본 기억이 없을까? 하긴 내가 대학을 졸업한지도 5년이 되었으니 그때 이 사람은 제대군인으로 갓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이었을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나를 알아보았다는걸가?

김영수와 한식탁에 마주앉아서도 선애는 그를 외면한채 수긋하고 저가락질을 하였다. 밥도 먹히지 않아 그릇을 절반도 비우지 못한채 물러앉았다.

《왜, 무슨 근심이라도 있습니까? ...혹시 몸이 불편한건 아십니까?》

《아니, 아무것도 아니예요.》

선애는 자기의 내심을 투시할듯 유심히 바라보는 영수의 눈길을 느끼며 서둘러 일어났다.

포전으로 나간지 얼마 안되어 작업복을 갈아입은 영수가 그곳에 나타났다.

《연구사동무의 시험포일을 도와드리고싶어 나왔는데 반대없겠지요?》

《시험조수들이 따로 있는데 무엇때문에?...》 선

애는 의아해서 반문했다.

《아 종이장도 맞들면 가볍다는데 제가 방해아 되겠습니까?》

《하지만 동무한테야 자기 할 일이 따로 있지 않나요?》

《사실 제가 잡은 론문제마는 각이한 토양조건에 따르는 품종선택문제입니다. 그러니 시험포 일이자 제 론문의 자료확증을 위한 필수작업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기상장동지하고도 방금 토론이 있었으니 걱정마십시오.》

그리하여 선애의 의사에 관계없이 김영수가 이날부터 자칭 조수역을 하게 되었다.

그는 매일 시험포에 나와 조수들이 하는 일을 이것저것 스스로 찾아하는데 그 솜씨가 여간이 아니였다. 땀을 뚝뚝 흘리며 삽질을 하고 비료다래끼를 메고 논판에 다리를 잠근채 하루종일 비료를 뿌리기도 했으며 허리를 굽히고 김을 매기도 했다. 그럴 때면 꼭 근면하고 성실한 실농군의 자세였다.

그러다가도 째짤이 확대경을 들고 모임을 보며 세심히 관찰을 하였고 수첩을 꺼내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적어넣기도 하였다.

이따금 설참이면 해학적인 유모아로 시험포사람들을 한바탕씩 웃기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슬쩍 선애쪽을 결눈질해보는것이 선애의 웃는 양을 보고싶다는 심사였다.

그러나 선애는 웃을 경향도 없이 초조한 마음이였다. 처음 육종목표를 세우고 설계를 작성할때 F2세대에서 목표했던 개체를 고른 후 계통재배를 3년으로 계획했었다. 뜻대로 되자면 3년째 되는 올해에는 개체들의 균일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모살이단계에서부터 불균형의 징후가 느껴지기 시작했었다.

이름할수 없는 초조와 불안이 나날이 그를 괴롭히고있었다.

모살이도 끝나고 벼포기들이 한창 아지를 치던 어느날 점심무렵이였다.

선애는 병해충구제를 위해 논두렁에 설치할 유아등받침대를 부탁하려고 수리분조로 바빠 가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쳐가던 영수가 어딜 급히 가느냐고 묻더니 대뜸 그를 나무랐다.

《아니, 그런거야 자체로도 할수 있는데 왜 수리분조에까지 걸음을 하는가요? 저한테 말하면 제격해놓을텐데 말입니다.》

《아니, 동무가 어떻게... 한두개도 아니고 여러문개는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자면 판자랑 기름병이 적지 않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거야 다 이 머리속에 있지요. 어쨌든 제가 오늘중에 해놓을테니 그동안 연구사동무는 제할 일이나 하십시오. 글썄 그런 일이야 우리 조수들

에게 파업만 주면 될게 아니가요?)

영수는 자전거를 썩 돌려 시험포쪽으로 내달았다.

뒤미처 시험포에 도착한 선애는 입을 딱 벌렸다. 옷등을 벗어붙인 영수가 어느새 새빨간 진흙을 이겨 놔두렁 모서리마다 유아등받침대를 빚어 놓고있는것이 아닌가? 하얀 런닝그밖으로 드러난 근육이 발달된 상체의 피부가 한낮의 해별을 받아 기름을 바른듯 땀으로 번들거렸다.

이제는 병만 구해오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데 영수는 유리병대신 일정하게 잘라낸 비닐판로 막들을 진흙속에 박아 고정시키는것이였다.

그 착상의 기발함에 선애는 탄복하지 않을수 없었다.

일을 끝낸 영수는 진흙이 게발린 두손을 도랑물에 씻다가 비로소 선애를 띄여보고 웃으며 일어났다.

《연구사동지! 조수 김영수 당신이 준 파업을 수행했습니다. 하하...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시는가요?》

《이런 재간은... 어디서 배웠는가요?》

《그야 물론 군인시절에 체득한거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건 우리 군인들의 기질이 아닙니까? 이제 진흙이 땅땅 마르기만 하면 오히려 나무받침대보다 더 견고해질겁니다.》

영수의 땀흐르는 얼굴에 웃음이 사라질줄 모른다. 저 웃음도 그 창조정신에서 나오는것일가? 슬그머니 시샘에 가까운 부러움을 느끼며 선애는 손수건을 꺼내주었다.

영수는 받치 않고 팔소매로 땀을 문질렀다.

그날 저녁이였다.

식사가 끝난 뒤 김영수가 두툼한 종이뭉음을 들고 선애의 방으로 찾아왔다.

《연구사동지의 도움을 받을 일이 있어 왔는데 시간을 좀 내줄수 있을가요?》

(유무상통이라는건가?)

선애는 딱한 심정이 되어 대꾸를 하지 못했다. 자기의 안타까운 처지는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는 그가 민망스럽게 기지없었다.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럴만한 정신적여유가 없는것이 문제였다.

그렇다고 자기 일을 성심성의로 도와주는 상대방의 부탁을 물리칠수도 없었다.

호기심어린 눈으로 방안을 둘러보던 영수의 눈길이 비로소 탁상등에 기대놓은 마분지에 쓴 글발에 가닿았다. 그것은 선애의 말없는 대답으로 되고말았다.

《〈시간은 간다!〉... 어쩐지 시간에 쫓기우는 숨가쁜 인생을 보는것 같군요.》

《뭐라구요?》

선애는 영수의 비양기어린 얼굴을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저의 표현이 지나쳤다면 용서하십시오. 저 글발을 보니 연구사동무의 초조와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 리해가 돼서 그렇니다.》

그러나 저는 좀 달리 말하고 싶습니다.

세계의 주인인 인간은 응당 시간에 대해서도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돼야 한다고 말입니다.

시간을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건 좋지만 시간의 흐름에 압박감을 느끼게 되면 무슨 일이든 용의주도하게 해나갈수 없는 법이지요. 하물며 일생을 바쳐야 하는 과학탐구의 길이 아닙니까?》 영수의 말은 반박할수 없는 진리로 선애의 가슴을 아프게 찌르고들었다.

《사람이 시간의 주인이 되여야 한다는 말은 저도 공감이에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하다고 봐요. 구체적인 현실은 유감스럽게도... 시간은 멈춤없이 흐르지만 사람의 뜻은 자주 암초에 부딪치거든요.》

선애는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긋고나서 쓸쓸히 계속했다.

《암초에 부딪쳐 전진하지 못할 때마다 흐르는 시간을 붙잡아세울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시간은 인간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흘러요. 불가항력적으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영수는 미간을 찌프리더니 못마땅한 눈으로 선애를 마주보았다.

《똥박인데요. 돌격로를 열어야 할 전초병이 무장해제되면익측의 엄호대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전초병이고 동문 엄호대원이라는건가요?》

선애는 어처구니없는 표정을 짓고 반문했다.

《왜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난 이런 생각을 벌써 대학입학때부터 해온겁니다.》

《에?...》

《나는 대학에 들어서는 첫 순간에 벌써 동무의 얼굴과 이름을 익혔더랬지요. 정문입구의 최우등생영예게시판 첫 자리에 나붙은 사진속의 처녀림선애를 말입니다.》

《호... 그랬됐군요.》

《그때는 그저 신입생으로서의 희망과 포부의 거울이구 모델이였다고 할가.》

하지만 얼마후 전국대학생과학기술축전에서 1등상을 받구 경험토론무대에 나선걸 보았을 때... 그때의 동무는 누구나 지향과 리상만으로는 쉽게 따를수 없는 동경의 대상이었지요. 그리고 동무와 같은 앞선 사람들이 있어 그를 뒤따르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더욱 다그쳐지는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1년간 나는 대학구내와 도서관에서 가끔 동무와 마주쳤는데 동문 늘 책만 내려다보며 걸느라니 나의 눈길을 한번도 받아주지 않더

군요. 말을 건네보고싶어도 사색을 방해하는것 같아 그냥 지나쳤지요. 그때마다 섭섭한 마음보다도 그 도고하고 열정적인 자세앞에 머리를 숙이곤 하였습니다.》

선애는 얼굴을 붉히며 그를 외면하였다.

《내가 알고있는 림선애는 바로 이런 처녀였습니다. 지금의 우울하고 메마르고 한숨과 신경질이 많은 피백한 처녀가 림선애라는것이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만하세요! 동무가 뭘 안다고...》

선애는 눈초리가 콧꽃해서 격한 소리를 내질렀다.

영수도 주저없이 날카로운 눈빛을 마주 던졌다.

《과학탐구의 힘겨움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힘겹기때문에 신념이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 한것이지요. 힘겨울수록 웃을줄 아는 그 낙천성이 바로 신념이구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신랄하고도 절절한 그 말에 선애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영수는 들고 온 책을 선애앞으로 밀어놓으며 우선우선하게 말했다.

《자, 이건 제가 지금까지 작성한 논문초고인데 좀 보아주십시오. 아무래도 품종선택문제니까 육종전문가의 방조를 받아야 할것 같아 그러니다. 저야 경영학이 전공이니 육종을 깊이 알수가 있어야지요.》

《지나친 기대는 걸지 마세요. 전 영수동무가 생각하는 그런 과학자가 못되니까요.》

《아니, 난 믿겠습니다.》

영수는 움쭉 일어나 방을 나갔다.

선애는 그 자리에 굳어진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영수가 남기고 간 비수같은 말마디들이 뇌리에 공명되어 울려왔다. 《피백한 여자》라구? 내가 어째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뭐 우울하고 메마르고 신경질이 많다고? 《시간의 노예》?...

선애는 불쑥 눈물이 솟구치는것을 느꼈다. 그것을 부정할수 없는 자신을 깨달은 때문이었다.

그는 피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두손으로 머리를 싸쥐었다. 그렇다! 지금의 나는 분명 그전날의 내가 아니다. 심혼을 태우고 온녔을 사르던 그 불길, 야심만만하던 투지와 정열은 어디로 갔는가? 무엇에 나는 쫓기우고있는가?

선애는 감정의 속박에서 벗어나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았다.

답은 너무도 명백했다. 그는 처녀시절의 목표로 내걸었던 연구과제의 실현이 뜻대로 되지 않게 되자 저도 모르게 신심을 잃고 불안과 초조감에 사로잡혀있는것이다. 결국 성공에 대한 확신이 의심으로 바뀌운셈이다. ...

그날 밤 영수가 놓고간 논문을 한장한장 번져

보던 선애는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작성자의 탐구와 심혈이 자자구구에 담겨진 그 논문에는 선애의 육종연구에 참고할만 한 귀중한 자료들도 들어있었던것이다.

그제야 선애는 영수가 도와달라고 한것이 오히려 자기를 도와주자고 한 일이었음을 깨달았다. ...

### 3

공교로운 날씨였다.

렬차가 룡산역에 멎기 한정거장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한것이다.

림선애가 렬차에서 내렸을 때는 벌써 창대같이 굵어진 비줄기가 역홈바닥과 역사의 지붕을 요란스레 때리고있었다.

미처 우장을 준비하지 못했던 선애는 급기야 나들문을 빠져나와 역대합실로 뛰어들었다.

산촌의 간이역이어서 비교적 한적했다.

빈 의자를 찾아 배낭과 가방을 내려놓았다. 배낭거죽은 그새 비의 세례를 받아 축축했으나 그 안의 책들은 다행히 젖지 않았다.

룡산리소재지까지는 5리가 잘되니 부득불 비가 멎기를 기다리는수밖에 없었다.

선애는 자리에 앉아 배낭속의 책을 한권 꺼내 들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자주 책장을 벗어나 창밖을 내다보곤 한다. 초점잃은 그 눈빛에는 고뇌와 번민이 짙게 어려있었다. 과연 이 생소한 땅에서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있을가? 얼마만큼이나 지체하게 될가?

《그동안 잔치준비를 해놓을테니 빨리 갔다 오나라.》

사연을 알리 없는 어머니의 당부...

선애는 호— 한숨을 내쉬며 책장우에 눈길을 떨구었다.

그때 앞으로 지나갈듯 하던 육중한 장화발이 툭 멈추어섰다.

《연구사동무 아십니까?》

기쁨에 젖은 웅글은 목소리에 선애는 와뜰 놀라 눈길을 들었다.

비웃을 입은 후리후리한 청년이 우산을 접어들고 서있다.

《어마나! 영수동무가 어떻게?...》

선애는 깜짝 놀라 부르짖으며 일어났다. 반가움과 노여움이 마구 엇갈리며 이름할수 없는 격정이 가슴에 짙 차올랐다.

《그동안... 잘있었어요?》

《보시다싶이 이렇게 건강합니다, 하하...》

영수는 차돌같은 흰 이를 드러내며 유쾌히 웃었다.



《누굴 마중나왔던 모양이지요?》

선애가 영수의 손에 쥐여진 우산을 일별하며 물었다.

《귀한 손님이 오시는데 주인이 앉아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예? 아니, 그럼...》

《전화를 받은 선애동무가 꼭 이렇게 떠나올 줄 알았지요. 자, 갑시다.》

영수는 선애의 배낭을 풀망태 둘러메듯 가볍게 들어 어깨에 메고 앞장섰다.

선애도 가방을 들고 그의 우산밑으로 따라섰다. 비발은 자욱하고 길은 질퍽거리고... 우산등을 때리는 비소리만 소연하다.

왜서인지 가슴속에 할 말이 꼭 차있었던만 정작 만나니 무엇부터 어떻게 터놓아야 할지 알수 없었다.

《참, 어머니건강은 좀 어떻습니까?》

《...》

선애는 대답하지 않았다. 불쑥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수가 없었다.

딸의 성공을 그리도 기뻐하던 어머니의 모습, 떠나올 때 역에까지 따라나와 각근히 당부하던 그 목소리가 뇌리에 사무쳐왔다.

그런데 그 눈물겨운 기쁨우에 찬물을 끼얹은 영수에게 무슨 말을 할수 있단 말인가?

영수도 그 어떤 죄스러움때문인지 더이상 대답을 재촉하지 않았다.

사실 어머니로 하여금 딸의 나이 30이 되는 오늘까지 마음놓고 기다릴수 있게 해준 사람은 다름아닌 이 사람이 아니었던가?...

돌이켜보면 선애의 연구사업과정에 제일 넘기기 힘들었던 고비는 바로 어머니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까지의 진통이었다.

어렸을 때나 학창시절에는 남달리 총명하고 뛰어난 딸애의 두뇌에 대한 놀라움과 탄복, 어머니로서의 긍지로 하여 딸의 유망한 앞날을 기꺼이 축복해준것이였으나 정작 연구사가 되어 육종학이라는 가장 힘겹고 성공이 묘연한 길을 걸으며 한해두해 나이를 먹어가게 되자 자연히 근심걱정이 커져 딸의 발목을 붙잡기 시작하였다.

《너자가 나이 30에 이르면 어느 총각이 바라다보겠니? 연구를 해도 시집을 가서 하면 안되겠니?》

선애는 어머니의 절절한 소원을 풀어드릴수 없는 자신이 못내 안타까웠다.

육종이라는것은 일단 시작을 하면 성공을 볼때까지 전심전력하든가, 아니면 중도반단하든가 두 길중 하나밖에 없는 연구분야이다.

그래서 그는 새 품종 연구를 처녀시절의 목표로 정하고 7년이상 걸려야 하는 그 기간을 육종학자로서의 일생에서 첫 단계로 구획지어놓았던 것이다. 즉 이 기간은 한순간도 딴 정신을 팔거나

생활의 다반사에 정력을 분산시켜선 안될 긴장한 나날이어야 했다.

선애는 죄스러운 심정으로 어머니에게 애원하다싶이 말했다.

《어머니, 걱정말고 기다려주세요. 헌신짝도 짝이 있기마련인데 아무렴 나이 많다고 시집을 못가기야 하겠나요?》

《글쎄 아무한테든 가기가 하겠지만 너자란 시집가면 아이낳이를 해야 하지 않니? 나이 많아지면 아이낳이가 힘들어지는 법인데 빨리 아이부터 낳아놓구 계속하려무나, 응?》

《호호... 어머니두 참, 육종이란건 몇해동안 연속하는건데 중도에 아이를 낳아놓으면 어떻게 하라는거예요? 다른 연구는 중간휴식이라는데 있을수 있어도 육종만은 그렇게 안돼요. 중단했다가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4-5년 공들인 탐도 하루아침에 무너져앉는단말이에요.》

《예구— 그런줄 알았으면 괜히 육종학자를 시켜서 마음고생이로구나. 그건 너자가 할 일이 아니었던걸...》

어머니는 속이 상해 한숨을 꺼지도록 내쉬었다.

선애가 집에 올라갈 때마다 어머니의 지청구는 반복되었다. 소득없는줄 알면서도 설복하고 애원하고 타일렀다. 그것은 어머니다운 심정의 어쩔수 없는 하소였으나 현지로 내려가는 선애의 걸음걸음에 무거운 추가 되어 매달리곤 했다.

그는 매양 어머니의 안타까운 심정에 부딪치기가 괴로와 될수록 도에 올라가는 기회가 있어도 집에 들리기를 피하였다. 그때문에 그의 고민은 더욱 커졌고 우울한 생각에 빠져있을 때가 많았다. 일을 하다가도 문득 떠오르는 어머니의 모습에 가슴이 저려들어 한참동안이나 멍하니 굳어져있기가 일쑤였다. 그는 자신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걸음한걸음 어머니의 권고에 끌려들고있음을 깨닫고는 화를 놀라곤 하였다.

선애의 그리는 양을 띄여본 영수가 한번은 이렇게 물었다.

《도에 갔다 올 때마다 괴로워하는걸 보니 집에 무슨 일이 있는게 아닙니까?》

《아니예요. 아무 일도...》

《연구사동무의 얼굴에 다 썩여있는데무요? 이 정찰병출신의 눈은 속이지 못합니다.》

《남의 가정문제는 함부로 간섭하는게 아니지요.》

이날의 대화는 이것으로 끝났다.

이튿날은 영수가 급한 일로 대학에 갔다 온다면서 자리를 뒀다.

그러나 선애는 그것이 다름아닌 자기때문에 떠난 걸음이었음을 꿈에도 생각할수 없었다.

며칠후 어머니에게서 날아온 뜻밖의 편지는 그

를 몹시 놀라게 했다.

《선애야, 오늘 너와 같이 합숙생활을 한다는 게 대군인대학생이 집에 왔다 갔다.

네가 얼마나 상심해했으면 이 에미가 혹시 알지라두 않는가 해서 걱정이 되어 들렀다는구나. 참 진실하구 고마운 사람도 다 있지. 성미도 참배 맞처럼 씨원씨원한게 정말 믿음이 가더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 동창생너자들은 시집가서 떡돌같은 아이들을 업구 다니는데 야단났다고 안타까와했더니 <이제 선애동무가 이 세상 그 어느 여자들보다 더 훌륭한 아들을 낳아 어머니에게 안겨줄겁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계시하신 새로운 농업혁명방침의 첫째가 바로 종자혁명인데 선애동무는 바로 온 나라에 뿌릴 씨앗의 원종을 만들어 장군님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릴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야말로 누구나 누릴수 없는 값높은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웃으며 말하는데 난 어쩐지 그 젊은이의 말을 무심히 듣게 되지 않더라. 이 늙은이에게 힘을 주구 신심을 주는 그 마음이 정말 고마웠다. 그래서 너와 함께 있는 동안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지.

그 사람은 떠나면서 내 손을 꼭 잡구 <그저 마음을 꼭 놓으시구 성공하는 그날까지 기다려주십시오. 그러면 성공의 날도 그만큼 앞당겨질것입니다. > 이렇게 신신당부했단다.

선애야, 내 지금까지 너한테 쓸데없는 꾸밈질을 해서 연구사업에 오히려 지장을 주었다는걸 비로소 알았구나.

이제부터는 영수 그 사람 말대로 마음놓구 기다리겠다. 그러니 너도 이 에미격정일랑 아예 말구 연구사업에 전심전력하거라. 영수도 힘껏 도와주겠다고 했으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해서 방조를 받아라.》

그후 영수는 어머니에게 한 말대로 선애를 성실히 도와주었다.

선애가 입맛을 잃고 밥그릇을 비우지 못하는것을 보고는 그날로 재령강에 나가 팔푼만 한 고기들을 잡아다 제손으로 남비탕을 끓여주었다.

쇠약해진 몸에 원기를 돋구라고 80여리나 되는 사슴목장에까지 가서 약재를 구해오기도 했다. 찌는듯 무더운 삼복철에 왕복 160리를 자전거로 달려왔으나 빨강계 익은 얼굴에 팔죽같은 땀을 흘리면서도 전혀 힘든 내색없이 흰 이를 드러내며 활짝 웃던 그 모습...

선애자신도 미처 알지 못했던 실내화의 터진 혼술과 못에 걸려 찢어진 비옷을 새것처럼 수리해놓아 선애를 아연케 한적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한밤중의 아츠러운 우뢰소리에 선애는 깜짝 놀라 잠을 깨었다.

번쩍! 눈부신 번개불에 이어 팡—파르릉 핑음이

일어났다. 미구하여 짹짹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바깥으로 퍼붓는듯 한 억수가 사정없이 계속되었다.

선애가 급히 비옷을 입고 시험포로 달려갔을 때는 눈이 이미물에 잠기기 시작했다. 시시각각 높아지는 수위는 방금 패기 시작하는 이삭부위를 위협하고있었다. 이삭머리까지 물에 잠기면 6년간 진척시켜온 모든것이 물거품으로 되고만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물을 뽑아내야 했다.

어느새시험포는 물을 뽑기 위한 작업으로 풀기 시작했다. 양수기들이 총 가동되고 시험원들이 억척같이 달라붙어 바깥으로 물을 퍼서 수로에 쏟아버린다.

그런데 바로 그때 수로둑의 한 귀퉁이가 터져 나가기 시작했다.

흙가마니를 보강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면 사품치는 강물이 폭포마냥 쏟아들어 순식간에 눈이 물바다가 될 판이다.

선애는 눈앞이 새까매지며 심장이 멎는듯 하였다.

그 위기일발의 순간 무너지는 뚝에 육탄마냥 날아드는 사람이있었다.

그가 바로 영수였다.

팔팔 넘어 폭포처럼 탕수가 분수마냥 그의 머리우에 들쭉워졌다.

사람들이 흙마대를 지고 달려올 때까지 그 자리에 바위처럼 버티고 선 그의 머리우로 시뻘건 탕수가 연방 쏟아져내린다.

그때의 그 불사신을 방불케 하던 영수의 모습은 선애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다.

선애에게서 진정한 매혹의 감정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던것이 아닐까?...

## 4

《무슨 생각을 합니까?》

문득 울리는 영수의 목소리에 선애는 추억에서 깨어났다.

비발은 어느덧 성글어지기 시작했다. 가로수들이 비바람에 좌와 설레이고있었다.

선애는 잠시 영수의 물음을 음미해보고나서 대답했다. 《전 <ㄱ—5호>가 결코 저 하나만의 열매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영수는 선애가 다 말하지 못한 속대사를 읽는듯 진중한 어조로 말했다.

《물론 거기엔 어머니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념원과 헌신이 깃들었지요. 바로 그래서 저도 그 열매가 실익은 열매로 되지 않기를 바라는것입니다.》

《설익은 열매라구요?》

《제가 알고있건대 <ㄱ—5호>의 유전적특징은

모내기를 일찍 해서 생육기일을 충분히 보장하고 뿌리발육이 좋아 악조건에서도 잘 자라며 이삭당 알수가 많다는것, 그래서 종전의 벼종자들보다 현저히 더 많은 수확을 낼수 있다는것입니다. 그래서 동무가 시험단계에서 성공한 그 벼종자가 농업성을 통해 국가생태지역검정망으로 분포될 때나도 그것을 받아가지고 여기로 내려와 1년간 재배시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본래 심던 재래종보다도 수확고가 현저히 떨어졌던것입니다.》

선애는 극심한 모욕감에 몸을 떨며 부르짖었다.

《그래 그것이 품종자체의 결함이라는건가요? 〈스-5호〉는 엄연히 국가품종비교시험에서 합격된 품종이예요.》

《알고있습니다. 물론 품종결함은 아니라고 봅시다. 솔직히 내가 여기 룡산리에서 생태지역검정을 해보게 된것은 이곳이 군적으로 제일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기때문입니다. 그러니 품종자체가 이 지대의 토양조건에 맞지 않을수도 있겠지요. 혹은 생산자들이 채배상에서 기술지표를 잘 지키지 못한 원인도 있을수 있고...》

하지만 어쨌든 새 품종의 벼가 여기서까지 은을 내야 완전히 성공했다고 말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학자는 우량품종을 만드는데서 만족할것이 아니라 생산도입에서까지 책임지는 립장에 서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과학자의 참다운 량심이 아닐가요?》

《...》

《이 품종이 어느 땅에서나 다 은을 낸다면 나 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애는 끝내 대답하지 못했다. 너무도 절절하게 가슴을 파고드는 말이여서 도저히 반박할 말을 찾을수 없었다.

어느덧 그들은 소재지마을에 들어서고있었다.

영수는 새로 지은듯 한 2층건물안으로 선애를 안내했다.

음식냄새가 풍기는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른 녀인이 나와 깅듯이 인사를 했다.

《오신다는 이야길 들었습니다. 2층에 방을 준비해놓았어요.》

《고맙습니다.》

《올라가 집을 놓고 내려오십시오. 시장하실텐데 식사부터 하교봅시다.》

영수가 식당칸으로 들어가며 하는 말이였다.

리합숙 식모 겸 관리원인 그 녀인이 앞서 층계를 올라가 출입문열쇠를 열어주었다.

아늑하게 꾸러진 방에서 후끈한 열기가 풍겨나왔다. 침대우에 두툼한 솜이불이 놓이고 창가에는 활짝 핀 제라늄화분이 놓여있었다. 옷장, 책상, 원탁에 텔레비죤까지 갖추어져있는데 벽에는 기타한개가 걸려있다.

《도농촌경리위원회 부원동지방으로 꾸린게 아

닌가요?》

《아닙니다. 부원동지는 1년내내 관리위원회사무실에서 류숙하고계신답니다. 이 방은 녀성연구사동지가 들 방이라면서 특별히 잘 꾸리라고 부원동지가 부탁해서 꾸린겁니다. 혹시 오래 걸릴수도 있을거라고...》

《그래요?...》

선애는 기가 막혀 더 말이 나가지 않았다. 잠간 왔다가려던 자신의 계획이 너무도 엄청난 도전에 부딪혔다는 생각이 들었다.

관리원이 내려간 뒤 선애는 집을 풀 생각도 못하고 한동안 침대에 걸터앉아있었다.

(과연 실패의 원인은 무엇일까? 제발...)

선애는 한가닥 미련에 기대를 거는 자신을 의식하였다.

그러자 다음순간 《참다운 과학자의 량심》이란 말이 송곳끝처럼 가슴을 찌르고들었다.

그것은 요행수를 바랐던 자신의 마음을 사정없이 란도질해버렸다.

(결국 나의 성공이란 자신의 처녀시절을 장식하기 위한 한갓 명예에 불과하지 않았는가? 다년간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한다고 했지만 결국 그 지향점은 명예였던것이다. 그래서 그리도 성과에 조급했고 서둘러 그 희열에 도취된것이 아니었던가?)

선애가 작업복을 갈아입고 식당칸으로 내려가니 어느새 밥상이 차려져있었다. 정성이 깃든 여러가지 음식들가운데 새빨갈게 양념이 덮인 메기생선국이 특별히 눈을 끌었다.

오래간만에 영수와 마주앉은 밥상에, 특별히 좋아하는 메기생선국이였으나 왜서인지 수저를 들 용기가 나지 않았다.

《싸움에서 이기려면 밥부터 든든히 먹어야지요.》

영수는 이렇게 우스개소리를 하며 술갈로 밥을 꺽꺽 눌러 소담스레 떠올렸다.

그러자 선애도 불쑥 반발심이 살아올라 상바투다가앉았다. 그는 순전한 승벽심때문에 억지다짐으로 음식을 씹어넘겼다.

식사가 끝난 후 두사람은 시험포를 돌아보았다.

쭉정이가 되다싶이 한 벼이삭들이 부끄러운줄 모르고 머리를 쳐들고 서있었다.

선애의 눈에는 그것이 꼭 자기의 모습을 흉내내고있는듯이 보였다.

아니, 자기가 낳은 부실한 자식을 보는 어머니의 불행한 심정이였다.

그는 비를 맞아 축축한 벼대들을 헤치며 논 가운데까지 나가보았다. 아래도리가 화락하니 젖어들었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포기당 대수와 이삭당 알수를 세여보았다.

이것은 분명 자기의 유전적특징을 잃은 변이된 열매였다.

선애는 여물지 못한 벼이삭을 아프도록 손에

진채 눈을 감고 입술을 깨물었다.

한참만에야 그는 맥없이 포전길로 나왔다.

《옷이 다 젖었군요. 러로에 피곤할텐데 오늘은 폭 좀 쉬십시오.》

영수의 권고는 오히려 선애의 울분을 격발시켰다.

《폭 쉬라구요? 날 야유하는건가요? 제 〈아들〉이 중병에 걸렸는데 무슨 마음이 편해서...》

선애는 화풀이를 하다말고 책 돌아 총총히 함숙으로 달음질쳤다.

뜨끈한 아래목에 젖은 옷을 널어놓고 책상에 마주앉았다. 이제부터 며칠동안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안을 세워야 했다.

그러나 당장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때 《똑똑》 문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문앞에는 식모녀인이 서있었다.

《부원동지가 이걸 가져다드리라고 해서...》

녀인은 두손에 안고 온 한아름되는 보따리를 넘겨주었다.

《이게 뭔데요?》

선애가 얼떠름해서 그것을 받아안으며 물었으나 녀인은 어줍게 웃으며 머리를 저었다.

《글쎄 저도 모르겠는데... 연구사선생이 보시면 알리라곤 하더군요. 그럼 전...》

녀인이 문을 꼭 닫고 나가자 방안에는 야릇한 정적이 깃들었다.

선애는 육중한 무게가 느껴지는, 무슨 책이나 문서가 들어있음이 분명한 그 보따리를 책상우에 옮겨다놓고 매듭을 풀었다.

두줄로 차곡차곡 쌓아올린 책들우에 편지 한장이 놓여있었다. 누운 글체로 휘갈겨쓴 큼직큼직한 글줄이 한눈에 안겨왔다.

《선애동무! 신심을 잃지 마십시오. 돌격선에 선 병사는 어떤 경우에도 주저와 두려움을 몰라야 합니다. 인생의 승리는 오늘의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데 있습니다.

나는 어제든 그러했지만 오늘도 래일도 동무의 충실한 조수로, 방조자로 살것입니다.

왜냐면 바로 그 길에 우리의 과학과 농업의 발전 그리고 우리모두의 행복이 있기때문입니다.

여기 내가 1년간 직접 기록한 재배시험일지들을 전부 보내니 참고하여주기 바랍니다.》

선애는 몇줄 안되는 그 편지를 오래도록 보고 또 보았다. 자자구구를 곱씹어 음미하며 읽고 읽고 또 읽었다.

그러자 이룰할수 없는 희열과 정신적충만감이 가슴이 터질듯 벅차올랐다.

아! 이런 사람과 함께라면 무엇이 두려우랴! 길동무가 좋으면 천리도 지척이라는데 헤쳐야 할 험로가 천리면 어떻게 만리면 어떻단 말인가?

선애는 온몸에 힘이 뻗쳐오르고 열정이 샘솟아 오름을 느끼며 시험일지연구에 착수했다.

씨앗고르기로부터 싹틔우기, 뿌리기와 모기르기

등 모든 영농과정들과 비배관리정형이 하루도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있었고 새 품종 벼의 연간생육과정이 일목요연하게 안겨왔다. 마치도 영수자신이 연구사인듯이 연구사이상의 안목으로 관찰하고 기록한 그 모든 자료들은 선애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



선애는 며칠났, 밤을 이어대며 시험일지에 대한 연구를 끝내었다.

조금도 빈틈이 없이 집행된 재배기술지표에서는 실패의 원인을 찾을수 없었다.

결국 과학원에서 작성하여 내려보낸 재배기술지도서가 이곳의 토양이나 기후조건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것을 의미했다.

실패의 원인을 보다 근본적인데서 찾아야 했다.

그동안 영수는 장기환자로 앓고있는 기사장을 대신하여 시험원들과 함께 시험포의 벼수확을 끝내고 토양분석을 위한 준비를 따라세웠다.

분석결과 선애는 팽해가 심한 산골농장특유의 토양조건에서 팽해견딜성이 강한 품종과의 교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쉽게는 결심할수 없는 문제였다.

어미아비의 선택으로부터 쉼불임, 잡종1세와 2세의 재배 및 개체선발, 3~4년간의 계통재배, 예비비교시험과 생산력검정시험에 이르기까지 또다시 7년 이상의 육종과정안을 걸쳐야 했던것이다.

결국 자기의 성공을 스스로 부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심각한 문제였다.

보다 중요한것은 2~7년이상의 시험을 과학원이 아니라 여기 룡산리에서 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어찌면 육종이란 10년, 20년, 지어 한생이 다 걸릴수도 있는 일인것이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민에 잠긴 선애에게 영수가 물었다.

선애는 대답을 오래 피하지는 않았다.

《진통이 있으면 새 생명은 태어나기마련이지요.》

영수의 얼굴에 놀라움과 격동의 빛이 확 불타올랐다. 그러더니 어느새 다가와 선애의 손을 파악 움켜잡아 흔든다.

《그럴줄 알았습니다, 선애동무! 고맙습니다!》

《고맙다니요? 저에게 그럴만한 용기를 준 사람이야 영수동무가 아닌가요?》

선애는 얼굴을 붉히며 이렇게 말했다.

영수는 못내 흐뭇한 표정으로 말을 받았다.

《나는 이 룡산리가 단지 내가 담당한 군의 한개 농장이라는 책임감때문만이 아니라 여기처럼 땅이 척박하고 농사가 잘되지 않는 우리 나라의 모든 산골농장들에서까지 다수확의 전망을 열어놓고싶은

육당때문에... 선애동무에게 모진 요구를 했던것인데... 이렇게 리해를 합쳐주니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습니다.》

《이 룡산땅에서 저의 한생이 다 흘러갈수도 있다는걸... 생각해보셨는가요?》

《각오하고있습니다. 그렇잖아도 결원되어있는 이곳 기사장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제기할 결심입니다.》

《예?!》

선애는 깜짝 놀라 눈덕을 치켜들었다.

침묵속에 두사람의 시선이 격렬한 접전을 일으켰다. 그것은 뜻과 뜻의 합침, 정과 정의 합침이었다.

마침내 선애는 자기와 영수의 결심이 달리는 될수 없는, 꼭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되는 운명의 필연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혼 혼해졌다. 그리고 또한 자기들 두사람은 일생 떨어져선 안될 가장 가까운 벗이며 둘의 존재로써만 하나의 열매를 낳을

수 있는 가장 친근한 탐구의 길동무라는 확신으로 가슴이 부풀었다.

그는 끝없이 마음 즐거워짐을 느끼며 벽에 걸린 기타를 벗겨들었다.

《영수동무! 오늘은 어쩐지 동무의 기타소리를 듣고싶군요.》

《알겠습니다, 연구사동지! 어느때든 명령만 내리십시오. 이 조수는 연구사동지의 명령에 언제나 충실할것입니다, 하하...》

웃음소리와 함께 드르륵— 화음이 울리었다.

이어 세련된 악기의 선율과 함께 노래가 울리기 시작했다.

잔잔한 파도에도 씻기여가는

그 자욱 인생의 흔적이던가

...

## 유모아

### 《헤밍웨이씨, 넥타이를 사주십시오》

미국의 소도시의 어느 한 백화점에서는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넥타이를 많이 팔았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백화점에서 산 넥타이를 매고 다녔다.

백화점지배인은 유명한 작가 헤밍웨이가 자기 백화점의 고객으로 되어준다면 자기 상품이 더 인기를 끌것이라고 타산했다. 그래서 헤밍웨이에게 우편으로 좋은 넥타이를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써보냈다.

《우리 백화점에서 파는 넥타이는 누구나 즐겨 매고 다닙니다. 우리는 당신도 우리 백화점의 명예손님이 되시여 이 아름다운 넥타이를 받으시고 그 값으로 2달러를 보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얼마후 그 백화점에서는 소포를 하나 받았는데 그속에 있는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있었다.

《내가 쓴 책은 누구나 즐겨 읽는답니다. 나는 당신들이 나의 작품의 명예독자로 되시여 이 재미나는 소설책을 받으시고 그 값이 2달러 80센트이므로 80센트를 보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헤밍웨이.》

## 경구, 격언

○ 《행복이란 자기의 정신적힘과 육체적힘을 사회를 위하여 유감없이 바쳤다고 생각할 때 느끼는 보람인것이다》

○ 《로동으로부터 자신을 해방하는것은 범죄이다》

○ 《땅에서 뽑아 모래불에 내동댕이친 식물이 살수 없듯이 사회밖에서 개인의 행복이란 있을수 없다》

○ 《애국주의란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뜻을 가지고있다. 애국주의는 조국과 떨어져 살수 없다는 자각이며 조국과 고향을 같이하며 느끼는 감정이다》

○ 《모든것에 만족하고 좋은것을 더 좋은것으로 만들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은 모든것을 잃게 된다》

○ 《위대하고 진정한 사업은 언제나 단순하고 소박하다

## 호수가 마을의 배사공

김길손

## 먼저 하는 이야기

해방이 되었지만 호수가마을사람들은 자기들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왜놈세상에서 지지리 놀리우고 짓밟히우며 못 살던 정상을 그대로 보여주듯 혹— 하고 입김만 불어도 당장 허물어져버릴것처럼 쪼그리고앉은 고삭은 초가집들의 좁다란 마당에는 눈밑에 받고 랑갈은 주름살이 폭폭 패워들어간 동네늙은이들이 매일 모여앉아 귀맛 동하는데라곤 한마디도 없는 객적은 소리들만 늘어놓곤 했다. 그러다가는 독한 씨레기가 담겨진 담배대통을 입에 문채 꾸르륵꾸르륵 대진을 뚫이며 먼산만 쳐다보기가 일쑤였다. 젊은이들은 또 그들대로 뭘 좀 아는것이 있는것처럼 벌스레 어깨들을 으쓱하며 이집저집 우르르 몰려다녔지만 그저 그럴뿐이었다. 괜히 코를 훌쩍이며 따라다니는 조무래기들과 바싹 여윈 불강아지들만이 범벅을 이루며 종일 발뚱뚱치에서 북적대곤 했다.

이것이 바로 해방을 맞은지 얼마 안되는 호수가 마을의 구태의연한 모습이였다. 호수가마을사람들이 이렇게 세상형편에 압둔한데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다.

검충충한 산발이 깎아지른듯 한 절벽을 이루며 마을뒤에 구궁같이 솟아있어 사람들의 발길이 그 쪽으로는 아예 불을수가 없는데다가 앞으로는 둘레가 이삼십리는잘될 깊고 푸른 호수가 구부러진 오이모양을 하고 마을을 길동그렇게 감쌌다.

호수는 또 넓기도 했다. 하다보니 호수가마을은 망망대해에 외롭게 내던져진 섬같아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호수를 건너가면 저쪽기슭과 잇대인 바로 코앞에 변화한 읍거리가 있다.

거기엔 제법 도회지맛을 부리려고 거드름을 뽑는 자그마한 주철공장도 있고 역한 술냄새를 널어놓는 양주공장이며 읍변두리엔 또 화학공장까지 틀고앉아있다. 거기다 울긋불긋 천통구리들을 쌓아놓고 사람들의 눈뿌리를 잡아뽑는 가게점이며 한웅큼에 다 그러절것 같이보이는 자질구레한 밥집, 떡집, 지짐집에 형형색색의 별의별 난가게들까지 길목이 비좁게 바투 앉아있어 왜정때부터 어느 하루도 인파가 그친적이 없었다.

읍거리가 아무리 인파로 붐비였어도 호수가마을에는 목때도 못 씻는 살림에 쪼들리워가는 알쭉한 가난뱅이들만 살고있었다. 물에 빠지면 주머

니부터 뜰 호수가마을사람들이라 이들한테 읍거리와 거래할 변변한 그 무엇도 없었다. 근년에 어느 한 물산객주가 호수를 건너왔던적이 있긴 있었다. 거간해먹을 물건이 없나해서 마을의 이구석 저구석을 휘휘 둘러보던 그가 사람들이 사는 꼴을 정 못 봐주겠던지 마침내 허를 한발이나 되게 내두르더니 줄행랑을 놓다싶이 돌파서 가버렸다. 했는데도 호수에는 나루배가 하루도 번지지 않고 떠다니였다.

그 배에 술한 사람들이 타고 다니었는데 그들 중 대부분이 호수가마을사람들하곤 꼬물만큼도 인연이 없는 읍거리의 주철공장이며 화학공장, 양주공장을 손에 쥔 왜놈자본가들과 그놈들의 턱밑에 붙어사는 졸개들이였다.

이자들은 읍거리에 질게 떠도는 화학공장의 유해가스를 피해 호수너머 이쪽에 번듯한 양옥집들을 지어놓고 살았다. 불모지와 같다고 생각했던 이곳에 희한하게도 경치가 기막히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 호수가마을에서 얼마간 옷쪽으로 올라가 느라면 따가운 온천물이 흰 김을 서리며울리며 솟구쳐나는 《온수굴》이라고 하는데가 있었다. 호수가의 맑은 물결이 기슭을 살살 어루만져주고있는 그곳엔 보기만 해도 가슴이 시원해지게 길차게 자란 송백들이 사시절 푸른 숲을 펼쳐놓고있는가 하면 봄에는 살구꽃, 돌배꽃이 흰눈이 무너져내린것처럼 하얗게 피어나 코언저리가 쟁해나도록 달고도 단 꿀향기로 술한 벌떼들과 온갖 나비를 불렀고 땡벌이 정수리를 지글지글 내리지지는 삼복에도 얼음처럼 찬 기운이 청신하게 떠돌았다. 고려 말기에 력대의 왕들하구는 달리 그림그리기를 무척 좋아했다는 어느 한임금의 신하들이 왕이 멋들어진 그림을 그리는데 알맞는 가경(경치가 뛰어나게 아름다운 곳)을 찾아 나라의 각 처를 돌던 때가 있었다고 한다. 그때 이쪽지방을 훑어내려오던 한 신하가 호수가 저편기슭에 멋어선채 눈이 휘둘리울 정도로 한쪽의 그림을 방불케 하는 온수굴경치에 그만 넋을 잃은 나머지 제가 서있는 곳이 물인줄도 모르고 털썩 주저앉으며 무릎을 내리쳤던적이 있었다고도 하는 하나의 일화비슷한 이야기까지 전해졌었다. 왜놈들은 자기족속들과 졸개들외에는 누구도 그곳에 얼씬하지 못하게 했으며 어쩌다 호수가마을사람들이 제놈들과 함께 나루배를 탄 경우에조차 눈을 부라리며 애꿎은 트집이라도 잡지 못해 안달아하

군 했다. 해방후 왜놈들이 쫓기워가고 나라에 아직 《산업국유화법령》이 발포되지 않은 공간을 리용하여 왜놈턱밑에서 붙어먹고 살던 어중이떠중이들이 군자치권을 틀어쥔 일부 나쁜 놈들과 결탁하여 읍에 있는 주철공장이며 화학공장, 양주공장들은 물론 온수골의 양옥집들까지 저들의 소유로 만들기 위하여 매일이다싶이 배를 타고 뺏질 나게 드나들었다. 하다보니 호수가의 나루배는 여전히 배부른자들의 소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저러한 원인들로 하여 호수가마을사람들은 해방이 되었어도 세상이 어떻게 달라져가는지 모르고있었던것이다.

돌연, 이들의 까막눈이 탁 트이고 먹구름이 확 열리는 희소식이 전해왔다. 그것은 며칠전에 읍에서 온 우편배달부가 전해준 소식이었다. 실은 왜정때 한달에 한번도 겨우 볼가말가했던 그 우편배달부령감이 이곳 호수가마을에 왔다간지 사나흘도 못되어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자체가 이 마을의 큰 화제거리로 될만 한것이였지만 그가 전해준 소식 또한 비할바없이 충격적인것이였다.

그 소식이란 우리 민족의 영명하신 령도자 김일성 장군님께서 며칠전 평양모란봉공설운동장에서 개선연설을 하시였는데 장군님께서 그 연설에서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건국사업에적극 이바지하여야 하며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민주를 사랑하는 전 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해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는것이였다.

《웁거니!》

젊은이들은 울방자를 틀고있었던 무릎을 철썩 소리나게 두드리며 일어섰고 순간에 가슴이 확 달아오른 젊은이들은 그길로 호수를 건는 다음 읍으로 막 밀려나갔다. 그들과 한배를 타고 읍으로 돌아가던 우편배달부가 소리쳤다.

《이보게들, 몽땅 읍으로만 가면어쩔텐가? ... 편지글 한자 뜯어볼줄 모르는 까막눈들이... 어디 가서 뭘 제대로 하겠대구, 쫓쫓...》

달아오른 가슴을 들먹이며 읍으로 향해진 길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젊은이들의 귀에 우편배달부의 말이 들어갈리 만무하였다. ...

그들이 뛰쳐나간 다음 또 한사람의 젊은이가 읍으로 달려나갔는데 그가 바로 호수가마을의 배사공 박봉철이였다.

## 다시 돌아온 배사공

《넌장! 그 청승맞은 울음소리 당장 그치지 못하겠냐? 이젠 해방이 되었는데도 저년한텐 무슨 놈의 귀신이 들었기에 노상 얼굴을 싸쥐고있는지, 듣기 싫다!》

방안에서 딸의 등뒤에 대고 하는 아버지의 욕설이였다. 하지만 우물정자로 사개를 꼭 물리여 박아넣은 토방문나무살이 터져나가도록 쏘아져나오는 아버지의 걸죽한 욕설도 밖에 있는 딸의 울음소리를 그치게 하지 못했다.

까뭇하게 말라드는 일사귀들을 소리없이 떨구어가며 마당 한구석에 쓸쓸한 모습을 하고 외롭게 서있는 돌배나무에 등을 기댄채 순영은 그냥 슬피 울었다.

《에이구, 저 어진게 오죽이나 속에 재가 앉았으면... 령감이 좀 나서서 봉철이 녀석의 속내를 알아보면 못쓴다오?》

이번에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한숨섞인 꾸념이다.

《저, 저? ... 배속가마에서 죽이 끓는지 밥이 끓는지 열마디에 한마디 대답도 들어볼수 없는 물귀신같은 녀석의 속통머리를 어떻게 알아낸다구 그래?》

로친의 편잔이 오히려 령감의 부아증만 더 돋구어놓았다.

순영은 배사공 봉철이와 석달전 약혼한 사이였다. 그들의 운명은 지난해 여름 비가 억수로 퍼붓던 어느날 호수우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엇혀졌었다. 순영은 마을의 몇명 안되는 남정네들이 읍으로 뛰쳐나갈 때 그속에 자기의 랑군도 섞여있는것을 보며 저으기 마음이 설레었다.

옛날사람들처럼 한뼘 머리엔 갈명덕을 쓰고 벌에 절고 바람에 부대끼우며 반나마 드러나있는 어깨엔 굵은 배천으로 만든 념마같은 두렁치를 허리어방까지 쭉 내리드리워결친채 온수골왜놈들을 배에 실어나르며 짐승만도 못한 구박과 멸시를 받아왔던 그도 인젠 사람속에 끼우게 되였다. 이름 못할 기쁨이 사무치게 갈마들어서였다. 봉철은 원래 이곳 태생이 아니였다.

온수골로쫓아온 왜놈들이 배사공을 구하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제발로 찾아온 외지사람이였다. 그때 봉철의 나이는 열다섯이였다.

소문에는 그가 읍거리사람도 아니라고 한다.

읍에서 얼마 멀지 않은 어느 벽촌에선가 살았는데 산골지주놈들의 욕심 메돼지같다고 악착하기로 소문난 그곳 지주놈때문에 랑부모는 골병들어 죽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마저 굶겨죽인 후 하루아침에 방랑아가 되었다고 한다. 그때부터 봉철은 이곳 마을에 었혀사는 배사공이 되었다.

열다섯치고는 장정 못지 않게 뼈대가 굵고 힘썩이나 쓸것 같은 그를 왜놈들은 군말없이 제놈들이 타고다닐 배의 사공으로 받아들였던것이다.

봉철은 호수가마을에서 얼마간 떨어진 곳에 초가마리같은 집을 짓고 혼자 살면서 누구하고도 가까이 하려고 하질 않았다.

그렇게 십년세월이 훨씬 지났다. ...

《저... 순영이, 이놈도 읍에 나가 무슨 일이든

해야겠어. ... 힘을 바치는거라면야 뭐 얼마든지... 허허...》

읍으로 나가던 날 봉철은 순영이앞에서 입을 땀글썩해가며 어줍게 웃어보였다.

천상 가야 그 입에서 말 한마디 들어볼수 없었고 더우기 웃음이란것은 어디다 떨궈두고 세상에 나온 사람처럼 늘 음울한 표정을 짓고 살던 그가 해식게나마 입을 베투룩해보이자 순영은이 사람한테도 웃음구멍이라는것이 있긴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노리가 다 알알해났다.

《거기서 그렇게 생각했다니 전 더 바랄것이 없어요. 건국사업에 땀을 바치겠다니 그이상 기쁜일이 또 어데 있겠어요. 저도 인차 뒤따라 나가겠어요.》 순영은 구리빛 도는 그의 실박한 어깨를 미덥게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그런데 이틀도 못되어 그가 다시 마을길로 텅 텅텅 텅 되돌아올줄이야?...

《어찌자구?!...》

순영은 자기 집 마당으로 아무런 주저도없이 씨엥씨엥 들어서는 봉철이를 두근거리리는 가슴을 꼭 눌러가며 불안스레 쳐다보았다.

눈이 별스레 크고 코마루가 우뚝 솟은데다 입술까지 두툼한 봉철은 그 무거워보이는 입술에 빗장을 지른듯이 꼭 다물고 선채로 순영이가 묻는 말에는 일언반구 대답없이 왜서인지 온수골쪽을 묵묵히 넘겨다보기만 하였다.

마치나 그쪽에 갔다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온 사람처럼 눈을 둥그렇게 뜬채 멍청해서 쳐다보는 모양이 하도 청승스럽게 느껴져 순영의 가슴속으로는 불쑥 알지 못할 서러움과 노여움이 솟구쳐올랐다. 일은 그후부터였다.

다음날 봉철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마을에 나돌기 시작했다.

그가 마을에 다시 나타난것은 온수골에 드나드는 부자놈들을 위해 배를 끌러고 왔다는것이였다.

어쩔 세상에 그런 험담도 있단 말인가?

순영은 풍문에 떠도는 그 말을 믿을수 없었다.

아니, 애당초 믿으려고조차 하질 않았다.

그는 절대로 그럴수 없었던것이다. 그날 순영은 저희 집 삼작문열에 박은듯이 서서 이제나저제나 봉철이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믿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소문이 난 이상 본인을 만나 속 시원히 물어보고싶었던것이다. 마음같아서는 그를 먼저 찾아가고싶었지만 아직 성례도 치르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남정들을 찾아다니는것이 어마지무한 일같아 차마 그럴 용단만은 내리질 못했다. 웃고름을 구겨진채 애타게 기다렸건만 봉철은 어둠이 눈앞을 가리울 때까지도 종시 나타나질 않는다. 봉철은 순영이와 인연을 맺은 후부터는 그의 집에 거의 번지는 날이 없이 들리곤 했다. 저녁마다 노대를 메고 지나는 길에 들리곤 했는데 어떤 날

은 호수에서 건져낸 어물궂미를 마당앞 돌배나무 가지에 말없이 걸어놓고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몇홉 되나마나한 좁쌀이나 수수쌀 같은것을 구해가지고와서는 토방돌우에 놓아두기도 했다. 나루배를 부리는 짬에 언제 산에 갔겠는지 한짐씩 나무를 해지고 들어서는 저녁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순영은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얼굴도 들지 못한채 죽물이든 사발을 조심스레 내밀곤 했다. 그러면 봉철은 아무 말도 않고 헌헌스레 죽그릇을 받아서는 보란듯이 후룩후룩 마셔버린 다음 두렁치를 벗어놓고는 이것저것 손이 닿는대로 무슨 일이든 하곤 했다. 휘영청 밝은 달빛이 집둘레를 어롱어롱 비쳐가는 그런 저녁이면 순영은 봉철이 벗어놓은 두렁치를 무릎우에 가져다놓고는 해진 곳을 기워가며 그의 뒤모습을 정갈게 바라보곤 했다. 비록 말없는 봉철이었지만 순영은 그의 모습에서 자기에 대한 웅심깊고도 살뜰한 정을 매번 아릿하게 느끼곤 했으며 그 마음에 온갖 시름을 다 잊곤 했다.

해방을 맞은 이 어간엔 나루배를 끌러고 나가는 이른아침에도 가끔 들리곤 한다.

그런데 오늘은 왜 보이지 않을까?...

차츰 순영의 마음은 불안스러워났다. 그가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는것으로 보아 혹시 우정 피하려고 그러는것은 아닐까?...

순영은 저도 모르는 사이 슬그머니 얼굴이 붉어졌다. 지금껏 봉철에 대해 의심하거나 다른 생각을 가져본적이 단 한번도 없었던것이다.

하지만 어둠이 내려앉는 밖에 벌써 몇시간째 외롭게 서있자니 그에 대한 믿음은 점차 무거워지는 어둠에 눌리우기 시작했다. 그러자 한권구석으로 밀려났던 불안스러운 마음이 다시금 머리를 들었다.

호— 순영은 가늘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틀도 못되어 다시 온거랑, 묻는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온수골쪽을 명해서 바라보던 얼굴이랑, 왜 그런지 눈앞에 자꾸 떠오르며 사라지지 않는다. 순영은 두눈을 꼭 감으며 설레설레 머리를 저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동네에 나도는 소문이 귀전을 파고든다.

순영은 꿈속에서 헤매이다 갑자기 현실로 돌아왔을 때처럼 감았던 눈을 떴다.

그럼?!... 그러니 부자놈들의 시중을 들어주려 왔다는 말이 사람들이 제나름대로 지어서 하는소리가 아니구 정말이란 말인가?...

밤새 속에 재를 엮어가던 순영은 다음날 어둑새벽 누구도 몰래 호수가나루목으로 조용히 나갔다. 떠도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좀 있어 그가 여기 나루가로 나타날것이다.

또안 물안개가 호수가에 감겨드는 이른아침이어서 그런지 산뜩산뜩한 가을바람이 팔소매로 스며들었다. 비릿한 물바람이 안개발을 휘젓자 키높



이 자라오른 기슭의 갈대가 몸을 비비며 와스스 설레기 시작했다. 그 소리에 눈앞의 나무턱에 이 물코를 올려놓은 나무배가 흠칫흠칫 놀라며 출렁이는 물결에 흔들리었다.

배 밑창에서 찰락찰락 물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그 어떤 불길한 예감을 던져주는 소리처럼 순영의 가슴을 허비었다.

순영은 축축한 물가에 웅송그리고앉은 다음 시름에 잠긴 눈길을 호수우에 던졌다.

그때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여럿이 주고받는 소리였다. 질은 안개발에 휩싸여 누구들인지 뽕영계 모습들이 보여왔으나 목소리만은 가려들을수 있었다. 순영은 사람들의 눈에 띄우는것이 싫어 인츰 자리를 일었다. 다음 갈대숲에 몸을 가리우며 귀를 강구었다.

《...글쎄 그 〈갈명덕〉이 노대질을 그만두고 읍으로 내뺄적엔 호수를 매일 반나절씩이나 에돌아다닐 생각에 다리맥살이 풀리는것 같더니, 흥! 이틀두 못 넘기구 제발로 다시 돌아올줄이야...》

《거... 안할 걱정을 한다니... 그간 자식 없다가 아무러면 우릴 실어나를 배사공 한놈 가져다놓지 못할가봐?》

《하... 당신은 시세에 영 깜빡이라니까. 솔직히 말해 해방이요, 건국이요 하고 떠드는 때에 그래 어느 바보가 우릴 위해 곰상곰상 배를 끌어줄상 싶소? 내 그러지 않아 저 〈갈명덕〉이 달아뺀 다음 호수가마일에 내려가 배를 부릴만 한 놈을 두루 탐문해보자니까 글쎄 모두 눈에 불을 켜고 쏘아보더라니...》

순영은 가슴이 철렁했다. 호수가에 나타난것은 온수골에 드나드는 눈꼴사나운 그놈들이었던것이다. 이제는 그자들의 모습을 선명히 가려볼수 있었다.

두세명쯤 되여보인다. 순영의 귀가로 또다시 그자들이 지껄이는 수작질이 들려왔다.

《헌데 이자식 왜 나타나질 않아? 배를 끌어주겠다고 약속했으면 일찍 나와 불박혀있을노릇이지...》

밤색골덴천으로 만든 납작모자를 눌러쓰고 승곳처럼 생긴 바지를 입은 몸이 갱뽕해보이는자나 나무배를 발로 탁탁 건드리며 씹어뺄듯이 하는말이었다. 그자의 량쪽귀 우로 쪽 치켜져 올라간 뺨새눈에서 쥐는알같은것이 줌스럽게 팽글팽글 굴러다니었다.

《아니, 그 녀석이 정말 약속했던 말인가? 배를 끌어주겠다고?!... 거 무슨 〈계약〉같은건 없었구?》

축 처진 메주불에서 허여멀건 살덩어리가 흔들거리는자가 뚱뚱한 몸집에 어울리지 않게 신경을 쫓쫓이 세워가지고 《뺨새눈》을 뜯어보며 묻는말이었다.

《물론 그... 그런거야 없었지요.》

어딘가 모르게 판전을 피우는것 같던 《뺨새눈》

의 눈이 별안간 호수가마을쪽으로 굴러가 딱 멎어섰다. 오막살이가 널려져있는 마을을 쏘아보는것 같은 그자의 눈가에 살기가 뻗쳐올랐다.

표표한 그 눈빛에 순영은 간담이 서늘해났다.

했으나 순영은 언제 그런것에 마음을 쓸경황이 없었다. 순진한 처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잡혔던 믿음이 줄지에 허물어져내리었다.

(결국 헛소문이 아니었구나. 아, 이를 난 어쩌면 좋아. )

순영은 입술을 피가나게 깨물었다.

(그럴수가 있는가? 부자놈들을 그처럼 미워하던 그가 어쩌면?...)

순영은 아무리 생각을 곱씹어해도 봉철이를 도무지 리해할수가 없었다.

문득 지난해 여름에 있었던 일이 가슴굽을 지지며 파고들었다. 그날도 지금처럼 여기 호수가에 서 뜸부기가 처량하게 울던 이른아침이었다.

...순영은 자그마한 보통이를 가슴에 껴안은채 낮모를 사람과 함께 나무터에 서있었다.

몇백리밖에 있다는 어느 방직공장 녀직공으로 팔리워가는 길이었다. 그를 데리고가는자는 콩마당에 넘어졌었는지 얼굴이 온통 곰보자욱으로 승승했고 기름을 게발랐는데도 부수수하게 일어선 머리털때문인지 속에 잔뜩 구정물을 안고있는것처럼 보였다. 거기다 순수 일을 시킬 녀직공을 모집하러 다닌다는자의 눈빛이라든지이 꼭 색을 먹은 눈처럼 음탕하고 게걸스레 희번뜩이었다.

그 눈길이 한번씩 몸에 와닿을적마다 꼭 구렁이가 가슴으로 슬슬 기어가는것 같은 끔찍한 생각이 들었다. 처음 순영의 아버지와 본인인 순영이도 그자의 요구를 딱 잡아땀었다. 생겨먹은것도 그래, 늘어놓는 수작질 또한 모두 거짓말같이 께름해났던것이다. 설사 그렇지 않다한들 기약할수 없는 외지로 어찌 선뜻 발걸음을 내짚을수 있단 말인가? 했으나 순영은 며칠후 곰보를 따라나서지 않으면 안될 가궁스런 처지에 빠져버렸다. 늘 가슴앓이로 앓고있는 어머니의 병이 요즘 더해갔다. 때없이 경련이 오며 낮색이 하얗게 질리고 손발까지 가드라드는것이 꼭 무슨 재난을 가져올것만 같아집에 쫓기운 순영은 더 다른 생각을 할사이 없이 눈앞의 돈에 손을 가져갔다. 그길로 약을 사다냈더니 어머니의 얼굴에 화기가 돌기 시작했다.

스적스적 안개발을 헤치는 발자욱소리가 났다.

배사공이었다.

그때까지도 순영은 배사공 봉철이와 같은 마을에 산다는것밖에는 별다른 인연이 없었다.

누구한테도 속을 주지 않고 언제 봐야 혼자있기를 좋아하는 그에게 호수가마을사람들 역시 곁에 가기를 꺼려했다. 그날따라 배사공총각은 어깨에 넘적한 노대와 함께 긴 자루가 달린 삼지창같은것을 메고 나왔다.

무슨 일때문인지 몹시 초조한 빛을 얼굴에 담고 배사공을 기다리고있던 곰보가 삐죽하게 날이선 삼지창을 흘끔흘끔 곁눈질해보았다.

배사공총각이 메고있던 노대와 삼지창을 배밑창에 뿌려던지듯이 내려놓았다. 그런 다음 기슭의 말뚝에 비끄러냈던 바줄을 풀어서 손에 와락 문그려쥐더니 노대가 있는 곳에 핵 내던졌다.

그 바람에 밑창에서 찰락거리던 물이 후두둑 튀어나며 먼바로 곰보의 얼굴에 들썩워졌다.

대바람에 오만상이 된 곰보가 배사공을 마뜩잖게 보다가 흠칫 굳어졌다. 성난것 같은 배사공의 검은색 얼굴에서 그때 마침 쏘는듯 한 눈길이 곰보의 얼굴을 정면으로 찌르고있었던것이다.

무엇인가에 대한 불쾌감을 이기지 못해하는 그런 눈빛이었다. 배사공의 얼굴처럼 어둡컴컴한 하늘에서 먼 우뢰소리가 불안스레 들려왔다.

동안을 두고 먹장같은 구름떼가 서로 밀치기내기를 하며 달음박질해왔다. 울스산한 날씨때문인지 오늘따라 나루가엔 배를 타려고 나온 온수골 왜놈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얼음처럼 차가워보이는 배사공의 눈길이 곰보의 얼굴에서 서서히 떨어지더니 그대로 순영의 얼굴을 스쳐지났다. 그것은 전에 마을길에서 이따금 지나칠적마다 얼핏얼핏 띠여보곤 했던 음울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동정이 가군 하던 그런 순박한 눈빛이 아니었다.

무엇때문일까. 왜 그럴까? 순영은 활랑거리는 가슴을 손으로 그러쥐고 가까스로 생각을 모아갔으나 밤중같은 배사공의 속내를 도무지 들여다볼수가 없었다. 배사공총각이 천천히 몸을 움직여가며 배에 올랐다. 다음 발부리에 놓여진 굵직한 장대를 집어들어 물속에 박아세우더니 말없이 이권을 지켜보았다. 떠나자는것 같았다.

좁 있어 나루배가 스르륵 밑창이 굽히는 소리를 내며 물에 뗏다. 삐걱삐걱 노젓는 소리와 함께 배가 지나는 물에 푸른 물결이 량쪽으로 느슨하게 갈라지면서 발이랑 썰듯이 줄줄이 물결이 일었다. 배는 어느덧 안개속을 헤치며 호수가운데로 들어섰다. 별안간 귀전에 휘익! — 하고 휘파람소리같은것이 들려오더니 저쪽 옷목에서부터 새바람이 터져나왔다. 그러자 배전을 휘휘 감돌며 따라서던 안개발이 덴갑을 하듯 흩어지기 시작했고 너울너울 물이랑을 짓던 호수가 갑자기 번덕을 부리며 파도를 일으키더니 귀뺨을 치듯이 철썩덕철썩덕 배전을 갈겨댔다. 뒤따라 후두둑 하고 굽은 비방울이 떨어졌다. 미구하여 썩— 소리를 내며 대줄기같은 비가 억수로 퍼붓기 시작했다. 가로세로 엇바꾸어 누워가며 쏟아져내리는 폭우에 갈기를 세운 호수가 여기저기 물결을 뿌려던지며 성난듯이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어— 배를 빨리 몰아야지 이리다 변을 만날것 같다…》

곰보가 배사공의 잔등에 대고 은근히 재촉하는 소리였다. 그 순간 배가 똑 멋어서며 기우뚱거렸다. 핵— 배사공이 머리를 돌리었다.

그가 곰보를 무섭게 쏘아보고있었다.

흙빛으로 변한 얼굴에서 황황 눈불이 인다.

《자, 자네… 왜 그렇게 보나?》

곰보가 기여들어가는 소리로 말했다. 그 소리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배사공이 저어가던 노대를 쏙 뽑아올리더니 배전에 팽개치듯 내던졌다.

다음 천천히 몸을 굽히더니 삼지창을 집어들었다.

《당신은 여기서 내리오.》

배사공의 입에서 나온 너무도뜻밖의 소리였다. 낮으나 적의감이 어린 그의 목소리에 곰보의 눈이 화등잔만 해졌다.

실로 청천벽력같은 말이라 아니할수 없다.

《내리다니?!… 자네 지금 실성…》

《내리라지 않소!》 배사공이 곰보의 말허리를 끊으며 버럭 고함을 질렀다. 천둥같은 그 소리와 와들 놀란것은 순영이었다. 배사공의 입에서 것처럼 큰 소리가 나왔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았던것이다. 배사공총각이 삼지창을 짝 틀어천채 까딱 않고 서있었다. 억수로 쏟아지는 굵은 비줄기가 그가 하늘을 향해 곳곳이 세워잡고있는 비수같은 창끝에 부딪쳐 산산이 흐트러져버린다.

번쩍! 번개발이 내리쬘졌다. 그러자 푸른 섬광이 확 하고 덜썩워지는 배사공의 얼굴이 무서운 괴한의 모습처럼 시퍼렇게 드러나보였다.

《삼일전 이 배를 타고올 때 저 온수골것들한테 뭐라고 말했소? 내 그 말을 다 들었소. 그래서 내리라는거요! 내리지 않았다는…》

곰보를 뚫어질듯이 노려보는 배사공의 두툼한 입술이 분노로 움쭉움쭉했다. 뭘 들었다는걸가? … 창황중에도 순영의 가슴속엔 견잡을수 없는 의문이 짙 차올랐다.

《그… 그 소리를?!…》 곰보의 얼굴이 갑자기 해쓷하게 질리더니 눈가죽이 파르르 떨었다.

배사공총각이 삼지창끝을 천천히 곰보의 가슴복판으로 가져갔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제발 죽을 죄를 졌으니 한번만 살려주시오, 한번만!…》

곰보가 갑자기 배사공의 발부리에 털썩 꿇어엎디어 손을 짹짹 밀었다. 했으나 배사공의 얼굴은 점점 더 험악하게 이그러져갔다.

《사람으로 나가지구 어떻게 그런짓을 할수 있는가 말이요. 차라리 없어지는게 낫지.》

배사공총각이 쓴웃음을 지으며 창끝을 곰보의 가슴앞으로 더 바짝 가져갔다.

《사람 살리오!— 사람 살리오!—》

곰보가 와닥닥 몸을 일으켜세우더니 고래고래 소리질렀다. 비소리, 바람소리, 귀청을 찢는 천둥소리가 그 비명소리를 순간에 삼켜버리었다.

판이 글렀다는것을 안 곰보가 《첩병!》하고 땅바닥에 주저앉듯이 호수에 떨어져내렸다.

그냥 죽기보다는 혜염이라도 쳐보자는 단말마적인 생각인것 같았다.

(어째서 이러는가?)

순영은 몸을 떨었다. 배사공총각이 무엇때문에 그렇게 분격해하는지, 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지, 곰보는 왜 또 기가 질려 헤엄치며 제발로 물속에 떨어져내리는지 도무지 영문을 알수가 없었다. 파도를 일으키는 시커먼 호수가 먹이감을 가지고 놀듯이 곰보를 물속으로 꺼들었다, 밖으로 내밀었다 하며 혼을 쭉 뽑아버리더니 덩석 삼켜버리었다. 배전에 우뚝 서서 그 모양을 덩덤한 표정으로 내려다보던 배사공총각이 씩— 하고 황소숨을 길게 내긋고나서 손에 다시 노대를 바꾸어잡은 다음 배머리를 돌리었다.

순영이쪽에 결눈 한번 던지지 않은채 마을이 있는 방향으로 수직수직 배를 몰아가는 그의 입은 다시 예전처럼 꼭 다물려있었다. 무서운 악몽에 짝 짓눌리운 순영의 온몸은 경풍을 만난것처럼 와들와들 떨려났다. 배가 기슭에 와 멎었을 때 비는 그사이 서슬스럽던 기세가 한풀 꺾이여 줄금줄금 내리기 시작했다. 느릿한 동작으로 기슭의 말쪽에 바줄을 비끄러맨 다음 노대와 창살을 메고 몇자욱 옮겨가던 배사공총각이 그때까지 배전을 꼭 움켜쥔채 일어설념을 못하는 순영에게로 머리를 돌리었다. 한동안 말없이 지켜보던 그의 입에서 밀도 끝도 없는소리가 침울하게 울려나왔다.

《거기선... 속히왔소. 저놈은 투쟁이요.》하고는 다시 스적스적 가버렸다.

그날 배사공총각이 자기를 어떤 끔찍한 마수에서 구원해주었는지 순영은 후에야 알았다.

호수에 빠져죽은 곰보는 봉철의 말대로 투쟁이었다. 이놈은 곳곳을 싸다니며 인물고운 녀자들을 그럴듯한 꼬임수로 꺾어서 데리고가서는 돈많은 놈들의 구역질나는 품에 차례돌림으로 안겨주는 못된것을 업으로 삼고있었다. 우연히 호수가마을에까지 기여든 곰보는 그때 마침 기슭에서 끼니거리로 먹을것을 뜯고있는 순영이를 눈에 띄어봤다. 순간 곰보의 입이 찢어지듯이 벌려지더니 음탕한 눈길로 순영의 온몸을 덤벼치며 훑어갔다. 쭉 빠진 몸매, 하얀 살색에 버들잎같은 얼굴, 애간장을 녹이며 저고리동정안으로 살쾅이 감추어지는 부드러운 목언저리...

계절스레 침을 흘리던 곰보가 나루배를 같이 타고온 작자들에게 지켰었다.

《분명 이 호수에서 살고있을 물귀신이 만들어냈어! 저렇게 고운 계집을 데려다 섬겨바치면 소열짜값은 먹여놓은거야! 흐흐흐...》

그날 곰보는 제놈이 지킬이는 수작을 뒤에서 배사공이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다 듣고있으리라

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

이런 일이 있는 후부터 순영의 눈에 배사공총각의 모습이 때없이 자꾸만 비쳐들어왔다.

누구한테도 속을 주지 않고 그저 시키는 일을 수직수직 해가는것을 볼 때면 마치도 세상 번두리에서 인간의 모든 감정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같이 생각되기도 했다. 비록 가난뱅이로 업수임을 받으며 살지만 그에게도 그릇된것을 보고는 참지 못하는 대갈은 마음이 곳곳이 간직되어있음을 목격하고났을 때 순영은 그가 생명의 은인으로뿐만 아니라 모질고 험한 세상풍파속에서 앞으로 자기를 보호해줄 믿음직한 사람으로 느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던것이였다. ...

그렇게도 믿어왔던 사람이 부자들의 배를 끌어주려 다시 오다니? ... 순영의 눈가에 핑 하고 흐릿한것이 차올랐다.

《나타났어!》

《뱀새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순영은 손으로 눈굽을 훑친 다음 마을쪽으로 나있는 길에 시선을 가져갔다. 예전처럼 머리에 갈명덕을 쓰고 어깨에 노대를 올려놓은 봉철이가 호수가에 나타났다.

《이보게, 우릴 위해 또다시 수고해줘야겠구만.》 방금전까지 《갈명덕》이요 뭐요 하며 눈에 독을 품고 지껄이던 상판은 간곳없이 짝 사라져버리고 별스레 상냥한 웃음을 얼굴에 담으며 《뱀새눈》이 말했다. 순영은 신경을 모으며 봉철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런데 봉철은 《뱀새눈》의 것처럼 상냥스러운 말에 아무 대꾸도 없이 걸음을 멈추어서더니 호수가에 서있는자들을 썸을 세듯이 한사람한사람 여겨보았다. 봉철에게 있어서는 전에 없던 행동이였다. 왜 그럴가? 약속은 했다지만 정작 배를 끌어주자니 이제 와서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 처사가 못된다는것을 느껴서일가?

순영은 숨을 죽인채 봉철이를 지켜보았다.

다시한번 부자놈들을 훑어보고난 그가 배 띄울 준비를 하였다. 순영은 한가닥 희망마저 허물어져 버리는듯 했다. 점잔을 빼며 한곳에 몰려서있던자들이 슬렁슬렁 배전으로 다가섰다.

바로 그 찰나, 봉철이가 팔을 벌리며 그자들의 앞을 막아섰다.

《아니, 왜 이래?!》

둥그래진 눈들이 봉철이에게 쏘렸다. 술한 눈길들이 몸에 와 박히였으나 봉철은 그냥 앞을 막아 선채 말이 없었다. 순영은 바짝 긴장되였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때 장승처럼 한곳에 딱 버티고서있던 봉철이가 불쑥 입을 열었다.

《배삯을 안 내겠소?》

처음 순영은 자기가 그의 말을 잘못 들었으리라 생각했다. 너무도 뜻밖이었던것이다.

했으나 주위에서 켜해진 눈길들이 서로 맞부딪치며 굳어지는것을 보았을 때 순영은 그것이 사

실이였음을 알았다. 처녀의 얼굴은 삽시에 하얗게 질리었다. 두번째로 밀려든 세찬 파도가 가슴속의 모든것을 강그리 빼앗아갔던것이다.

순영의 귀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배... 배삯이라는건?!...》

《메주불》이 세상에 나 그런 말을 처음 들어본다는듯이 입을 하 벌리며 떠뜰떠뜰 묻는 소리였다.

《난 원래 당신들을 태워줄 생각이 없소. 하지만 약속대로 배삯을 낸다면... 태워주겠소.》

《허! 이런 량반 봤나? 약속이라니. 그거야 배사공이 배를 끌어주겠다구 약속하지 않았는가 말이야.》

《배값을 받구 태워주기로 약속했소!》

봉철이가 잡아떼듯이 말하며 《뱀새눈》쪽으로 눈길을 가져갔다. 배사공이 누굴 녀두에 두고 말하는지 제각 알아맞힌 가시박힌 눈들이 그리로 날아갔다.

《내 어쩐지 배사공과 했다는 약속이 요강뚜껑에 물을 담아 마실 때처럼 껌처럼 녹았다 했더니... 뭐 그러구두 <계약> 한것이 없다? 흥!》

《메주불》이 속은것이 분한듯 《뱀새눈》을 노려보며 씩씩 돼지숨을 뿜아갔다.

지금껏 판전을 피우며 모르쇠를 하던 《뱀새눈》이 더는 빠질 구멍이 없게 되자 얼굴에 교묘한 웃음을 지으며 한걸음 앞으로 나서더니 가살스럽게 말했다.

《글쎄, 내 생각은 이렇다니까... <계약> 이라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사이에서 하는 일이지 한갓 배사공하구야 무슨 <계약> 이겠시까. 그까짓 배삯이래야 몇푼되겠다고 <계약> 이요 뭐요 하겠는가? 내 그래서 배삯을 물겠다구 헛헛스레 약속했다니까! 아 도량이 넓으신 어르신네들이 이젠 왜 늙세상때하구 달라진 멋두 있어야 하잖겠소? 해방이 되었는데 배사공이라구 그냥 허리끈을 조이며 살갔슈? 돈만 있으면 금수강산이요 돈 떨어지면 적막강산이라 우릴 위해 고마운 일을 해주는 이 총각두 해방덕에 돈맛을 봐야 하지 않겠는가?... 글쎄 내 생각은 이렇다니까!》

《뱀새눈》이 돈소리에 력점을 찍어말하며 열성스레 봉철의 편을 들었다. 눈밑에 삶의 웃음을 감추어가며 부지런히 지껄이는 그자의 수작이 도무지 가을더위처럼 미덥잖아보인다.

《흥,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린색하기로 소문난 입자의 진짜속심이 뭔가 말이야?》

《메주불》이 무슨 죄목을 따지고들 때처럼 도끼눈을 해가지고 쏘아보았다. 그러거나말거나 《뱀새눈》이 성수가 나서 봉철에게 말했다.

《배사공! 값이 얼마지 어서 부르께.》

《갈 땐 1원이구 돌아올 땐 50전이 더 불소!》

《뭘뭘?!... 아니 무슨 놈의 배삯이 그렇게 다락처럼 높아져?》

모두 입을 딱 벌렸다. 좀 있어 ㅎㅎ 하고 심기가 울곧잖은 기침소리들이 연방 터져나왔다.

《싫으면 그만두시오. 당신들은 돈때문에 배를 타고 나다니구 한푼이라두 주머니에 더 넣자구 어떤 날엔 밤이 깊어서야 돌아오지 않소. 어느 누가 늦은 밤까지 나루배를 끌어주겠다는 사람이 있겠소? 이 배가 없어보오. 당신들은 술한 돈을 뿌리며 호수를 에돌아다녀야 할거요. 그러니 그만한 값은 받아야겠수다!》 봉철이가 내쫓듯이 하는 말이었다. 순영은 것처럼 조리있게 말하는 봉철이를 여직 한번두 본 일이 없었다.

읍에 갔다와서인가?... 읍에 갔다 이틀도 못되어 다시 돌아온 사람이 저렇게도 달라질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급작스레 달라진 봉철의 모습은 순영에게 기쁨이 아니라 슬픔만을 더해주었다.

《웁게 말했네. 지금 누가 그렇게 하겠단 사람이 있나. 자, 나부터 2원 50전이지요!》

《뱀새눈》이 재빨리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갑을 꺼내들더니 보란듯이 빨각빨각 돈을 세여 척 쥐여준 다음 배에 올랐다. 그러자 나머지것들도 더는 어쩔 도리가 없었던지 울며 겨자먹기로 배에 달라붙었다. 봉철은 받아낸 돈을 몇번이나 세여보았다. 그리고는 품속에 깊숙이 찔러넣었다.

봉철은 지금 나루배에 올라앉아있는자들속에서 자기 뒤를 무서운 눈길로 까딱않고 쏘아보고있는 자가 있다는것을 알수 없었다.

순영은 봉철이가 돈을 세여갈 때 그의 얼굴에 늘 담고있는 침울하고 무뚝뚝한 표정대신 이름할수없이 밝은 빛이 확 하고 떠오르는것을 놓치지 않았다. 나루배는 기슭을 떠났다.

봉철의 모습도 나루배도 안개발에 휩싸여 점차 순영의 눈앞에서 희미해져갔다.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살풍경한 바다기슭에 외로이 앉아있을 때처럼 순영은 텅 빈 가슴을 부여잡은채 넋없이 한곳을 바라보았다. 찬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다가올 겨울을 예고하는 어수선한 바람에 놀란듯 호수가의 갈대들이 설렁이었다.

순영은 일어설 맥조차 없었다. 피로움에 짓몰리워가는 순영의 가슴은 점점 타들었다.

눈썹리가 지지는듯 아파나더니 따가운 물기가 눈가에 가득 차올랐다.

(돈을 받다니? 부자놈들의 배를 끌어주는것만도 통분할 일인데 돈에 욕심까지 내다니?!...)

집으로 돌아온 순영은 방구석에 몸을 내던진채 슬피 울었다. 딸의 이야기를 듣고난 어머니는 차마 미련을 버릴수가 없는지 《에그... 뭐가 된지 알겠냐?》이렇게 한마디 하고는 부엌으로 훌쩍 나가버리고말았다. 담배쌈지를 끄르는 아버지의 입에선 이따금 방바닥이 꺼지도록 한숨소리만 들려올뿐 다른 말이 없었다.

그럴 때 마을사람들이 순영이네 집으로 찾아왔다. 이즈음 호수가마을에서는 학교를 세우는 문제

를 가지고 매일 순영이네 집에 모여앉아 공문들을 했다. 호수가마을사람들에게는 세월을 두고 내려오며 가슴속에 돌이끼가 덮이도록 묻어두고있는 소원이 있었다. 그것은 글공부는 둘째치고라도 글공부하는것을 옆에서 한번 실컷 구경이라도 해보는것이였다. 얼마전에 다녀갔던 우편배달부가 왜정때 읍내 소학교에서 훈장노릇을 했다는 사람까지 하나 데리고 사나흘후에 다시 나타나 이 마을에도 학교를 세우는것이 장군님의 개선연설을 받드는 길이 아니겠느냐고 좌상로인에게 바람을 불어넣고 간 것이 빌미가 되었던것이다. 학교공문은 냈지만 찜지게 가난한 마을이다보니 학교로 쓸만 한 건물이라곤 단 한채도 없었다. 당장 새로 짓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였다. 사람들이 방안에 들어서다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촉하고 주춤거리자 그때까지 입을 다물고있던 순영의 아버지가 딸에게서 들은 소리를 털어놓았다. 모두 눈들이 둥그래졌다.

듣기가 거북스러운 그 소리에 끝끝하고 혀를 찰는 축들도 있었다. 한동안 어색한 기운이 머리에 떠돌았다. 그때 마을의 좌상로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내 보기엔 봉철이가 그런 사람이 아닌것 같네!》

《예?!》 모두의 놀란 눈길이 좌상로인에게로 향했다. 좌상로인이 사람들을 둘러보며 제 자식자랑 하듯 말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하신 개선연설소식을 들은 그날 봉철이 그 사람이 날 찾아왔었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인즉 자기는 뭘 가지구 건국사업에 보탬을 줘야 하는가구 묻더군요. 그때 그 사람의 순박한 얼굴에는 눈물까지 글썽해있더라네!... 생각들해보라구. 아무렴 그 눈물이 거짓이었겠나. 난 그 사람이 제 염상이나 채우자구 돈을 모은다고는 생각하고싶지 않네.》

처음엔 기연가미연가하던 동네사람들이 봉철이의 사람됨에 대해 머리를 끄덕이더니 나중엔 모두들 영 좋아들 하며 저마다 좌상로인의 말이 옳다고 한마디씩 했다. 이때 부엌사이문이 방싯 열리더니 기쁨속에 눈굽을 짙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고 이쪽에선 방구석에 앉아있던 순영의 얼굴에 해살이 퍼지는것 같은 밝은 웃음이 함뿍 피어올랐다. 봉철에 대한 따뜻한 정이 순영의 가슴속에 다시금 봄기운처럼 되살아났던것이다.

좌상로인이 좌중을 둘러보며 다시금 입을 열었다.

《이왕 학교공문으로 모였던바이니... 그럼 이렇게 하세. 어느 집이나 살림이 가난한것은 뻔한것이구... 어떻게 해서나 까막눈신세를 면해야 하겠은즉 남너로소 가림없이 학교세우는 일에 떨쳐나서야겠네. 몇이 남지 않긴 했어두 젊은이들은 래일부터라도 당장 학교세울 터를 잡아야겠고 중

로배들이나 우리 늙은것들도 물고기나 나무라도 해다 팔아 돈을 보태야겠어. 아낙들도 보고만 있지 말고 하다못해 산채나 산열매라도 따다 팔아야 도리가 될것 같네. 바루 그렇게 하는게 요전날 우편배달부가 전해준 김일성장군님의 개선연설의 뜻을 따르는게 아니겠나. ...》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며 좌상로인의 말에 공감을 표시했다.

## 깊은 물은 소리가 없다

봉철이가 다시 나루배를 끌기 시작해서부터 한 주일가량 지났다.

순영은 요즘 봉철이가 돌아올 시간이 되면 호수가 외따른 곳에 조용히 지켜서있다가 그와 함께 나란히 마을어귀로 들어서곤 했다.

봉철은 그놈들에게서만은 매일 한푼도 굶지 않게 배삔을 받아내곤 했다.

그놈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배삔을 낮추든가 뚜꺼먹으려고 별 모지름을 다 써봤지만 봉철은 들은척도 안했다. ...

보름달이 호수수면을 거울처럼 밝게 비쳐서인지 먼발치에서도 순영은 그의 모습을 환하게 가려볼수 있었다. 오늘도 봉철은 버릇처럼 돈을 몇번이나 세여보더니 하얀 종이같은데 싸서 품안에 깊숙이 넣었다. 나루터가 조용해지자 순영은 그에게로 다가갔다. 허리를 구부정한채 배를 기슭으로 끌어올려다 붙이던 봉철이가 발자욱소리를 듣고 머리를 돌리었다.

순영은 한동안 말없이 옆에서 일손을 도와주었다. 얼마간 시간이 흘렀을 때 순영이쪽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며칠전부터 물고싶었던것이 있었는데... 돈을 왜 그냥 몸에만 가지고있어요?》

날이 감에 따라 봉철의 앞가슴이 점점 불룩해지는것이 눈에 인차 띄우곤 했던것이다.

순영의 묻는 말에 봉철이가 하던 일을 멈추고 허리를 펴더니 이쪽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하더니 혼자소리처럼 말했다.

《돈이 자꾸 불어나는게 기뻐서!... 이게 어떤 돈이요?》

봉철이가 입을 열자 순영은 호기심이 바짝 동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이제 그 돈을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마다 기쁨과 희망에 넘쳐새 조국 건설을 위해 밤잠을 자지 않고 땀흘려 일해가고있다는 소식이 새라새로이 전해지고있는 때에 벌써 열흘 가까이 하고있는데도 순영이 자기한테는 물론 어느 누구에게도 말조차 않고있으니 은근히 조바심이 났던것이다. 봉철은 크고 시원해보이는 눈을 슬며시 생각에 잠기며 마을쪽을 바라보았다.

푸근한 달빛이 아늑하게 비쳐가는 속에 조용히 잠자고있는 호수가마을에 눈길을 없어가던 봉철의 얼굴에 일순 희열이 넘쳐났다. 그것은 읊으로 뛰어나갈 때 보았던 모습과 꼭 같았다.

봉철은 그때처럼 입을 비주룩해보이며 띠엇띠엇 말했다.

《머칠 있으면… 생각했던것만큼 돈이 찰것 같은데… 그때 가서 말하겠소.》하고는 두툼한 입술을 꼭 닫아버린다.

순영은 그이상 다른 말을 듣지 못하리라는것을 알고 생각을 단념했다.

《순영이!》

봉철이가 불쑥 그를 찾았다.

《예?!》 순영은 얼굴에 대답했다.

지금껏 자기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정색해서 찾은적이 없었던 봉철이었다.

억실억실한눈이 순영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봉철의 얼굴이 갑자기 불그스레해지기 시작했다.

순영은 가슴이 호드득 뛰기 시작했다.

《밤인데두…》 봉철이가 떠듬거리며 말했다.

《…거기 눈은… 밤인데두 굵구만. …》

갑자기 왜 이런담?!… 봉철이를 쳐다보는 처녀의 까만 눈동자가 처음엔 놀라움으로 굳어지더니 차츰 겁먹은듯이 그 어떤 애절함까지 어리어 파르르 떨었다.

《그래서 이걸루 고운 눈이랑 얼굴이랑 비쳐보라구… 뭐 좋아하겠는지…》

봉철이가 격해오르는듯 한 숨결을 누르며 순영의 손을 앞으로 쑥 끄당겨가더니 무엇인가 쥐여 주었다. 동그스름한 손거울이었다. 호— 순영은 가늘게 한숨을 내쉬었다. 순영은 난생처음으로 자기 손에 거울을 가져보았다. 유난히도 밝은 달빛에 대낮처럼 얼굴넋짝이 나타났다.

버들잎같은 얼굴, 하얀 살결, 정기가 흐르는 눈동자… 순영은 화답닥 놀랐다. 봉철이를 다시 쳐다보았다. 비로소 자기의 모습을 알게 된 처녀의 눈동자엔 이번엔 그 어떤 야속함이 어리는듯싶다. 순영의 가슴속에 문득 웅석기가 살아올랐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응?!》 봉철이가 꺾쩍 놀라며 거울을 뺏아들더니 투박한 손으로 쑥 문다졌다.

《잘 보이는데…》

거짓을 모르는 총각의 순진함에 입을 싸쥐고 살며시 웃어가던 순영은 한순간 가슴이 짜릿해났다. 그가 투박한 손으로 거울을 쓸어갈 때 순영은 자기를 품어주고 살뜰히 어루만져주고싶어하는 파스한 정을 느껴 가슴굽이 저려왔던것이다. …

다음날 호수가마을에 멧쟁이 신사가 한명 나타났다. 하얀 양복을 쪽 빼입고 반질반질 윤이 흐르는 토색구두를 받쳐신은 그의 등에 모두의 경멸

하는 눈빛이 날아가 박혔다.

뜻밖에도 그 신사가 봉철이를 만났다.

놀라운것은 둘이서 장시간 마주앉아무슨 말인가를 수군덕이는것을 확실하게 보았다는 사람이 있는것이다. 봉철이와 여러 시간 이야기하던 양복쟁이가 얼굴이 시퍼래가지고 돌따서가는것을 보았다고도 한다. 누굴까? 누구기에 하필이면 그 사람을 만날진 뭐고 시퍼래서 갔다는건 또 뭘까?…

순영은 또다시 겁이 덜컥 났다. 순영은 제발 이번엔 봉철에 대한 판 말이 돌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했으나 순영의 생각과는 달리 양복쟁이가 왔다간 다음날부터 호수가마을에는 봉철에 대한 좋지않은 소문이 또다시 퍼지기 시작했다. 마을에 왔던 양복쟁이가 그의 먼 친척벌되는 사람인데 읊에서 포목상을 해먹는다는것이다.

더우기 놀라운것은 봉철이가 나루배를 끌러 마을에 다시 온것도, 배삯을 받기 시작한것도 바로 그 친척이라는 사람의 꼬드김을 받고 그랬다고들 했다. 아마 돈을 모아 고스란히 포목상이라는 친척에게 섬겨바칠거라며 허를 찼다.

그것은 죄다 사실이였다.

나쁜 말은 천리밖에 난다고 봉철이가 읊에 나가서 한 일이 어느결에 마을에까지 짹 퍼졌다.

…그날 뒤미처 읊에 나온 봉철은 무작정 달려나오긴 했어도 어딜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여기저기 왔다갔다하며 촌답처럼 기웃거리기만 했었다. 그러다 얼른 생각나는것이 여기 어디에 룽촌인가칠촌인가 하는 친척이 있다는 소리를 들은 기억이 났다. 고생스레 수소문하여 간신히 찾아냈다.

《그런 친척이 있었던가?…》

다 해진 두령치를 걸치고 우습강스럽게도 머리엔 갈명덕까지 쓰고 찾아온 봉철이를 이 무슨 거러진가 하여 몸을 비썩하고 시답잖게 훑어보며 건승대강 이야기를 들어가던 양복쟁이가 별안간 얼굴이 확 밝아지더니 생색을 내기 시작했다.

《가만!… 자네 이자 나루배를 끈다고 했는가? 온수골에 드나드는 그놈들도 매일같이 태우고 다닌단 말이지?》

눈을 가늘게 쏘프리고 생각을 굴러가던 친척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봉철의 손을 잡아끌어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참, 지금 생각해보니 나한테 그런 친척이 있었던것 같네! 자, 앉으라구. 배고프겠는데 조금만 참게.》

잠시후 자개박이를 한 커다란 두리반상이 앞에 놓이고 그우에 구경조차 할수 없었던 별 희귀한 음식들이 겨끔내기로 오르기 시작했다.

봉철이가 무슨 영문인지 몰라 멍청해있는데 친척은 눈물겹게도 손에 수저까지 쥐여주며 정이 찰찰 넘치게 말했다.

《안됐네. 내 일단 내 일이라구 하다보니 호수가 마을에 살밭은 친척이 있는줄 알면서도 한번 찾아가보지 못해서 말일세. … 허허, 지나간 일은 오늘 이 겸상으로 다 잊을셈치구 자, 어서 들기부터 하게. …》

앞에 바짝 다가앉아 부지런히 섬겨대는 그의 말에 봉철은 머리가 다 멍할 지경이었다.

봉철은 난생처음 통승한 대접을 받아보았다.

상을 물리고났을 때 그가 자기의 속생각을 터놓았다.

《오늘 날 찾아여기에 오기를 정말 잘했네. 도와줘야지. 도와주구말구!… 자넨 지금 세상살이에 어둡다나니 약차한 돈줄을 쥐고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있네. 읍에 나와봤댔자 그래 뭘 하겠나? 건국? 힘? 헛! 허허… 도루 가게! 왜 놀라나?… 가서 다시 배를 끌란 말일세! 배를 끌되 돈을 받으란 말일세! 이를테면 배삯이지… 비싸게 받아내라구. 놀라지 말게. 일없네. 항차 그 온수골에 드나드는자들은 왜놈세상에서 똥땅거리며 살던것들이니 배값을 받는다구 해서 두려울것두 뭐 죄될것두 없네. 그렇게 해서 돈이 모아지면 다시 만나자구, 허허… 모름지기 거기서 뽑아내는 돈이면 입자 그 머리에 갈멍덕이 아니라 맥고모를 쓰고 살수 있다이. 헌데 명심할것은 나하구 앞으로의 일을 의논하기 전엔 절대로 돈을 한푼도 써서는 안된다는걸세. 뭘 다르게 생각진 말라구. 임자를 위해 그러는것이니 꼭 내가 시킨대루 하라구. 알겠나? … 허허, 재삼 말하지만 호박이 떨어져서 장독으로 바로 들어가는 일인줄 알구 꼭 나루배를 다시 끌게.》

장황스러운 그의 말에 놀라기도 하고 머리를 기웃거리기도 하며 침묵을 지켜가던 봉철이 이렇다저렇다 말 한마디 없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갑자기 자리에서 훌쩍 일어섰다.

그리고는 꾸벅 인사를 한 다음 밖으로 나갔다.

…그 소문까지 나돌 때 순영은 다시금 가슴이 와르르 허물어져내렸다.

아무리 말은 하는데 달려있지 않고 듣는데 달려있다고들 하지만 이번만은 너무도 명백하지 않은가?…

어둠이 내리깔리는 마당가에서 순영은 돌배나무에 그냥 기대고 선채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

순영은 방금 아버지가 말한대로 해방이 되었는데도 자기는 왜 노상 얼굴을 싸쥐고있어야만 하는지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했다.

고패치는 슬픔과 피로움으로 순영의 가슴은 발기발기 찢어지는듯 했다.

《음, 음… 그 녀석이 왜놈들과 부자놈들을 줄창 싣고나르며 돈소리를 들어오더니 끝내 환장을 했어. 실성을 했지. 그런줄도 모르고… 어허이

구!…》

방안에서 아버지의 탄식갈기도 하고 울기가 뻔 친것갈기도 한 소리가 또다시 들려왔다.

그 소리가 밤하늘을 괴롭게 흔들었다. 바로 그 시각 나루터에선 참으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있었다. 오늘따라 나루배엔 호수에서 잡은 물고기와 산열매 등속을 팔러 읍내 장에 갔던 마을사람 한 둘과 웬 낫모를 사람 둘셋이 더 타고왔다. 꼭같이 검은색 가죽잠바에 승마바지를 입은 그자들은 하나같이 얼굴에 칼자욱이 나있었다. 몹시 경계하는 듯 하면서도 무엇인가 덮치려는것 같은 눈빛이 어딘가 모르게 자객같아보였다. 배에 오를 때 그자들은 봉철이가 말도 꺼내기 전에 어떻게 알고있었는지 저희들이 먼저 배삯을 척 꺼내놓았다. 나루배가 기슭에 와닿자 별스레 우물거리며 나중해야 내린 그들은 온수골쪽이든 마을쪽이든 아무데도 갈 생각을 않고 한열에 비켜서서 담배불을 붙여물었다. 함께 타고온 마을사람들이 이상한 눈길로 그들을 훑쳐보며 마을쪽으로 사라져갔다. 인적이 뜸해질무렵, 부드러운 미소를 보내던 머리위의 둥근달이 갑자기 무엇을 보고 놀랐는지 구름속으로 얼른 자취를 감추어버리었다. 그와 동시에 딱 붙어서서 성급하게 담배질을 하고있던자들중의 하나가 얼핏 머리를 저으며 어둠속에서 무슨 눈짓인가를 했다. 그러자 마주서있던자가 입에 물고있던 담배를 신경질적으로 내뱉아버리었다.

다음 노대를 메고 앞서가는 배사공의 뒤를 슬렁슬렁 따랐다. 남아있던자가 어디론가 어둠속으로 슬그머니 꼬리를 사리며버리었다. 얼마간 왔을 때 소리없이 배사공의 뒤에 다가붙은자가 그의 어깨를 툭 건드리었다.

우뚝 멈춰선 배사공이 천천히 머리를 돌리었다.

차가운 웃음이 비낀 얼굴이 배사공을 마주 본다. 한동안 배사공의 아래우를 훑어보던 그자가 픽 하고 웃었다.

《뭘 구래여 피를 보지 않아도 되겠어. 이봐, 너 같은건 상대가 되지 않기에 신사적으로 말하는데 돈을 내봐. 열흘동안 털어낸 배삯이 300원은 넘겠지? 순순히 내놓으면 그냥 물러가겠단 말이야.》

봉철은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이 덤덤한 표정으로 칼자욱이 나있는 험상을 여겨봤다.

그렇됐구나, 아까부터 이상하게 논다 했더니…

헌데 배삯을 받는다건 어디서 알았을가?

날자수까지 계산하고있는것을 보니 웬만큼 돈을 먹고온 놈들같지 않은데… 뭘 돈을 내라?…

그 누구의 가벼운 청탁을 물리칠 때 처럼 서서히 머리를 젓고난 봉철은 다시 돌아서서 침착하게 걷기 시작했다. 뜻밖에 너무도 태연자약한 배사공의 행동에서 그 어떤 위압감을 느꼈는지 뒤

가 잠잠했다. 그때 봉철의 눈앞에서 밤여우같은 그림자가 일썌하더니 《서라!》하고 찢어지는 소리가 울리며 또 다른 놈이 그를 막아섰다.

놀랍게도 《뱀새눈》이었다. 구름을 헤치고 나온 달빛에 그자의 손에 쥐여진 비수가 번뜩이었다. 이놈은 어떻게 여기에 나타났을까?

《무섭지 않다? 흥, 꽤 담이 큰데… 돈을 내놓으면 그동안 배를 태워준 은공두 있구 해서 목숨만은 놔둘려고 했네만 그것두 필요없다? 그럼 둘 다 가지는수밖에…》

《네놈이 생각해낸짓이었구나. 어쩐지 내쪽을 억성들때부터 간지럽다 했더니…》

빛장을 지르듯이 꼭 다물려있던 봉철의 입이 드디어 열리었다.

《그랬을테지. 각을 떠서 매 밥을 만들어도 씨원치 않을 이 〈갈명덕〉놈아! 네까짓것이 갑부가 되어 갈비트림을 하며 살라고 돈을 쥐? 내가 왜 그랬는지 대주마. 무당서방처럼 공짜를 좋아하는 네놈이 잔뜩 돈을 뭉게 한 다음 그걸 내가 가지자구 그랬다. 이젠 알겠지?》

《뱀새눈》이 비수든 손을 머리로 번쩍 쳐들었다. 미처 어쩔사이없이 《탁!》하는 소리와 함께 봉철이가 아니라 《뱀새눈》이 《에쿠!》하는 비명소리를 내지르며 비수를 들었던 손을 다른 손으로 싸쥐었다. 획 하고 재차 허공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뱀새눈》이 이번엔 얼굴을 그려쥐었다.

봉철의 손에 잡혀있던 쇠판대기같이 넘적하고 든든한 노대가벼락같이 휘둘리우며 그자의 팔목과 상통을 답새기었던것이다. 몸을 픽 돌린 봉철이 이번엔 손때묻은 노대를 방망이 다루듯 하며 뒤로 덮쳐드는 놈의 배매기를 냅다 떠박질렀다. 급소를 번바로 찔리웠는지 가죽잠바가 《헉!》하고 모두숨을 쏘으며 허리를 푹 꺾었다.

《한두름이라두 나서보라!》

눈을 떠 부릅뜬 봉철이가 황소처럼 지그시 뻗치고 선채 주위를 둘러보았다. 한놈이 더 있었는데, 한놈이?…

《천치처럼 어리숙하다더니 판관 다른걸!》 바로 옆에 있는 갈대숲에서 무척 배포유한 수작질이 들리었다.

《나서라!》어둑속을 쏘아보는 봉철의 입에서 바위를 쪼갤것 같은 노성이 울리었다.

《오냐, 나서마!》

갈대들이 마구 꺾이우더니 또 다른 가죽잠바가 그속에서 후닥닥 뛰쳐나왔다. 그놈의 손에도 시퍼렇게 날이 선 비수가 들려있었다.

봉철은 경멸과 조소가 어린 쓴웃음을 지으며 그놈을 노려보았다. 둘은 얼마간 사이를 두고 빙글빙글 돌아갔다. 그때 마을쪽에서 벽적 떠들며 이쪽으로 다급히 뛰어오는 사람들의 발자욱소리

가 들려왔다.

《쌩!—》

이발을 으드득거리며 씨벌이고 난 가죽잠바가 급해맞은 속에서도 전문 해먹던 동작을 취하며 봉철이에게로 날아들었다.

《쩍!—》

그자의 정수리에서 골이 빠개지는 소리가 들리는것과 동시에 봉철이도 비칠거리었다.

가죽잠바가 나가넘어지면서 봉철의 잔등에 칼을 들이박았던것이다. 비칠거리던 봉철이가 몸을 가누며 우뚝 섰다. 하늘을 향해 머리를 쳐든 그가 천천히 손을 올려 앞가슴을 꼭 그러잡으며 갈지자로 걸어갔다. 다시 곳곳이 서있던 그가 아름답리나무가 넘어지듯 서서히 쓰러졌다.

뒤미처 마을사람들이 화불을 켜들고 달려왔다. 읍에 장보러 갔던 사람들이 그자들의 행색이 아무래도 이상해보여 곧바로 순영이네 집에서 호수에서 베여온 갈로 노전을 걸고있을 좌상로인에게로 달려갔던것이였다. …

잔등에 피가 즐벅하게 내배인 봉철은 가까스로 의식을 차리었다. 이윽하여 그가 눈을 떴다.

눈길을 더듬더듬 옮기며 누군가를 찾는다.

터져나오는 오열에, 쏟아지는 눈물에 앞가슴이 젖을대로 젖은 순영이가 입술을 깨물며 봉철의 손을 잡아쥐었다. 흐릿해가는 눈으로 순영이를 바라보던 봉철이가 그를 알아보았는지 순영의 팔을 힘들게 끄당겨 자기의 품속에 넣어준다.

순영은 그가 무엇때문에 그러는가를 알았다.

순영의 손에 흰눈처럼 하얀 백로지에 싼 목직 한 돈이 들리워졌다.

봉철은 가까스로 숨을 끌어올려 툭아가더니 입술을 파들파들 떨며 말했다.

《오늘… 말하자고 했는데… 이 돈을… 마을에… 학교를… 짓는데… 써주오.》

어헉! 하고 옆에서 놀람과 흐느낌이 섞인 소리가 들려왔다. 순영의 팔목을 그러잡은 봉철이가 힘을 모아가며 반쯤 몸을 일으켜 앉았다.

《학교를… 지을 때… 우리… 호수가마을에도… 그분이… 꼭…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

뜻밖의 소리에 모두들 굳어졌다.

봉철의 얼굴이 달빛으로 환했다. 주위를 둘러보고난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읍에… 나갔던 날… 뜻밖에도…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싸운 투사동지 한분을 만났습니다. …》

이렇게 가까스로 입을 뗀 봉철은 누구도 모르게 묻어두었던 가슴속 사연을 터놓기 시작했다.

…그날 포목상을 하는 친척집에서 나온 후에도 할 일을 찾지 못해 읍거리 한권구석에 그냥 서만 있던 그를 만나준 그 투사동지는 봉철에게 하나



하나 일깨워주었다.

호수가마을에도 새 조국 건설을 위해 할 일이 얼마든지 있다, 우선 학교부터 세워서 아이들도 어른들도 글을 배워야 한다고 하면서 글을 배워야 봉철동무같이 천대받던 사람들도 장군님의 개선 연설을 참답게 받들어 새 조국 건설에서 한몫 할 수 있다고 차근차근 가르쳐주었다. ... 봉철은 자기같은것한테까지 《봉철동무》라고 깽뚝이 존대하여 불러주자 눈곱이 뜨거워오름을 어찌할수 없었다.

《...난 . . . 그분이... 말한대로... 꼭... 그렇게 ... 하리라... 열반두... 더...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말하고난 봉철은 힘이 진해가는지 다시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이 또다시 창백해져갔다. 순영은 와락 봉철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이보세요, 눈을 뜨세요!》

너무도 큰 자책의 아픔에 가슴이 발기발기 찢어지는것을 느끼며 순영은 봉철이를 그려안고 몸부림쳤다.

《왜 대답이 없어요?...들으면서도 그러지요. 다 른 때처럼 들으면서도 그러지요?...》

순영은 실성한 사람처럼 그냥 오열을 쏟았다.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어깨를 떨었다.

《어허이구! 깊은 물은 소리가 없다더니!...》

순영의 아버지가 울대를 삼키는것 같은 끄으소리를 내며 가슴을 텅텅 두드렸다. 그 어떤 기적적인 힘이 심장에 가닿았는지 봉철이가 다시 눈을 번쩍 떴다. 허공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그의 크고 부리부리한 눈에 갑자기 환희의 빛이 빛났다.

그다음 저 멀리 하늘가에 눈길을 꼭 박은채 버주룩이 웃는다. 깨끗한 량심이 피워올리는 순결한 미소였다. 좌상로인이 마을사람들을 둘러보며 통곡하듯 웨쳤다.

《이런 사람은 죽질 않아. 새 조국을 위해 자기를 다 바쳐가겠다는 이런 사람의 심장은 쉽게 멎지를 않아. 뭘 하구들 쏘냐? 빨리 읍에 있는 병원엘 가야지!》

순영의 아버지가 봉철이를 등에 업고 나무가로 달려갔다. 마을사람들이 그의 뒤를 따라섰다. ...

그때로부터 두달후, 호수가마을이 생긴이래 처

음으로 학교가 일떠서 개교식을 열었다. 새롭게 수립된 인민정권의 후원으로 온수골 호화주택을 몰수하여 개건중축한 교사설립에는 박봉철이 피로 모은 돈도 요긴하게 쓰여졌다.

병원에서 그 소식을 전해들은 박봉철의 얼굴에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

## ×

그때로부터 수십년세월이 흘렀다.

오늘 평양의 어느 한 연구소에서 과학자로 일하고있는 박봉철의 만딸이 박사학위를 받고 고향엘 왔다. 백발의 흰머리를 인 김순영은 기쁜 마음을 금할길 없었다. 그는 딸에게 말했다.

《참, 세월두 빠르구나. ... 호수가마을에서 나서 자라 학교엘 다니던 네가 대학을 졸업하고 벌써 박사가 되었구나. 아버지가 이 일을 아시면!...》

순영은 더 말을 잊지 못하고 후더위오르는 눈가에 조용히 손을 가져갔다.

《어머니, 학교엘 찾아가 아버지를 만나보겠어요.》

순영은 어엿하게 성장한 딸을 앞세우고 호수가마을언덕에 높이 솟아있는 학교정문으로 들어선 다음 곧추 연혁소개실로 향했다.

해방후부터 오늘까지 이 학교를 졸업하고 영웅이 된사람들, 이름난 과학자들의 모습이 년대별로 소개되어있는 사진앞에서 어머니와 딸은 걸음을 멈추었다.

맨 옷줄 첫번째 사진에 들은 눈길을 가져갔다.

사진속에서 박봉철이 두툼한 입술을 빙글썩한 채 안해와 딸을 정깊게 내려다보고있었다.

나라에서는 그가 영웅도 과학자도 아니었지만 해방후와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놈들의 폭격에 희생되는 순간까지 호수가마을의 교육사업을 위하여 바친 그의 애국적공로를 높이 내세워 학교 연혁사의 첫 폐지에 올려주었다.

이제 며칠후면 박사가 된 그의 딸도 아버지와 나란히 빛나는 폐지에 오르게 될것이다.

## 민속놀이를 반영한 시가들에서의 형상적특성

문학을 자기 인민의 구미에 맞는 참다운 민족 문학으로 발전시키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문학창작에서 민족성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이다.

자기 인민의 고유하고 우수한 민속생활을 깊이 파고들어가 그 구체적인 생활감정속에서 참신한 종자를 찾아쥐고 시대를 노래할 때만이 참다운 민족문학으로서 자기의 역사적사명을 다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고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적전통을 적극 살렸으며 그것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였다.》**

최근 우리 선군문학은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적전통을 잘 살려 그를 반영한 시가들을 많이 창작함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 그쳐나가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이 가운데서 주목되는것은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속놀이를 반영한 시가들이다.

이러한 시가로서는 우선 시 《웃놀이마당》(김정철 작, 《조선문학》잡지 주체95(2006)년 7호)을 들수 있다.

시는 처음부터 웃놀이판의 광경을 훑어나가며 펼쳐면서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놀이인 웃놀이에 대하여 노래하고있다.

웃놀이는 예로부터 우리 민족이 즐겨하는 놀이로서 가락을 던져서 나오는 수에 따라 말을 움직이며 노는 지능겨루기놀이의 하나이며 남녀로소 할것없이 누구나 다 손쉽게 놀수 있는 대중적인 놀이이다.

...

봄 한철 들에 살며 정성껏 모를 내고  
웃마을 아래마을 펼쳐놓은 웃놀이  
실참마다 참기름 바른 쑥떡은 서로 나누어도  
우승기는 양보 없던 그 승벽 어디 가라

...

시련에서 보는바와 같이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설명절뿐아니라 로동의 실참마다 남녀로소 한데 어울려 즐거운 민속놀이를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하나로 합쳐가며 우수한 문화를 창조하여왔다.

시는 이렇게 매 시줄마다에 민족적정서가 넘쳐나게 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고유한 놀이로서의 웃놀이의 특성을 잘 살리였다.

시는 또한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민속놀이인 웃놀이에 바탕을 두면서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천만군민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파감히

뚫고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령마루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오늘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있다.

...

정은 나누고 마음은 합쳐선가  
웃마을이 쏘하면 아래마을 춤이 덩실  
손에 손을 맞잡으니 신심이 넘쳐나  
아래마을 모가 나면 웃마을 북이 뚝뚝

...

계속하여 시에서는 웃놀이 즐겁다고 하면서 《장군님은덕으로 우리 민속 꽃피니》 웃가락이 오를수록 하늘은 높아지고 웃말이 달릴수록 산천은 밝아진다고 노래하고있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경애하는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간직하고 혁명적량만에 넘쳐 그 모진 시련과 난관을 웃으며 헤쳐왔던것이다.

시는 이러한 감정을 승화시켜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덕으로 우리 민속 꽃핀다고 노래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 계시여 제 모습을 잃지 않고 더욱 튼튼번영하는 내 조국의 모습을 《웃가락이 오를수록 하늘은 높아지네/웃말이 달릴수록 산천은 밝아지네》라고 노래하고있다.

이러한 시가로서는 다음으로 시 《〈씨름군행렬도〉》(김정철 작, 《조선문학》잡지 주체94(2005)년 10호)를 들수 있다.

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마련하여주신 《대황소상씨름경기》에서 1등을 하고 돌아온 자기 마을 선수들의 개선모습을 자랑스럽게 펼쳐면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민속놀이인 씨름경기를 긍지높이 구가하고있다.

씨름에서 련승을 하고  
황소를 탄 우리 농장 선수들  
물러꺼라 비켜꺼라 고향땅에 들어서던  
그 《개선》 행렬이  
멋들어진 그림을 세상에 남겼구나

...

시련에서 노래한 씨름군들의 《〈개선〉》 행렬은 정말 그 옛날 어사포행렬도 무색할 가관이다.

씨름에서 우승하여 상으로 받은 황소를 앞세우고 온 마을의 축복속에 기세충천하여 들어서는 일곱명의 씨름군들, 그옆에서 물러꺼라 비켜꺼라 징을 치며 모여선 구경군들 밀치며 길을 띄워가는 선돌이녀석, 그뒤로 마치 자기가 씨름의 제왕인듯 흉내내며 따라서는 장난꾸러기아이들, 정말

한쪽의 그림과도 같은 이 풍경을 그대로 볼수 없  
어 재간둥이 농장직판원이 채치있게 그렸다는  
《〈씨름군행렬도〉》시는 이렇게 조선민족이라면 누  
구나 다 뛰어들어 승부를 겨루고싶어 들썩이는 씨  
름경기를 가벼운 룰동으로 흥취나게 노래하면서 우  
리 민족은 이런 민속놀이를 통해 슬기와 용맹을 키  
워 그 기개 온 세상에 남김없이 과시하였다고 긍지  
높이 노래하고있다.

...

제국주의원썬들 그 아무리 발광해도  
무쇠처럼 두다리 똑 뻗치고 일어서  
《여봐라!—》 세상을 향해 소리치며 사는  
장할시고 저 기개  
나무랄데 없는 조선사람이로다

...

오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립압살하려는 제국주  
의자들과 세계반동들의 책동은 날을 따라 더욱 악  
랄해지고 있다. 그러나 원썬들이 제아무리 발광해도  
위대한 선군령장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우리 인  
민의 기개는 그 누구도 꺾을수 없다.

시는 우리 인민의 이런 기개가 민속놀이를 통해  
서도 뜨겁게 발현되었다고 격조높이 구가하고있다.

시는 또한 고구려벽화의 행렬도와 21세기 《〈씨  
름군행렬도〉》를 대조의 수법으로 노래하면서 인민  
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잘 반영  
하였다.

...

다만 행렬도에 달라진것 있다면  
주인공들 위치가 바뀐것이다  
평범한 농장원이 황소를 타고가고  
리당비서 견마잡고 흐뭇이 웃는  
아 오늘의 풍속도!

보는바와 같이 시련에서는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이된 사회주의 내 조국의 현실을 《평범한 농장  
원이 황소를 타고가고/리당비서 견마잡고 흐뭇이  
웃는》다고 감동깊게 형상함으로써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가슴뜨겁게 노래하고있  
다.

이러한 시가로서는 다음으로 시 《연띠우는 보름  
날》(김정철 작, 《조선문학》잡지 주체94(2005)년 2  
호)을 들수 있다.

시는 정월대보름날 어린이의 심정이 되어 귀여운  
손자와 연줄을 갈라쥐고 연놀이하는 서정적주인공  
의 세계를 룰동적으로 펼치면서 우리 민족의 고유  
한 민속놀이인 연놀이를 긍지높이 노래하고있다.

연띠우기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있는 민속놀이로  
서 종이로 만든 연을 바람의 힘을 리용하여 하늘  
높이 띄우면서 노는 어린이들의 놀이이다.

우리 나라에서 연띠우기는 초겨울부터 시작되었

는데 가장 성황리를 이룬 때는 음력으로 정초부터  
대보름날까지이다. 이때 어린이들은 찬바람 부는 언  
덕에 올라 노래를 부르며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띠우기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하였다. ...

나이가 몇이나 몇이면 어떨소  
좋은 세상 좋은 세월 백발이 무거우랴  
아이어른 오구작작 저마다 제 기쁨  
파아란 하늘에 수놓아가는  
아, 보름날 연띠우는 보름날

...

시는 연놀이가 예로부터 아이들이 노는 민속놀이  
이지만 좋은 세상, 좋은 세월을 만나 비록 늙은 몸  
에도 어린이가 되어 연놀이판에 뛰어든 서정적주인  
공의 격동된 심정을 터치면서 연놀이는 정말 흥겹  
고 즐거운 놀이라고 자랑스럽게 노래하고있다.

원래 연놀이는 우리 어린이들이 새해 정초마다  
자기들의 소박한 소원을 하얀 연에 실어 푸른 하늘  
로 날려보내며 그것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데로  
부터 유래되었다.

시는 연놀이의 이러한 특성을 잘 살려 지난날 몸  
쓸 세상에서는 눈물과 한탄만을 실었다면 오늘은  
위대한 선군령장의 품속에서 행복만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기쁨을 담아내고 훨훨 날고있다고 긍지높  
이 구가하고있다. 그러면서 시는 연놀이하는 아이들  
의 구체적인 형상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어제와 오  
늘 그리고 래일을 신심에 넘쳐 높이 자랑하고있다.

...

둘러보면 무변광야 여기저기서  
그 옛날의 하얀 연들 연줄연줄 떠오를듯  
《살수대첩》의 그 용장도 이 땅에서  
《한산도해전》의 그 명장도 이 땅에서  
이 연줄 잡고 여기서 컸다고

오늘은 장군님의 넓은 품에 안겨  
고이 가꿔가는 내 민족 내 풍속  
원썬들 한발자국 다가만 서도  
번개치고 벼락치는 그 품에 안겨...  
《동방의 등불》은 《세계의 화불》로

...

이렇게 시는 《살수대첩》, 《한산도해전》과 같  
은 력사적개념을 잘 살려줌으로써 함축된 시어속에  
우리 민족의 슬기로운 력사를 잘 반영하였으며 경  
애하는 장군님 계시여 눈부시게 빛나는 선군조국의  
위대한 오늘의 자랑찬 력사를 《세계의 화불》로 표  
현함으로써 태양민족의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  
심을 긍지높이 노래하고있다.

이와 같이 시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민속놀이  
인 연놀이를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 긍지높이 노래  
하면서 결구를 통하여 위대한 선군령장을 높이 모

신 우리 민족의 앞날은 해처럼, 달처럼 더욱 눈부시다고 걱정을 리치고있다.

이러한 사상감정은 시 《웃놀이》(김정철 작, 《조선문학》잡지 주체93(2004)년 7호), 《우리 농장 민속놀이》(한명팔 작, 《조선문학》잡지 주체92(2003)

년 6호) 등에서도 잘 반영하였다. 이렇게 민속놀이를 반영한 시가들에서는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속적특성을 잘 반영함으로써 선군문학의 대화원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하며 높이 올려퍼지고있다.

## 우화

# 박쥐의 달사랑

김성률

은실금실 드리운듯  
보름달 동실 뜬 어느 동산에  
밤새들 쌍쌍이 사랑을 속삭이며 달구경하였네  
사랑에 들뜬 박쥐도 두더지아가씨 찾아갔네

호젓한 숲속길 나란히 걸으며  
박쥐 한껏 멋부리며 시 한수 읊었네  
《오, 하늘에 높이 솟은 밝은 달이여  
내 사랑은 저 달처럼 아름답고 순결하리  
내 진정은 저 달처럼 변함없고 영원하리》

박쥐의 고백에 감동된 두더지아가씨  
보지 못하는 달을 두고 안타까와 속삭였네  
《우리 두더지들은 밤눈이 어두워 그러니  
좀대주세요, 박쥐님!  
나에 대한 당신의 사랑 저 달과 같다면  
그 달이 어떻게 생겼나요?》

두더지아가씨의 살뜰한 물음에  
박쥐 으쓱해졌네  
《아가씨가 볼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  
저 하늘엔 낫가락같이 생긴 초생달도 있고  
송편같은 반달과 쟁반같은 보름달이 있대요  
그 달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당신은  
모를거요》

박쥐의 말에 두더지아가씨 다시 물었네  
《그러니 하늘엔 달이 세개나 떠있는가요?》  
《그렇소. 밤하늘엔 달이 언제나 세개가 떠있대요  
저 은은한 삼형제 달빛에  
삼라만상은 무르녹아 취하고  
풀벌레우는 소리는 더욱 유정해진다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 더욱 설레이게 한대요》

옆에 서있는 나무가지우에 앉아  
그 말을 듣고있던 부엉이가  
터지는 웃음 가카스로 참으며 한마디 했네  
《이보시오, 박쥐님  
당신은 달을 보거나 하고 그런 소릴 하오?》

그 말에 박쥐 몹시 언짢아했네  
《거 뉘시오?  
나한테 그런걸 묻는건 모욕이요  
하늘에 달이 세개나 떠있지 않다면  
왜 모두 초생달, 반달, 보름달이 뻗다고들  
하겠소?》

《이보시오, 앞 못 보는 박쥐님  
이제라도 똑바로 알아두시오  
그리구 다시는 모르면서 아는체 하지 마시오  
하늘에 달은 하나요  
그것이 낫가락처럼 보일 때는 초생달이라 하고  
초생달이 커져서 송편처럼 보이면 반달이라  
한대요  
그리고 반달이 더 커져서  
쟁반같이 보일 땐 보름달이라 한대요》

《아니 그럼?!...》  
그만예야 말문 막힌 박쥐 어쩔줄 몰라  
허둥거리는데  
자초지종 듣고난 두더지아가씨  
분한듯 쏘아주었네 《모르면서도 아는체 하면서  
달사랑으로  
아름다운 나의 사랑 뉘으려던 박쥐님  
밝은 달빛에 그 본색 드러났군요》  
창피해진 박쥐 너무도 부끄러워  
어디론가 뺨소니치고말았네

# 나의 어머니시여

리광선

오늘도 끼니때마다  
이 아들의 수저를 찾아주느라  
잘 보이지 않는 눈을 가다듬으시는  
백발의 어머니시여

이제는 어머니의 그 무릎에서  
손자들도 내린지 오래건만  
마음속엔 아직도 이 아들이  
세살입니까

가슴뭉클해웁니다  
좋은 날 국은 날 가림이 없이  
인생의 곧바른 길을 걷도록  
얼마나 뜨겁고 강毅한 사랑으로  
이 아들을 키워온 어머니십니까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눈보라 사나운 북방의 개발지로  
조국이 청춘들을 부를 때  
남먼저 이 아들의 등을  
서슴없이 떠밀어 보내시던  
그날의 어머니모습

황포한 자연과의 싸움에서  
령하 수습도를 오르내리는 그 흑한속에서  
이 아들의 육체보다  
심장이 얼어들것 같아  
깊은 밤에도 잠 못 드시며  
마음의 불을 끄지 못하시던 어머니

풀죽조차 그림던 고난의 나날엔  
시련앞에 주눅이 들세라  
아침마다 대문가에 따라나오시며  
이 아들의 출근길을

속깊은 눈길로 바라워주시던 어머니

조국이 겪는 시련을 함께 겪으며  
자옥자옥마다 힘겨웁던  
준엄한 그 강행군길을  
어머니는 정녕  
이 아들과 함께 걷지 않았습니까  
  
그때문에 내 때없이 생각하는것은  
자식을 곳곳이 키워  
조국앞에 떳떳이 내세워온  
그 숭고한 수고로움이  
어머니를 어머니로 되게 한것이라고...

진정 어머니의 그 사랑이 심어준  
조국의 귀중한 가슴에 새기고  
그 조국을 위해  
이 아들이 청춘을 바쳐갈 때  
어머니는 그 조국을 위해  
어머니를 바쳐오지 않았습니까

어머니가 놓아주는 수저를  
세살때처럼 들며  
오늘도 계속되는 웅심깊은 그 사랑을  
마음속에 뜨겁게 새겨안으며  
이 아들은 다 자란 오늘에도  
어른으로 성장해가고 있거니

이제는 앓아만 계셔도 힘이 되는  
백발의 나의 어머니  
조국앞에 떳떳한 자식이 되길 바라시는  
그 사랑의 검은 머리는 오늘도 세지 않아  
인생의 참다운 도리를 깨우쳐주고계시는  
아, 나의 어머니시여!

## 사출기, 내마음아

불수록 멋이로구나  
한컬레 또 한컬레  
사출기에서 흘러나오는  
빨강고 파랑고 하이얀 장화

불 때는  
진한 향기 풍기는 꽃송이같더니  
신고 사뿐히 나서면  
발걸음 따라 꽃물결일듯  
맵시도 고운 《아리랑》장화

종구나, 이런 뎨  
날마다 커가는 인민의 기쁨  
한가지 더 보태여가는  
사출공 내 마음에도  
기쁨은 물결로 출렁이고  
일손은 흥겨워 노래도 절로 나라

일을 해도 일을 해도 성차지 않아  
오늘계획도 넘쳐했으니  
꽃같은 우리의 장화  
천으로 만으로 쌓여지여라

한점 티라도 생길세라  
기울여가는 이내 정성  
사출기 네가 다 아는듯  
동음도 고르롭게 울리고울리누나

내리는 찬눈비 다 맞으시고  
길 아닌 험한 길 다 걸으시며  
비오는 날에도 우리 인민에게는  
좋은 길만 펼쳐주시려는  
우리장군님의 사랑이 어려있는  
너는 우리의 기쁨, 인민의 행복

그 사랑에 받들려 그 사랑에 실리어

사출장화 집집마다에 가닿을 때  
웃음소리는 더 높아지고  
비오는 날에도  
우리의 거리는 봄날의 꽃바다 꽃물결  
강성대국의 대문으로향해가는  
우리의 발걸음도 가벼워라

사출기, 나의 기대야  
너 쉬임없이 돌고돌면  
날마다 커가는 인민의 행복  
우리 장군님의 기쁨이 되려니  
아 내 마음 네가 아는  
내 사랑하는 기대, 사출기여!

## 작가일화

# 《나의 혁명》

1917년 7월사변후 마야콥스끼의 시 《붉은 모자  
에 대한 옛말》이 창작되어 나왔다.

로동자와 농민들을 붉은 옷을 입고 기만하는  
반혁명적정당에 예리한 풍자의 예봉을 돌린 이  
시가 7월 30일에 발표되었을 때 멘셰비크신문《예  
진스뜨보》가 격렬한 공격을 가해왔다.

부르조아반혁명적정당의 반혁명성과 변질을 날  
날이 폭로한 시였기때문이었다.

시인은 그들의 나발에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  
는 혁명을 위하여,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철필을  
원췌를 박멸하는데로, 그들의 추악한 비인간성을  
폭로하는데로 꾸준히 돌리었다.

그러한 시인이었기에 마야콥스끼는 위대한 사  
회주의10월혁명을 커다란 환희로써 맞이하였다.

그에게는 혁명에 참가할것인가 안할것인가 하  
는것이 문제로 제기되지 않았다.

《참가할가, 그렇지 않으면 참가하지 않을가? 이  
러한 문제는 나에게 서지 않았다. 나의 혁명이었  
다. 그래서 스몰리니로 갔다. 분하였던것이다. 무  
엇이든지 닦치는대로 다하였다.》

자서전에서 쓴것처럼 시인은혁명이 일어난 첫  
날 스몰리니에 있는 사회주의혁명의 참모부로 갔  
으며 거기서 닦치는대로 무슨 일이나 다하였다.

그의 이름은 사회주의혁명과 더 좋은 래일을  
위한 쏘베트인민의 위대하고도 영웅적인 투쟁과  
혈연적으로 련결되어있었다. 벌써 1917년 10월혁  
명전야에 이런 시를 썼던 마야콥스끼였다.

파이내풀을 먹어라 꿩고기를 먹어라

너의 마지막날은 닦쳐온다 부르조아여

10월혁명후 마야콥스끼는 《이 두줄의 시가 내  
가 가장 즐기는 시로 되었다.》고 썼다.

1917년 2월 부르조아혁명당시 시인이 군대에  
복무하던 때 이런 일도 있었다. 그가 복무하던 부  
대는 바로 뽀찌르부르그시에 있는 룩군자동차  
학교였다. 짜리즘을 반대하는 폭동이 일어났을 때

학교당국자들은 도주해버렸다. 그러나 마야콥스끼  
는 직접 자기가 학생들을 지휘하면서 혁명의 편  
에서 희생적으로 싸웠다. 그후 이 사변에 대하여  
쓴 시 《혁명》에서 조국의 운명을 자기의 손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손에 무기를 잡고 일어난 인민  
들을 노래하였었다.

마야콥스끼는 10월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렸다. 마야콥스끼의 사  
상, 혁명적기질, 시인으로서의 재능은 그 복잡다  
단한 속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었었다.

11월 30일 뽀뜨로그라드에서 예술의 각 분야  
활동가들의 대표회의가 소집되었었다. 이 회의에서  
인민교육위원회 위원장 루나차르스끼는 예술의  
여러 대표자들이 인민교육위원회와 협력하며 쏘  
베트주권을 지지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이 회  
의에 모인 반동적예술가들은 쏘베트정부의 정책  
을 로골적으로 반대해나서면서 루나차르스끼의  
호소를 거부하였다. 이때 마야콥스끼는 쏘베트주  
권에 대한 자기의 련대성을 성명하면서 쏘베트주  
권을 지지해나설것을 호소하였다. 《새 주권을 축  
하하여야 하며 그와의 련대를 이룩하여야 한다.》  
고 소리높이 웨쳤다.

그러한 마야콥스끼였기에 뽀뜨로그라드의 혁명  
적대중은 그를 시인으로서는만이 아니라 열렬한 사  
회주의혁명가로 알고있었다.

마야콥스끼는 인민의 혁명을 철저히 지지하면  
서 부르조아문학을 반대하여 싸웠다. 그는 예술인  
들을 한데 뭉치게 하는 사업에서도 적극적인 역  
할을 하였다. 그의 활동에 의하여 사회주의적예술  
총동맹출판사, 청년예술인들의 예술출판사 등이  
조직되었고 《꿈무나의 예술》이라는 신문이 직접  
그의 손에서 편집되었었다.

매편의 시마다에 차넘치는 강렬한 혁명적열정  
은 그대로 혁명에 바치는 그의 무한한 헌신성의  
분출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 시인 리용악과 첫 시집 《분수령》

함경북도 경성군의 빈농가정에서 출생한 리용악〔주체3(1914)년 11월~주체60(1971)년 2월〕은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그것도 적지 않은 진보적 문인들이 붓을 꺾고 생활전선을 찾아 뿔뿔이 헤어지지 않으면 안되었던 1930년대 후반기부터 본격적인 시창작의 길에 들어선 시인의 한사람이었다.

일제의 조선민족말살정책이 극도에 달했던 1930년대 후반기 일제가 조선사람의 말과 글, 이름마저도 일본식으로 고칠것을 강요하던 이 시기 리용악은 일본땅에 건너가 고학으로 중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다니면서 여기서 유일하게 조선어인쇄시설을 갖추고있던 《삼문사》주인과 연계를 맺게 되어 그의 도움으로 첫 시집 《분수령》〔주체26(1937)년 5월〕을 내놓을수 있었다.

그때 그의 나이는 23살이었다.

시집에는 그가 그때까지 창작한 서정시 《북쪽》, 《나를 만나거든》, 《풀벌레소리 가득차있었다》, 《국경》, 《천치의 강아》, 《제비같은 소녀야》, 《항구》, 《쌍두마차》 등 20여편의 작품들이 실려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슴에 늘 시대를 안고 몸부림치며 시대의 숨결과 호흡을 같이하기 위하여 아글라글 애쓰는 사람이라야 참다운 시인이 될수 있다.》**

리용악은 늘 가슴에 조선민족의 열을 지니고 우리 문학이 모진 시련을 겪던 때에도 그 어떤 잡탕사조에도 물젖지 않았으며 그처럼 피눈물나는 생활을 체험하면서도 언제나 우리 인민들과 호흡을 같이하며 민족문학의 넋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다.

시인 리용악의 개성적얼굴은 첫 시집 《분수령》에서부터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시집 《분수령》에서는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수난당하던 가슴아픈 체험으로부터 환기된 빼앗긴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부모형제들에 대한 사랑, 일제놈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시집은 거기에 들어있는 작품들이 일제에 대한 항거의 정신을 반영한것으로 하여 세상에 나오자마자 가혹한 탄압의 대상으로 되었다.

이 시집에서 시인은 이렇게 쓰고있다. 《처음에 이 시집 〈분수령〉은 미발표의 시고에서 50편을 골라서 엮었던것인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못했고 여러달 지난 지금 처음의 절반도 못되는 20편만을 겨우 실어 세상에 보낸다.

그 리면에는 딱한 사정이 숨어있다. 이렇게 되고보니 기어코 넣고싶었던 작품의 대부분이 매장

되었다. 유감이 아닐수 없다. …》

그 리면에 숨겨진 딱한 사정이란 다름아닌 일제의 가혹한 출판검열이었다.

이 시집출판과 관련하여 리용악은 주체26(1937)년 여름 와세다경찰서에 구류되었다.

시집에 담겨져있는 경향성을 문제시한 일제는 리용악을 불온분자로 몰아붙이며 박해하였다. 허나 놈들의 그 어떤 가혹한 탄압도 리용악의 창작적지조를 꺾을수 없었다.

시집 《분수령》의 대표작의 하나는 시 《나를 만나거든》〔주체26(1937)년〕이다.

땀마른 얼굴에  
소금이 싹싹싹락 돌힌 나를  
공사장 가까운 숲속에서 만나거든  
내 손을 쥐지 말라

만약 내 손을 쥐더라도  
옛처럼 네 손처럼 부드럽지 못한 리유를  
그 리유를 묻지말아라

주름잡힌 이마에  
불만이 그득한 나를  
거리의 뒷골목에서 만나거든  
먹었느냐고 묻지 말라  
굶었느냐곤 더욱 묻지 말라  
꿈같은 이야기는 이야기의 한마디도  
나의 침묵에 침입하지 말아라

페인인양 시들어서  
턱을 고이고앓은 나를  
어둑침침한 방구석에서 만나거든  
울지 말라  
웃지도 말고  
내가 자살하지 않는 리유를  
그 리유를 묻지 말아라

일본땅에서 그의 고향의 나날은 가혹한 노동과 혹심한 생활난의련속이었다.

그는 폐품수매원노릇도 해보고 도로공사장, 주택건설장, 지하철도공사장, 큰 공장건설장 등을 돌아다니며 굴착도 하고 토량운반차도 밀고 세멘트타입도 하는 등 고된 노동속에서 힘겹게 공부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서정시 《나를 만나거든》에는 모진 고역과 생활난속에서도 압제자들에 대한 증오로 가슴불태우는 식민지청년의 모습이 은연중에 나타나고있다. 일제의 가혹한 착취와 멸시에 의하여 페인처럼 시들어버린 《나》—서정적주인공, 이것은 바

로 시인자신의 초상이었다.

그는 자기의 실생활체험에 기초한 불행한 처지를 노래하면서도 《내가 자살하지 않는 이유를/그 이유를 묻지 말》라고 가슴찌릿한 울분을 토로하고있다. 그것은 바로 나라가 없고 민족이 짓밟히고있는 당대 현실에 대한 불만의 폭발이였고 더 나아가 우리 나라를 집어삼킨 일제침략자들에 대한 항거의 정신이라고 할수 있다.

시집 《분수령》은 그 제목이 보여주는것처럼 《첫 시집 출판을 분수령으로 삼고 더욱 억센 의지로 새 출발하여 우리 민족의 넋을 지켜갈》 작가의 신념과 의지를 반영한 작품들을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시인 리용악의 창작에서도 커다란 전환점으로 되었으며 1930년대 후반기 우리 시문학을 장식하는데서도 중요한 역할을 놀았다.

그러나 시집 《분수령》에 들어있는 작품들은 작가의 세계관적 및 시대적제한성으로 하여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당하게 되는 우리 인민의 불행과 고통을 반영하고 그로부터 환기되는 울분을 토로하였지만 이 불행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도를 옹계 밝히지 못한 부족점을 가지고있다.

시인 리용악은 해방전에 첫 시집《분수령》을 내놓은데 이어 계속하여 《낯은 집》, 《오랑캐꽃》을 내놓았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고 첫 시집보다 더 좋은 시집을 내보려던 시인의 꿈은 해방후 남조선에서도 실현할수 없었고 주체 40(1951)년 조국해방전쟁시기 아버지수령님과 당의 품속에 안겨서야 드디어 실현할수 있었다.

전후에 그는 《봄》, 《〈민청호〉 어선》 등 현실주제작품들과 《우리 당의 행군로》를 비롯한 혁명전통주제의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특히 시인은 주체45(1956)년에 우리 문학사에 남을 시초 《평남관개시초》를 내놓아 우리 인민들과 더욱 친숙해졌다.

해방전 첫 시집《분수령》을 내놓았던 시인은 주체46(1957)년에 해방전후를 통하여 자기가 쓴 시들가운데서 우수한 작품들을 묶은 시집《리용악시선집》을 내놓게 되었다.

## 문학민

# 등교의 날에

## 구영일

등교의 아침  
나는 교복을 입는다  
복무의 그 나날 내 몸에 습배였던  
어제날 땅크병  
병사의 땀냄새 기름냄새 아닌  
누이동생 밤새 곱게 다려준  
아 대학생교복을 나는 입는다

거울앞에서  
옷자락을 쓸어보고  
넥타이매듭도 거뜰 매만지며  
몸에 그리도 잘 어울리던  
나의 군복을 생각한다

그렇다  
나는 병사였다  
새빨간 령장 달고  
군기앞에서 엄숙히 군인선서 다지고  
당기발앞에 입당선서를 한  
나는 병사

어이하여 이 아침 이 교복이  
군복으로만 느껴지는것인가  
비록 이 옷에

땀내며 초연내 배일 일 없어도  
아침검사에 나가는 병사의 마음으로  
나는 산뜻한 교복을 입는다

매일 틀어쥔 가벼운 펜조차  
땅크의 조종간처럼 억세게 틀어쥐고  
시창을 내다보던 두눈으로  
초소의 산고지대신  
내 올라야 할  
과학의 봉우리를 엄숙히 바라보리라

나는 정녕  
군복을 벗지 않았다  
붓대를 총대처럼 억세게 틀어잡고  
교과서의 글줄을 군인선서처럼 외우며 살  
장군님의 영원한 병사이거니

아, 조국의 미래는  
총대와 과학으로 담보되기에  
화선앞에 서던  
병사의 그 자세로  
나는 교복을 군복처럼 입고  
등교길에 오른다



## 왜놈의 쪽발이상

김용엽

### 군국주의 《해골탕》—야스구니진자

찾아간다  
일본땅 사무라이놈들  
매독쟁이 매춘부집 찾아가듯  
앞을 다뤄 저저마다 찾아간다  
수상도 국회의원들도...  
야스구니진자—군국주의 《해골탕》으로

네면이 바다로 출렁이는 섬나라  
그 어디나 몸뚱이 씻을 푸른 물이건만  
어찌하여 도꼬도 으스스한 곳  
해골물 넘실대는 야스구니진자로  
승냥이무리마냥 물려가느냐

내 눈엔 보인다  
남녀로소 상하도 가림없이  
승벽내기로 첩병첩병  
해골물탕에 뛰어드는 알몸뚱이들  
꿀꺽꿀꺽, 꿀꺽꿀꺽...  
복골에 갈증난 개마냥 군국주의 해골물  
계걸스레 들이키는 그 물골들이

말할수 있으리 네놈들  
《우리 조상님령흔들 고이 잠드신 곳》  
감히 해골물탕이라 모욕한다고  
허나 내 달리 표현할수 없구나  
있지 않느냐 야스구니진자 그 사당에  
조선강점과 중국침략 태평양전쟁...  
략탈과 인간살육에 악명떨친  
수많은 군국주의피수들 위패가

선히 보인다  
그 구린내나는 알몸뚱이로  
국제교수형까지 당한 깡패두목  
도조놈의 위패를 부여잡고  
기어이 복수하겠다 맹세하는 물골이  
그러니 불보듯 명백하질 않느냐

참새주둥일 조아리며 참배하는 목적  
그 해골물에 량심과 도덕은 다 씻어버리고  
군국주의망령물만 체질화하여  
재무장 재침의 힘 키운다는것이  
《대동아공영권》의 옛꿈  
기어이 실현하겠다는야망이

원래 야스구니진자 그 어근을 따지면  
나라를 편안하게 한다는 뜻  
그러니 네놈들은 남의 나라 편안과 통성  
무참히 파괴하고 강탈한 낯강도무리들  
제 나라 《편안》과 《통성》에 기여했다고  
애국자로 참배하는 놀음  
정책화 제도화했으니  
인간이라면 돌려보라 세상천지  
그런 인간야수들  
그런 야수의 정부 야수의 정책  
파연 그 어디에 있는가를

들리지 않느냐  
네놈들 귀구멍엔  
—인류앞에 최악이다  
당장 걷어치우라 참배놀음  
당장 없애라 사당의 《기념관》도  
화살처럼 날아드는  
인류와 국민들 그 부르짖음이

그래도 먹겠으면 실컷 치먹어보라  
악취가 풍기는 그 해골물  
온 몸매기 풍선마냥 부풀도록  
꿀꺽꿀꺽, 꿀꺽꿀꺽...  
그러다 쿵, 쿵, 쿵... 터져 뚝지리라  
력사의 오물장 그 해골탕에서  
만신창된 네 조상들처럼

### 반대로 내건 문패

눈맛도 있고 귀맛도 있구나  
왜나라 오랑캐무리들  
요술쟁이마냥 눈속임수로  
화약내 풍기는 렬도소굴에 내건

《아름다운 나라 건설》문패가  
건설하누나 소굴에선 웅강쟁강...  
평화헌법도 전쟁헌법으로

모조리 마스코 고치느라 똥강쟁강...

잊지 않았겠지  
전패국 전범국 네놈들  
재침 못하게 무장해제시킨 그 선언을  
재무장산업도 정규무력도 안 가지고  
영원히 평화국가로 남겠다는 그 서약을

허나 진짜 아름다움은 다 팽개치고  
토하누나 꾸역꾸역 무기생산 검은 연기  
그 연기 풍기며 진출시켰구나 빼앗이  
완전무장한 정규무력자위대도 해외로

방위청도 방위성으로  
다락처럼 올린 군국주의무리들  
이젠 서슴없이 내뿜누나  
국제법에도 제 나라 헌법에도 없건만  
우리도 선제공격할권리가 있다고

결국 《아름다운 나라 건설》문패  
그것은 인류와 세계를 속이려 내건  
군국주의국가, 전쟁국가건설문패  
스스로 세계면전에 해발딱  
네놈들의 검은 속통 내비친 거울

까마귀 열두번 울어도 까옥소리뿐  
어이 달라질수 있으랴  
군국주의 특급전범자들 혈통에서 기여나와  
강도의 진한 피가 흐르는  
네놈들 그 본성이

이게 바로 죽어도 대물리는 유전자  
사무라이들 피속에 걸죽이 배인  
침략적 략탈적 강도적본성  
하기에 네놈들보고 말한다 유치원애들도  
—불을 즐기는 놈 불에 타죽는대요

## 꼭두각시 쪽발이들

세상천지 사람들아 인형극을 구경하세  
왜땅 통채 무대되어 아무때나 공연이니  
관람표도 필요없고 시간에도 관계없다  
눈여겨서 살펴보세 무슨 내용 담겼는지

나서누나 무대우엔 푹각푹각 쪽발이들  
맹꽁같은 배때기에 계다짜를 걸쳐신고  
앉았구나 무대밑엔 흥물스런 양꼬배기  
포악스런 발톱에다 인형줄을 움켜잡고

앞발통을 추켜들며 미제야수 줄당기니  
추켜든다 일제야수 움찔움찔 앞발통을  
승냥이들 뱅글뱅글 돌아가며 줄돌리니  
쪽발이도 때뚱때뚱 정신없이 따라도네

우리 나라 《제재》한다 미제놈들 날쳐대면  
쪽발이도 《제재》한다 오펝오펝 까불대고  
미싸일을 요격한다 방위체계 세우자면  
얼싸 좋다 손벽치며 톱깃톱깃 춤추누나

정치적인 미숙아니 주대인들 있을손가  
대미추종 대미굴종 미칠대로 미친 놈들  
신통해라 몸동작도 세계제패 그 야망도  
양키들만 따르는 꼴 그야말로 가관일세

미제야수 당긴대로 까뚱대던 일제야수  
줄놓으니 못 떼누나 오펝 서서 한자육도  
그 얼마나 가련하오 희비극의 인형극이  
제 무덤을 제가 파는 꼭두각시 쪽발이들

## 철면피한 쪽발이들

잘못을 저지른 강아지도  
주인이 욕하면 빌더라  
엎드려 두귀쪽 뒤로 붙이고  
주인앞으로 자꾸만 기여들며  
안절부절 어쩔바를 몰라

허나 왜나라 쪽발이들아  
네놈들 하는짓 보면  
정말 개보다도 못하구나  
우리 집 검정강아지보다도

인류앞에 지은 대범죄  
성근히 사죄하고 보상할대신  
피로 얼룩진 침략의 그 력사  
모조리 잘한것으로 외곡하니  
도대체 무슨 낮잡들이기에  
그처럼 파렴치한지  
때려보자 이 함마로  
파연 인간의 낮잡들이 맞는지

우선 네놈부러나서라 아베  
수상직에서 떨어졌다 면하라

조선과 아시아를 침략한 날강도  
강탈자 살육자 네 조상놈들  
조선의 《근대화》를 도와준 좋은 일이라고  
아시아 《해방과 독립, 번영에 이바지》한  
《정의의 전쟁》이었다 외국한 그 죄행  
때려보자 뻔뻔스런 그 낯짝  
사정없이 사정없이  
평 평 평...  
아이쿠 녹슨 파철소리  
육불이가 아니라 쇠불이구나

이번엔 까불락대길 잘하는  
자민당 회장 예포 다까미눔  
나서라 그 낯짝을 때려보자  
1910년에 날조한 강도적 《한일합병》도  
1945년에 생겨난 유엔승인까지 받았다고  
앞뒤도 맞지 않게 췌치는 팔삭둥이  
텅 텅 텅...  
에크 빈 깡통소리구나  
그러니 개지능보라도 못할수밖에

문부과학상도 관방부장관도

도교도지사도...  
거품물고 력사의곡에 앞장선  
요망스런 족발이 상판대기들  
모조리 돌아가며 때려봐도  
정말 신통하구나  
모두 파철 쓴 철면피한들

그러니 어이 흐르라  
그 낯짝들에  
인간량심의 더운 피가  
인간감정의 더운 온기가

어디 가라 선대에서 넘겨받은  
철면피한 사무라이 본능적기질  
세월이 흐른다 변하라  
세대가 바뀐다 달라지라

파철더민 용광로가 제격  
그 씨종자 더 퍼지기 전에  
개보다도 못한 철면피한 낯짝들  
쳐넣자 모조리 함마로 짓대겨  
펄펄 끓는 용광로에

## 미꾸라지 룬꿈

저 바다 건너 섬나라 일본땅  
물웅덩이에 오골대는 미꾸라지들  
부지런히 뛰쳐오르누나  
숨이 막히는듯  
어제도 오늘도 쫄방쫄방...  
뽀족한 주둥이수염 나풀대며  
저도 맑은 하늘로 올라보잔다  
쫄랑쫄랑 쫄라당대며

열번, 백번, 천번...  
아무리 재주부려 뛰쳐올라도  
겨우 수면에서 한두뿔  
아뿔싸 떨어졌구나  
쫄랑대다 땅바닥에  
이게 바로 미꾸라지 룬꿈

어쩌면 그리도 신통하나  
요사스럽고 간특한 족발이몰골  
제바닥 물웅덩이 미꾸라지와  
요염스런 낯짝도 미꾸라지상  
매끄러운 몸매기도 미꾸라지형

요리조리 빠지는것도 미꾸라지본새  
계다가 꿈마저도 미꾸라지꿈

아 하하하...  
우습구나 우스워  
정말 요절하겠구나  
미꾸라지마냥 쫄라당거리는  
정치난쟁이 그 주제에  
감히 유엔상임리사국자릴 넘보다니

가련도 해라 네놈들  
인간의 량심은 티끌만도 없이  
야심만 가지고 그 자리에 오르자니  
그 어이 오르라  
하많은 죄 온몸에 실려

떨어져도 망망대해  
태평양고기밥신세나 되리라  
그게 바로  
미꾸라지 룬꿈

## 해방전 농촌계몽운동과 장편소설 《상록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난 시대의 작가와 작품을 문학사나 예술사에서 취급하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작가, 예술인들과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우리 문학과 예술사에도 당대 문학예술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작가와 작품이 있었다는것을 알려줌으로써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동시에 지난날의 력사에서 경험과 교훈을 찾게 하자는데 있다.**》

《카프》동반자작가 심훈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장편소설 《상록수》〔주체24(1935)년〕이다.

장편소설 《상록수》를 옳게 파악하려면 1930년대에 벌어진 지식청년들의 농촌계몽활동에 대하여서부터 먼저 리해해야 한다.

강점이후 일제는 조선의 비옥한 땅을 강도적으로 빼앗는 한편 봉건적토지소유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토착지주들을 제놈들의 앞잡이로 내세워 식민지통치를 유지하고 농촌에 대한 수탈을 악착하게 감행하여왔다. 그리하여 농촌경리는 더욱 쇠퇴되고 농민들은 2중3중의 착취와 약탈속에서 신음하게 되었으며 농민들의 소작쟁의가 끊임없이 일어났다.

특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시는 항일혁명투쟁의 혁명적영향밑에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농민들의 진출도 더욱 강화되었다.

이 시기 일제는 대륙침략전쟁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조선농촌을 저들의 식량공급기지로, 원료원천지로 보다 철저히 전변시키며 증대되는 농민들의 항거기세를 막으려는 목적밑에 기만적인 《농촌진흥》운동을 벌여놓았다.

주체21(1932)년7월에는 총독부의 《정무총감》을 우두머리로 하는 《농촌진흥회》를 조작하고 각도, 시, 군, 면에 이르기까지 그 간판을 내걸도록 강요하였다. 이 시기 일제가 벌린 관제《농촌진흥》운동은 조선농촌의 모든것을 보다 손쉽게 깡그리 약탈하고 농민들을 순종의 노예로 엮어매놓기 위한 식민주의자들의 악착하고 교활한 술책의 산물이었다.

일제는 이른바 《농촌진흥》운동을 벌리면서 《자작농창정》이라는 허울좋은 간판을 내걸었으나 이 《운동》이 나온 이후 《자작지》의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농촌경리는 더욱 령세화되었으며 농민생활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모든 농민들이 무서운

기근에 빠져들어갔다.

이러한 시기에 진보적인 지식청년들은 농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계급의식을 깨우치고 그들을 지주를 반대하는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면서 일제가 벌려놓은 《농촌진흥》운동에 반기를 들었다.

이와는 좀 달리 청년학생들이 방학기간에 농민들을 문화적으로 계몽하는 운동도 진행되었는데 그것은 민족개량주의적영향을 다분히 받고있었다.

이외에 종교계통이나 유산층에서 벌리는 자선적인 유흥식의 농촌운동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시대적현실을 반영하여 이 시기에 농촌주체의 문학작품들이 다양한 경향성을 띠면서 널리 창작되었다. 그중에서도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계층의 활동이나 농촌계몽운동을 형상한 작품들 특히 장편소설들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장편소설 《상록수》는 농촌에서 농민들을 위해 몸바쳐 일하는 청년농촌운동자들의 형상을 그려 보이고있다.

심훈은 이 소설에서 최악의 상태에 이른 당시 우리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고를 진실하게 그려보이면서 이러한 상태에서 농민들이 절망하지 않고 살아나가도록 하자면 어떻게 해야하겠는가 하는 주장과 지향을 구현하였다.

소설의 주인공들인 박동혁이나 채영신은 다같이 학교를 다니던 애젊은 청년들로서 정의감이 강하고 혈기왕성하며 대중을 위한 일에 투신하는 인물들이다.

동혁은 자작농인 아버지가 땅을 팔아 농업전문학교에까지 보내주었지만 3년간이나 다니던 학교를 서슴없이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가 가난한 농민들을 위해 한몸바쳐 일한다. 농민들과 함께 일하면서 《농우회》를 조직하고 마을의 청년들을 집단적으로 교육하며 공동소작답을 얻어 회의기금을 마련하고 회관을 짓는 등 여러가지 사업을 벌여놓고 언제나 그 앞장에 서서 정력적으로 일한다. 그는 농민들의 단합된 힘을 배경으로 마을의 세력가인 친일지주 강기천을 눌러놓고 그의손발을 엮어매놓는다. 동혁은 활동도중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고생을 하고 나와서도 조금도 기가 꺾임이 없이 일을 줄기차게 계속해나간다.

너주인공 채영신은 처녀의 몸으로 생소한 산골

마을에 홀로 가서 야학을 세우고 130여명의 강습생들을 받아 교육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학원에서 제기되는 모든 일을 다 말아하면서 무산아동들의 보모가 되고 가난한 부녀들의 지도자가 된다.

농민들을 집단적으로 교육하는데 신경을 도사린 경찰이 장소가 좁다는구실로 강습생을 대폭 줄이라고 강박해나서자 그는 이악하게 기부금을 모으고 손발을 적시며 앞장에 서서 끝내 새 회관을 짓고야만다.

영신은 가난하고 불쌍한 농민들을 위하여 파로도 무릅쓰고 무리하게 일하다가 건강을 해치게 되며 병이 위중했으나 돌볼새없이 아픈 몸을 이끌고 무산아동들을 교육하고 학원의 유지비를 얻으러 다니다가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생을 마친다.

소설에서 가난한 농민들을 위하는 주인공들의 헌신성을 이와 같이 형상적으로 부각한것은 작품의 주제사상적지향과 관련되어있다.

작가는 이 소설에서 온갖 사이비 《농촌운동자》들과 구별되는, 농민대중을 위해 진심을 다 바쳐 일하는 인간의 전형을 창조하려고 하였다. 이로부터 민족개량주의경향의 《농촌운동자》들과 같이 농민들의 《문명》을 부르짖으며 빈대약이나 사다주는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사상계몽을 주장하고 아사지경에 이른 그들의 생활을 다소라도 풀어주기 위해 애쓰는 인간을 보여주었으며 청춘과 생

명까지 농민을 위해 바치는 헌신적인 성격을 창조하였던것이다.

작품에는 일련의 제한성도 있다.

그것은 동혁이가 지주 강기천과 타협하는것이다.

작가는 소설에서 농민들의 단합에 관한 문제를 중요하게 강조하였으나 그것을 일제와 지주를 반대하는 집단적인 투쟁으로 지향시키지 못하였으며 지주 강기천과 타협하여 《농우회》간판을 《진흥회》간판으로 바꾸는 동혁의 행동을 능숙한 선장의 행위로 묘사하였다.

소설은 주인공들의 성격에서 농민들을 위한 헌신성을 강조하고있으나 그것은 주로 회관짓는 문제와 련관되어있으며 작품의 첫머리에서 제기한 농민들의 사상계몽을 위한 활동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혀져있지 않다.

이러한 일련의 부족점이 있지만 장편소설 《상록수》는 해방전 1930년대에 활발히 벌어진 지식청년들의 농촌계몽운동을 사실주의적필치로 생동하게 그려내고 개성이 뚜렷한 남녀주인공—박동혁과 채영신의 산 성격을 창조한것으로 하여 문학사적인 의의를 가진다.

**함성실**